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년 8월
박사학위 논문

대금 입문 프로그램 개발

- 성인학습자 대상 실행연구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채 광 자

대금 입문 프로그램 개발

- 성인학습자 대상 실행연구를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Daegeum Program for beginners:
with a focus on Action Research with Adult Learners

2012년 8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채 광 자

대금 입문 프로그램 개발

- 성인학습자 대상 실행연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서 덕 희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채 광 자

채광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조교수	<u>배영주</u> (인)
위원	전남대학교 교수	<u>성심온</u> (인)
위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u>김지현</u> (인)
위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u>김대식</u> (인)
위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u>서덕희</u> (인)

2012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문제	4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5
1. 프로그램 개발 모형과 절차	5
제2장 이론적 배경	14
제1절 평생교육으로서의 전통음악교육	14
제2절 음악교육 철학과 프래그머티즘	16
1. 전통음악사상으로서의 예악사상	16
2.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실용주의)과 음악교육	17
제3절 음악교수법과 포괄적 음악성	19
1. 음악교수법	19
2. 포괄적 음악성	21
제4절 성인학습자의 특성	22
1.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	22
2. 음악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특성	23
제5절 대금 프로그램 선행연구	25
제3장 연구1: 대금 입문 프로그램 기획·설계	29
제1절 프로그램 기획 단계	29
1. 프로그램 개발 요구 확인	29
2. 전문가 설문 조사	30

3.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요구 분석	32
4. 교육요구 및 필요분석	37
5. 교육요구의 프로그램 목표로의 전환	49
제2절 프로그램 설계	51
1. 교육목표 설정	52
2. 교육내용 선정	52
3. 교수-학습 방법	53
4. 제재곡 구성	54
제3절 15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약안	56
제4장 연구2: 대금 입문 프로그램 적용	86
제1절 연구목적	86
제2절 연구방법	86
1. 실행연구와 연구과정	86
2. 연구자	88
3. 연구 참여자	88
4. 실행연구의 의의와 한계	89
제3절 실행연구 결과	90
1. 1차 프로그램 적용	90
2. 2차 프로그램 적용	102
제5장 프로그램 최종안 개발	113
제1절 최종안 교수-학습 과정안	114
제2절 프로그램 적용 결과	154
1. 교수자의 변화	154
2. 학습자의 변화	155
제6장 요약 및 제언	158

제1절 요약	158
제2절 제언	162
참고문헌	166
부록	172

그림 목차

<그림 1> Kemmis & Mctaggart의 자기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 모형	7
<그림 2> 대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모형	8

표 목차

<표 1> 프로그램 개발 요구 구성요소	29
<표 2> 응답자의 배경변인 분석	33
<표 3> 학교 재학 중 전통음악 교육을 받은 분야(복수 응답자 포함)	35
<표 4> 졸업 후 전통음악교육 장소	36
<표 5> 졸업 후 전통음악교육 내용	37
<표 6> 대금을 배우는 목적	39
<표 7> 대금 지도의 수준 요구도	40
<표 8> 음악이론공부의 병행 선호도	41
<표 9> 악보의 선호도	42
<표 10> 악보 활용 순서 선호도	43
<표 11> 운지법 선호도	44
<표 12> 시김새: 장식음, 부호, 악상기호 등을 배우는 시기에 대한 선호도	45
<표 13> 박자 익히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	46
<표 14> 진도의 선호도	47
<표 15> 배우는데 있어서 제일 선호하는 대금 연주곡	48
<표 16> 연주곡을 배우는 순서 선호도	49
<표 17> 15차시 수업의 1차와 2차의 프로그램의 차이	100
<표 18> 수강생들의 변경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07
<표 19> 2차 적용된 프로그램과 수정된 프로그램 계획 비교	111

부록 목차

<부록 1> 설문지	172
<부록 2> 대금의 이해	180
<부록 3> 1차 프로그램 학습자 면담 질문지	196
<부록 4> 1차 수정된 15차시 세부 본시 학습과정안	197
<부록 5> 2차 프로그램 학습자 면담 질문지	232
<부록 6> 1차 프로그램 일지	233
<부록 7> 2차 프로그램 일지	241
<부록 8> 2차 수정 프로그램 실행 후 성인학습자들 만족도 조사지	249
<부록 9> 전문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1	250
<부록10> 전문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2	251

악보 목차

<악보 1> 아리랑 정간보	253
<악보 2> 아리랑 오선보	254
<악보 3> 도라지타령 정간보	255
<악보 4> 도라지타령 오선보	256
<악보 5> 밀양아리랑 정간보	257
<악보 6> 밀양아리랑 오선보	258
<악보 7> 진도아리랑 정간보	259
<악보 8> 진도아리랑 오선보	260
<악보 9> 연습곡 1, 2 정간보	261
<악보 10> 연습곡 1, 2 오선보	262
<악보 11> 연습곡 3, 4 정간보	263
<악보 12> 연습곡 3, 4 오선보	264
<악보 13> 놀리리야 정간보	265
<악보 14> 놀리리야 오선보	267
<악보 15> 칠갑산 정간보	268
<악보 16> 칠갑산 오선보	270
<악보 17> 한오백년 정간보	271
<악보 18> 한오백년 오선보	272
<악보 19> 꼭꼭숨어라, 월위리 청청 정간보	273
<악보 20> 꼭꼭숨어라, 월위리 청청 오선보	274
<악보 21> 어깨동무 정간보	275
<악보 22> 어깨동무 오선보	276
<악보 23> 천년바위 정간보	277
<악보 24> 천년바위 오선보	279

ABSTRACT

Development of Daegeum Program for beginners: with a focus on Action Research with Adult Learners

Chae Kwang Ja

Advisor : Seo Deok-Hee, Ph.D.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Daegum program for beginners of which purpose is the learners' enjoyment of music, unlike training program which is focused upon preparing college entrance test for students whose purpose is to become professional musicians. For this purpose, first, Daegum program for beginners was planned and designed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learners' need for program based upon their previous musical experiences. Second, action research was conducted by researcher, who reflected on effectiveness and meanings of the designed program, and modified it based upon her reflections and the learners' appraisals.

As the first step of planning and designing the program, characteristics of Daegeum program as life-long education was identified from the humanistic and humanitarian viewpoin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For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this study adopts Dewey's philosophy of education such as 'reconstruction of experience', which gives an emphasis upon the need of a new musical experience based upon its previous experiences through continuous 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and learners. Also, for teaching methods of music, comprehensive approach to musicianship is adopted.

Secondly, the results of needs survey was analyzed. For education contents, adult

learners wanted to study some theoretical contents and to play various Sigimsae for the advanced level if not majors-level. For the composition of music materials, learners demanded being taught in the order from familiar songs to traditional music.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learners, teaching methods were demanded by learners. They preferred being taught precisely and practising repeatedly, in spite of the late processing. These requirements show adult learners' lack of space and time for practising and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memory ability deterioration.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needs survey, the first program draft was designed (1st to 15th time plan). Plastic Jeongak Daegeum was adopted as an instrument, and Jeongganbo and staff were adopted at the same time as a music sheet. Music materials were composed of basic Etudes and familiar folk songs such as Arirang, Doragi Taryeong, Miryang Arirang, and Jindo Arirang.

As the second step of developing Daegum program, application study of the program was conducted by adopting action research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effect and meaning of a newly designed program and correcting the program. At the first application, it was revealed that Jeongak Daegeum was difficult for beginners to voice and finger. At the second one, thus, Sanjo five GwangCheong BonCheong was adopted and therefore music materials were composed of popular songs so that it cannot lose learners' interest. As its results, it was revealed that it is easier for learners to do voicing because small instrument and five holes are easy to handle. Depending on the results of action research, the final program was designed. With the same musical instruments, voicing, fingering, ornaments, and symbols as the second one, traditional nursery rhymes and popular songs were added to the music materials of the second one.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newly developed Daegum program for teachers to realize that learners desired learning Daegum more to the advanced level because it gives learners opportunities to enjoy music based upon their previous musical experience. It showed that learners enjoyed music themselves and wanted to learn more

to a higher level. Adult learners emphasized the enjoyment of music, saying that they played Daegum with their family singing a song which they already knew. In addition, they realized that they need to overcome difficulties in playing Daegum by way of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instructor and themselves for continuous construction of their experiences and fruitful enjoyment.

Despite several limitations, this study can lay the groundwork for the enjoyment of traditional music by developing Daegeum Education program for beginner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adult learners for leisure. If not for beginners, who prepare entrance examination, this program can be modified to be adopted for children and youth.

Keywords: Daegum, program development, action research, adult learne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 생활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여건을 마련하였을 뿐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며 여가를 위한 평생교육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가를 위한 평생교육은 특히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풍부하게 해주는 예체능 분야에서 필요하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정화시켜 줄 수 있는데, 평생교육에 있어서 음악교육은 풍부한 감정과 선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결핍된 인간을 만들어 내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음악체험을 통하여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계발하고 조화된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이용일, 1989). 구체적으로 인간이 좋은 음악을 접하는 것은 보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나아가 긍정적 성격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Joseph & Kristine, 1990). 현대인의 교양수준 제고와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며 음악은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함으로써 일상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음악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화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음악교육에서의 전통음악¹⁾은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옛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중시되는 부분이다. 한국 전통음악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국악 방송국을 설립하고, 음악교과서에 한국음악의 비율을 높이고, 교사의 국악 연수회를 확대하는 등

1) 전통음악(傳統音樂) :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예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또는 그것의 핵심이 되는 정신을 계승한 음악. 역사적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서 현재의 생활에 의미와 효용이 있는 문화유산을 이르기에도 한다.

한국 전통음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전통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보다는 경제적 발전을 우위에 두는 현실 속에서 전통음악의 위상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송민영, 2004).

현재 대부분의 전통 음악 교육은 학교의 정규 음악교육을 제외하고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신문사나 백화점 혹은 지자체에 속한 문화센터, 방과 후 활동에서 이루어진다. 학교의 정규 음악교육은 그 대상자가 명확하지만, 대부분의 평생교육현장에서는 학점은행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특별 강좌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별, 학력,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유아,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거나, 숙련정도에 따라 기초, 중급, 고급과 정 등으로 나눈다. 그러나 실제 전통음악프로그램 편성의 교육 대상은 대부분 성인 학습자이다(송민영, 2004).

이 때 성인이란 만 20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나, 여기에서 성인학습자는 주로 음악을 전공으로 배우지 않은 성인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과 성인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성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학교생활을 마치고 사회활동을 하며, 신체적·지적능력이 감퇴되어 장시간 집중이 어렵고 학습의 성과를 실제로 사용해 보아서 잘 통용될 때 학습의 만족을 느끼며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의미한다(김주형, 2004).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처럼 미래 전문연구자가 되기 위하여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여가를 즐기기 위하여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채광자, 2011).

위와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인 음악 강좌와 전문연주자 강좌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음악교육을 프로그램화한 사례는 많지 않다. 관련연구도 서양음악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음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음악교육과 관련된 성인연구들은 주로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전통음악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김화선, 2002; 박현주, 2005; 홍은주, 2007; 홍은주, 2008)에 그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의 전통음악교육 발전 방안 연구(김귀진, 2002; 이복선, 2003)나 지도법이나 교수법 연구(김주형, 2004; 남경호, 2007; 오진경,

2010; 유효정, 2008)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전통음악의 경우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가 있을 뿐 구체적인 성인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는 전무하다. 특히 성인학습자들에게 전통음악교육이 필요하다는 규범적 판단만 있을 뿐, 실지로 성인학습자들의 전통음악교육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요구(needs)에 대한 조사는 한 사례(송민영, 2004)를 제외하고는 없다. 송민영의 연구(2004)도 요구조사에 그쳤을 뿐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않았다.

성인들의 전통음악 교육 참여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강조되듯이(송민영, 2004; 채광자, 2011), 이들의 참여 목표는 전문적 연주가 되는 데 있지 않으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여가선용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사회의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전통음악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금 입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자는 성인학습자들이 전통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고 연주에 몰입하면서 전통음악 자체를 향유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금 입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대금연주를 처음 접하는 초급단계의 성인학습자들이 수업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선 음악교육 경험과의 연속선상에서 대금연주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법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전통음악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 부족과 교육 부족으로 인하여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그나마 지금까지 많이 보급되고 있는 부분은 판소리와 가야금, 단소, 사물놀이이다. 대금의 경우, 관현악 합주 시 없어서는 안 되는 악기이며 정악합주, 시조 반주, 가곡반주, 독주곡 연주 등, 민속악에서는 독주곡인 산조²⁾ 뿐만 아니라, 민요나 창극 반주,

2) 산조(散調) : 주로 남도소리의 판소리 가락을 장단이라는 틀에 넣은 기악독주음악. 조선말기(19C)에 발생하였다. 진양으로 시작하여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옛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세산조시) 등의 장단으로 이어 지면서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지며, 일반적으로 장구반주가 따른다.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아쟁 순으로 발생하였다.

시나위³⁾, 풍류 등을 연주할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급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성인학습자들에게 유용하고 효율적인 대금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전통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보다 쉽고 흥미 있게 우리의 음악적 감수성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대금을 처음 배우는 초보 성인학습자들에게 쉬운 가락부터 전통의 가락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경험에 도달하여 전통음악을 향유하도록 보다 쉽게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전통음악 프로그램 편성의 교육 대상이 대부분 성인임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 교육과는 다른 효과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 체계성과 전문성보다는 관심과 흥미를 중심으로 학습이 전개되어야 하고 연구의 원칙과 전통보다는 표현과 경험의 확대에 초점이 놓여야 하기 때문이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금 입문 프로그램 연구는 단순히 하나의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 대한 제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여가로서의 평생교육을 보다 구체화하고 다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문제

본 논문의 목적은 질 높은 여가를 위하여 성인학습자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대금연주에 몰입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음악 자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금 입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문헌조사 및 요구조사

3) 시나위: 전라도 지방의 무악(巫樂)의 한 가지. 장단은 산조와 같고 향피리, 대금(大琴), 해금(奚琴). 장고로 편성되며 불협화음(不協和音)을 내는 듯 하면서도 조화(調和)를 이루는데서 묘미(妙味)가 있다.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음악. 어원에 관련하여 여러설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신라의 '사뇌'에서 나왔다. 시나위의 탄이름인 심방곡은 무당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옛 문헌에는 '신방곡(神房曲)'으로도 나온다. 관악기와 타아기를 중심으로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등이 편성 된다. 장단은 도살풀이, 살풀이, 동살풀이 등이 쓰이며 오늘날의 시나위는 경기도 남부, 충청도 서부, 전라도, 경상도 서남부 지방의 무가음악에서 나왔다.

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지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목적이 참여한 학습자들에 의하여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용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는 문헌조사와 요구조사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이며 둘째는 실험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적용과 수정이다. 각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1)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금 입문 프로그램 기획·설계

1. 처음 입문하는 성인학습자들 대상 대금 입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2. 성인학습자들의 음악 향유를 위한 대금 입문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가?

연구2)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금 입문 프로그램 적용

1. 개발된 대금 입문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교수자의 반성과 학습자의 평가는 무엇인가?
2. 교수자의 반성과 학습자의 평가에 근거하여 대금 입문 프로그램은 어떻게 수정 가능한가?
3. 최종 수정된 대금 입문 프로그램과 그 적용결과는 무엇인가?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 프로그램 개발 모형과 절차

이 연구는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대금 입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프로그램, 프로그램개발의 개념, 그리고 이 연구에서 활

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모형과 절차를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모형

프로그램이란 개념은 어원상 다차원적 개념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김진화, 2001: 65), 평생교육 분야에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전에 계획된 학습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조직화된 일련의 학습내용, 학습활동, 학습방법의 통합된 실체”(Rothwell & Cookson, 1997: 4, 김진화, 2001: 66에서 재인용)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란 프로그램을 기획(planning), 시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순서나 차례로 규정되는 일련의 과정이다(Long, 1983: 157, 김진화, 2001: 79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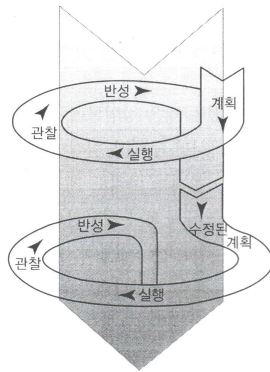
평생교육에서 프로그램 개발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행위로 의도성, 계획성, 가치지향성을 지닌다(김진화, 2001). 어떤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지니며, 그 과정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틀 속에서 이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의 목표의 가치지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관점과 음악교육 철학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이 연구의 문제의식에 적합한 대금교육프로그램의 원리가 되는 음악교육철학을 확인하였으며, 음악교육 관련 교수법들을 검토하여 성인학습자들의 여가를 위한 음악교육에 적합한 교수법이 무엇인지, 시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대금교육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금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가치 지향과 원리를 확인한 후 이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구분석 등을 실행하였다. 대상자들의 요구와 프로그램간의 괴리는 성인교육의 자발성에 비추어 성인들의 참여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성인교육 대상자들의 요구 분석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수적이다(김동위, 1996). 이를 통해 1차적으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활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적용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자 자신이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실행과정을 참여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시 수정을 하는 과정을 2차에 걸쳐서 수행하였다. 즉,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 검사 도구를 활용하기 보다는 전문연주자이자 지역 내 소수의 전문연주자의 실천적 지식과 반성에 근거한 실행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행연구는 주로 학교 교사나 현장 실천가들이 ‘실천 속에 반성(reflection in action)’이라는 쇠(Suchön)의 개념에 근거하여 ‘연구자로서의 실천가’들이 실천을 하면서 동시에 연구를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에 그 가치와 중요성이 확산되어 왔는데, 실행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과 달리, 행위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삶을 탐구하여 계속적으로 개선하려는 과정지향적 탐구 패러다임이다. 특히 현장개선을 직접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과정을 강조한다(이용숙 외, 2008: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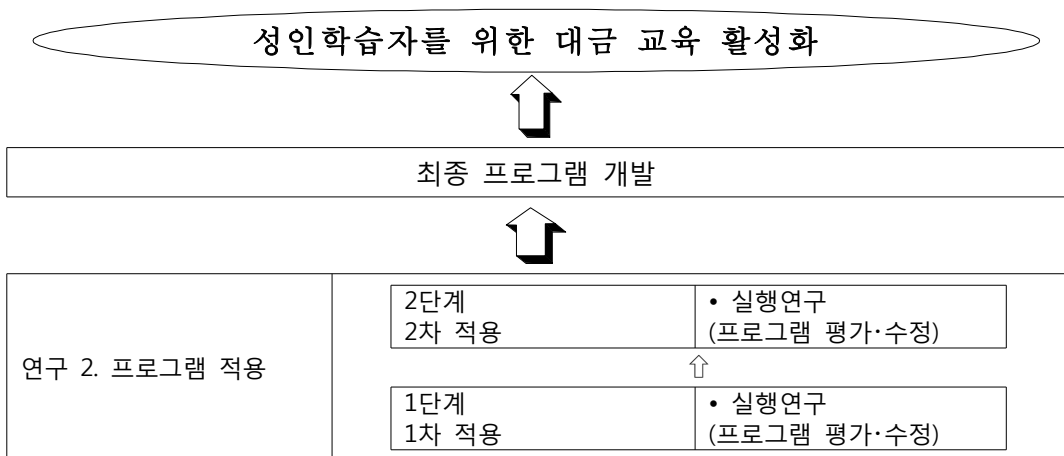
이 연구는 실행연구 중에서도 Kemmis & Mctaggart의 자기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은 순환적·반성적·비판적인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이해와 행위가 연결되는 실천적 지식을 산출하는 실행연구의 과정을 Kemmis & Mctaggart(1998)는 그림과 같은 나선형의 자기반성적 연구 사이클 모형으로 나타냈다(최의창, 1998:570, 이용숙 외, 2008: 35-36에서 재인용). 이모형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이용숙, 2008: 35-36).



- 그림 1. Kemmis & McTaggart의 자기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 모형
- 1단계: 문제파악 및 변화 계획
 - 2단계: 계획의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고찰
 - 3단계: 이러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찰
 - 4단계: 수정된 계획-실천과 관찰-반성의 반복

위와 같은 실행연구 사이클에 따라 이 연구는 2차의 순환적인 계획-실천, 관찰-반성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수정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산출하였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과정으로 모형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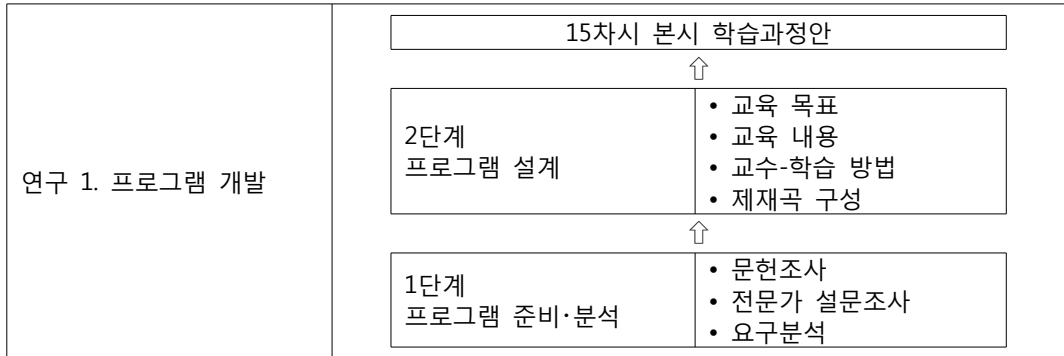


그림 2. 대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모형

나. 프로그램 개발 절차

(1) 연구 1. 프로그램 기획·설계

(가) 1단계 : 프로그램 준비·분석

① 문헌고찰

문헌고찰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먼저, 평생교육의 역할, 성인학습자의 특징, 음악교육철학과 교수법 등을 고찰하여 개발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였다. 또, 전통음악교육 현황, 각종 교육시설의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대금 교육에 관한 문헌 등을 고찰하여 실제로 현재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현재 대금 교육에 쓰이고 있는 연주곡 들을 분석하여 대금연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② 전문가 설문조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광주, 전남지역 대금 전문 교수자들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 교수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술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대금 전문연구자인 연구자의

학교 선후배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소속 대금연구자들, 그리고 연구자의 대금지도 스승의 동문들을 중심으로 대금 전문 교수자들 12인을 섭외하고 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7부가 회수되어 이를 분석을 대상으로 삼았다.

③ 요구조사

요구조사의 방법으로는 첫째, 성인학습자와 강좌운영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대상자는 현재 연구자가 직접 교수하고 있는 가톨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대금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15명의 학습자 중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5명을 선정하여, 면담조사를 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시간과 여건 상 모든 학습자들을 면담할 수 없어서 조건이 되는 학습자들 중 여성과 남성 연령대를 골고루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음악교육 방법과 대금에 관련된 문헌 및 연구 자료를 종합·분석하고 연구자의 수업 경험 및 다른 대금연주자들의 수업 경험에 비추어 설문조사도구를 작성하였으며, 대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개 기관의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인적배경과 과거음악교육경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인적배경으로는 학력, 직업, 소득수준, 성별, 연령을 조사하였으며, 과거 음악교육경험 유무는 음악교육경험의 유무와 교육 종류가 전통음악교육경험의 유무와 교육 종류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대금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습목표, 도달수준, 악보·운지법 등 연주방법, 연주곡 구성 및 순서 이론 포함 여부 등 학습내용 및 진도, 교수자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요구가 실질적인 프로그램 참여 상태를 통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도와 만족도를 포함시켰다.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적배경 변인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로 음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 및 동기, 교육종류 등에 대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Square 검증

을 실시하였다.

(나) 2단계 : 프로그램 설계

① 교육 목표

본 연구에서는 대금 입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각종 문헌 고찰과 요구조사를 토대로 음악교육철학 중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을 채택하여 성인학습자들의 이전 음악체험에 근거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연주에 몰입하여 음악 자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② 교육 내용

음악교육의 경우, 어떤 악기를 어떤 악보를 보면서 어떤 운지법을 활용할 것인지, 음악이론은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 등이 모두 교육 내용으로 포함된다. 프래그머티즘에 근거한 위와 같은 교육목표에 따라 최대한 그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대금 소리만 듣고 소리가 좋아서 대금을 배워 보겠다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대금을 배우면서 흥미를 잃지 않고 기본적인 것을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배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③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의 원리 역시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에 근거하여 최대한 성인학습자들의 음악경험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주의하였다. 특히 그들의 이전 음악교육경험, 혹은 음악경험과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음악교육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음악 자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진도를 빨리 나가기보다는 지속적인 반복을 강조하였다.

④ 제재곡 구성

제재곡 구성은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주하게 되는 곡들을 어떤 곡들로 선정할 것이며 그 선정된 곡들은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학습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또한 제재곡 선정이 확정되면 이 제재곡들을 연습곡에서부터 선정된 민요 등을 오선보와 정간보⁴⁾로 채보하여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활용된 민요의 경우는 준 인간문화재인 서용석에게서 사사받은 녹음자료를 활용하여 성인학습자들의 수준에 맞게 운색하여 채보하였다. 채보할 때 활용한 소프트웨어는 정간보의 경우는 ‘정간보 전문가용 1.0’이었으며, 오선보의 경우는 ‘피날레 2010’이었다.

다. 연구 2: 프로그램 적용

(1) 1단계 : 1차 적용

(가) 프로그램 평가

교수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목표가 실제로 실현되는지를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의 난이도, 교육 자료의 유용성 등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악기에 대한 흥미 및 태도, 연주기법의 향상, 만족도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대하여 학습자들을 관찰하고 연주를 시켜봄으로써 배운 내용의 익힘 정도와 향상점을 평가하였다. 학습자 평가는 교육 참여 동기 및 의지, 학습준비도, 학습태도, 프로그램 선호도 등에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심층인터뷰와 관찰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프로그램 수정

1차 프로그램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계획하여 구성하였다.

(2) 2단계 : 2차 적용

(가) 프로그램 평가

4) 정간보(井間譜) :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간(間)을 질러 놓고, 거기에 율명(律名)을 적어 넣는 악보. 세종대왕이 창안한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流量樂譜)로서 현재 서양의 오선보(五線譜)와 함께 가장 발전한 악보임. 간(間)은 음의 길이, 율명(律名)은 음의 높이를 나타냄. 현재는 한 장단의 박자 수에 따라 4정간·6정간·10정간·12정간·16정간·20정간 등 편리하도록 간을 그어 쓰고 있다.

1차 프로그램 평가 때와 유사하게 이루어졌으며, 수정된 프로그램이 실제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는지 평가해 보기 위해 학습자들의 악기에 대한 흥미 및 태도, 연주기법의 향상,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 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수자들의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학습자들을 관찰하고 연주를 시켜봄으로써 어떤 향상점이 있는지를 수업일지와 관찰로 평가하였다. 학습자 평가는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개선점을 설문지와 함께 개별 인터뷰로 조사하였다.

또한, 최종안 개발을 위해 전문 교수자들의 동료 평가를 서면으로 제시된 프로그램안에 대하여 서술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나) 프로그램 수정

2차 프로그램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계획하여 구성하였다.

(3) 최종 교수-학습과정안 도출

2차 프로그램 평가와 수정 계획에 근거하여 최종 교수-학습과정안을 도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금 입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먼저 평생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음악교육철학과 교수법들을 살펴보고 이것의 의의와 한계를 확인하고, 기존의 교수법들이 대체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존의 대금 입문 프로그램들을 검토함으로써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확인하였다.

제1절 평생교육으로서의 전통음악교육

다른 모든 교육과 마찬가지로 음악교육은 이제까지 대체로 학교교육의 영역 내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교육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성인으로서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 자체를 고양하는,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활동으로 인식되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김중서 외, 2009), 이는 음악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음악교육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으며, 이 시기는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발전한 개방교육이 문화센터나 공립학교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특히, 평생음악교육의 문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미국에서 개최된 탕글우드 심포지엄(Tanglewood Symposium)부터로 볼 수 있다. 이 심포지엄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변화에 직면한 현대 미국 사회에서의 음악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고 규정짓는 것이었으며, 종래의 연주 능력 중심의 교육에서 음악 이해 중심의 교육으로 특정 음악만을 고집하던 자세에서 다양한 음악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⁵⁾

평생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산업화에 의하여 도시화와 핵가족화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세대 간의 갈등, 인간소외 등

5) 탕글우드 심포지엄(1967)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http://en.wikipedia.org/wiki/Tanglewood_Symposium_#The_Tanglewood_Declaration. 2012년 3월 14일 검색하였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음악은 악기를 통하여 독주 또는 합주로 연주되고, 연주된 곡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들려짐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이복선, 2003). 이것은 악기연주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여가 시간이 증대되었으며,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음악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인간은 심미적 경험을 통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는데(Abeles *et al.*, 1990), 이러한 심미적 경험은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본인이 직접 창작하거나 연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술작품은 어떤 특정한 시대·문화·지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의 심미적 경험은 이러한 시대·문화·지역에 대한 정보와 가치를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성경희, 1988). 그러므로 음악으로 인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의 음악교육은 이제까지 학교교육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학교교육이 입시 위주로 왜곡되면서 음악교육 역시 제대로 그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1955년 제1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44호)의 기본방침에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개정 음악교육과정(2007-)에서 활동을 중시, 음악의 생활화 중시, 세계음악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음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권덕원 외, 2008: 132-150).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예체능 과목들은 본래의 교육목적 상실한 채 무시당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의 교육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전통음악교육은 음악교육의 목표인 ‘창조성이 풍부한 인간형성과 심리적인 감상의 세련, 예술적 표현능력배양, 미적 감상능력의 향상,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전통음악의 특성으로 인하여 민족의 전통성과 동질성을 형성시키고 일체감을 유발시키는 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김화선, 2002). 예술 작품은 우리의 삶과 문화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예술작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전통문화의 일부인 전통음악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정체성을 확인

하고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전통이라는 것은 답습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의하여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어 가는 것이므로 평생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혀서 문화적 자긍심과 정서적 일체감을 갖고, 더 나아가 삶을 여가로써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제2절 음악교육 철학과 프래그머티즘

이 절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의 여가를 위한 음악교육철학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통 음악사상인 예악사상의 의의와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프래그머티즘을 검토하였다. 현대음악교육철학에서도 프래그머티즘에 근거하여 음악적 실재나 이상태 자체보다는 음악의 향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대금 입문 프로그램의 목표와 그에 따른 교수-학습방법의 원리 등에 시사 받고자 하였다.

1. 전통음악사상으로서의 예악사상

예악사상은 공자로부터 비롯된 유가(儒家)들이 인류의 도덕 및 정치적 질서의 틀로서의 ‘예(禮)’를 최고의 이상적 가치로 설정하여, 모든 사람이 예를 따르고 받아들여도록 하기위해 성인(聖人)이 예와 더불어 제작한 ‘악(樂)’으로 교화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 왔던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한홍섭, 2000). 구체적으로, 악은 ‘조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예는 ‘질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악은 통합을 추구하며, 예는 변이를 추구한다. 예와 악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상징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질서는 인간사회에 정립된 예와 통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조화는 인간이 만든 악과 통한다. 예악은 곧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와 통하는 것이다(진호, 1981 ; 조남권, 김종수 역, 2000 재인용).

예악론의 교육적 의미는 오늘날 전통음악 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또 실체로 그 역할이 중대해진 경향과 관련하여 예악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첫째, 개인 및 사회적 측면에서 음악은 예나 지금이나 막중한 역할

을 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악사상에서 음악은 개인의 도덕적 수양,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음악의 질과 수준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사사해 준다. 예악사상에서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구별하고, 좋은 음악은 권장하고, 나쁜 음악은 경계된다. 셋째, 예악사상은 전통음악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이경언, 2003). 전통음악 가운데 특별히 예악사상으로부터 입은 영향이 크다.

그러나 예악사상의 원리는 예악 또는 정악의 배경을 설명하는 근거로는 의미가 있지만 전통음악 전체를 포괄하는 원리로서 제약이 있다. 예악사상은 정악만을 전통음악으로 보고 민요와 산조 등 민속음악을 저급한 음악으로 평가절하 함으로써 과거 민중들이 즐겼던 음악의 가치의 의의를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현대 전통음악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악만을 전통음악으로 고집할 경우 전통음악을 대중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민요 등은 정악에 비하여 훨씬 성인 학습자들에게 익숙하고 연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 성인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적인 음악 교육철학이 요구된다.

2.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실용주의)과 음악교육

프래그머티즘은 서양교육철학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다. 이상주의나 실재주의가 모두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서의 ‘이상태’나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질서 등을 상정하는 것과 달리 학습하는 당사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새롭게 경험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도록 촉진하고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즉 경험의 재구성을 위하여 경험의 연속성과 상호작용성 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와 이전 경험 등을 중시한다. 그렇다고 학습자의 흥미와 현재의 수준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작용성’을 강조하는 데에서도 드러나듯이 ‘가시적 목표’ 제시 등 교수자의 방향 제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프래그머티즘에서 교육의 목표는 경험의 재구성, 즉 또 한 번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성장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즉, 흥미에서 시작된 경험에의 몰입을 통한 ‘하나의 경험’을 완성함으로써 그

자체의 가치를 학습자는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철학은 음악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미 현대음악철학자인 리머(B. Reimer, 1938~)는 듀이의 철학에 근거하여 “심미적 음악교육철학의 전제인 절대표현주의 즉, 예술적 경험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느낌의 세계’의 공유에 있다는 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을 주장한다(권덕원 외, 2008: 72). 즉 ‘느낌의 세계’는 듀이의 ‘하나의 경험’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직접적인 음악하기를 통해 가능하다. 미학에서 강조하는 ‘느낌의 세계’가 음악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현대음악교육철학자인 엘리엇(D. J. Elliott, 1948~) 역시 프래그머티즘적 관점에서 중요한 지적을 한다. 그 역시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하기와 음악성의 발달”이라고 보고, “음악하기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음악성이 발달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음악적 실행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음악적 경험을 넓고 풍부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엘리엇은 음악교육의 교육과정이란 “문서화된 계획이 아니라 교사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권덕원 외, 2008: 76-86).

음악교육철학으로서 프래그머티즘은 성인학습자의 흥미유지와 몰입을 통해 전통음악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의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먼저, 예약사상과 달리 성인학습자의 이전 음악경험들을 고급과 저급으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고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경험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하도록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둘째로, 실제 음악하기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음악성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금연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악 자체를 향유하고 전통음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안목 또한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프래그머티즘은 성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연주자와 같은 특정 수준에 이를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여가를 목적으로 한 성인연주자들이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성장하는 것에 진도를 조정하고 연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제3절 음악교수법과 포괄적 음악성

이 절에서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금교육에 적합한 교수법을 확인하고자 기존의 음악교수법들을 간략히 개관하고 그 중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교수법의 원리로서 포괄적 음악성에 초점을 두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음악교수법

이제까지의 주로 소개된 음악교수법은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고든 등 특정 교수법을 개발한 음악교육학자들의 이름을 붙여 명명한 것들이다. 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는 동작과 음악을 연결시켜 ‘인간은 본래 신체적으로 리듬감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면서 음악과 신체표현을 결합하여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면, 오르프(Carl Orff, 1895~1982)는 기초적인 음악, 말, 동작, 놀이 등 정신의 힘을 일깨우고 개발시키는 모든 것을 강조하였고, 음악교육의 근본을 누구나 자기 내면에 지니고 있는,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음악을 하도록 진행되어 전인적 차원의 총체적 경험으로서 음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Orff, 1978; 김영전, 2006: 241-246 재인용). 반면, 고든(Edwin Godon, 1927~)은 좀 더 음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음악을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배우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마음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현경실, 2010: 237-245).

위의 교수법들이 대체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에 초점을 두었다면, 코다이는 좀 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음악교수법을 이론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코다이(Zoltan Kodaly, 1882-1967) 역시 음악교육은 조기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지만, 첫째,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음악교육의 목적이 전문가 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음악교양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믿었다. 그런 까닭에 둘째로,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처럼 음악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악보읽기와 기보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

한다(조흥기, 2004: 54-61).

특히 코다이는 음악적 모국어인 민요로 음악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요는 자기 나라의 말로 노래하기 좋은 억양과 민족의 정서를 나타내는 음악이므로 전통을 보전하고 음악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감각을 계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코다이는 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쓰고, 느끼는 방법을 마치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듯 자연스럽게 터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악보읽기와 기보능력 기르는 것을 누구나 다 음악성의 신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임미경 외, 2010: 73-74).

위의 교수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의의는 달크로즈와 코다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악연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우선, 이들은 모두 기악연주는 모두 목소리를 통한 리듬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오르프는 기악지도를 중요시하여 다양한 타악기 즉 오르프 악기를 사용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사의 음악적 역량이 높아 반주 없이 노래 부를 때 절대음정을 소리 낼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요구되며, 오르프의 다양한 악기 사용은 교사의 연주기술이 필요하다. 음악교육의 방법이 좋아도 가르치는 교사의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면 한계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음악교육에서 전문 기악연주자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둘째로, 이들은 대체로 전통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코다이는 민요를 음악적 모국어로 보고 이로부터 음악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유아부터 성인학습자에 이르기까지 민요나 전통음악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초·중등학교 교과시간에 국악강사 풀(pool)제를 실시하여 전문가가 투입 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음악의 소외현상은 여전하다. 성인들에게도 음악교육이 필요하고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체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수법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한계가 있다. 성인학습자들은 아동과 달리 이미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하여 입문되어 있다는 점에서 음악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이 9세 정도에 음악성이 어느 정도 결

정된다고 보면 새롭게 음악성을 개발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성인들은 아동들보다 음악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깨닫고 그 중요성을 의식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학습에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음악교수법에서 논의되는 ‘포괄적 음악성’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의 음악교육까지 포괄하는 음악 교육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 포괄적 음악성

‘포괄적 음악성(Comprehensive Musicianship : CM)’은 음악의 어느 한 영역에만 치우친 제한된 수준의 음악성이 아닌 폭 넓고 다양한 음악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며 지적으로 이해 분석할 수 있고 음을 가지고 창조 할 수 있으며 느끼는 바를 표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음악적 능력을 뜻한다(성경희, 1988: 46). 이 포괄적 음악성은 한 두 사람의 학자에 의해 개발된 교수법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하고 발전된 개념이다. 또한 수업에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가 있는 교수법이라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태도’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더 넓은 의미의 음악을 보고자 하는 노력,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임미경 외, 2010: 307).

포괄적 음악성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음악 개념에 관한 것과 음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음악의 개념은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모호하게 이해될 뿐이지만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머셀은 “모든 학령 음악교육의 정책과 실천은 음악적 패턴들을 점진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되어야한다 (Willoughby, 1970: 35, 임미경 외, 2010: 326 재인용)고 주장하였다. 또한, 악곡 범위 확장은 학습하는 음악의 범위가 확대될 것, 즉 모든 시대와 장소의 음악을 음악학습에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Willoughby, 1971, 임미경 외, 2010: 334 재인용). 폭 넓은 음악유산, 전 세계의 민속, 예술 및 대중음악, 고대의 구전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모두 포함하는 음악을 학습 할 것을 주장하였다.

포괄적 음악성 교수이론에 근거하여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금교육 프로그램

램에 있어서도 전통음악이론과 악기연주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제재곡 선택에 있어서도 정악뿐만 아니라 동요, 대중가요, 민요, 산조 등 다양한 분야의 곡들을 창의적으로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 이론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음악교수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음악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교사중심의 주입식 음악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개발이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자 중심의 경험과 학습자 중심의 단계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폭 넓은 연구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활성화를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겠다.

제4절 성인학습자의 특성

학습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자의 성별이나 연령 또는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성인위주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이므로 성인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음악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하여 모든 성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를 경험한다(기영화와 공역, 2009: 289). 성인기에 들어서면 신체적인 기능은 전반적으로 감퇴현상을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 대략 45세, 여자의 경우 대략 35세 이후부터 점차 감퇴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김진영, 1999). 따라서 성인은 감퇴현상을 보이기 전이며 사회생활 초기 단계인 성인 초기(20-35세), 신체적인 퇴화의 시작 및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 중기(35-60세), 은퇴 후 노년기로 생각할 수 있는 성인 후기(60세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에서 다루는 성인학습자들은 성인 초기가 아니라 감퇴현상이 나타나는 성인 중·후기를 대상으로 한다. 성인은 신체

적인 퇴화문제와 더불어서 연령별로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이에 따른 개개인의 사회적 문제에 따른 피로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기나 청소년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Knowles (1980)는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아동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간은 성숙해 가면서 자아주도적인 성격으로 바뀌며, 성인 학습자는 생활에서 얻어진 경험이 많으므로, 이 경험이 학습의 풍부한 경험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학습을 관련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둘째, 성인 학습자는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보다 자연발생적 학습준비도가 더 많이 형성된다. 셋째, 사람들은 성숙해감에 따라 시간 관점이 변화한다. 즉 학습한 지식을 미래에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즉각적인 적용으로 바뀐다. 따라서 지향이 문제 중심으로 바뀐다. 또한 집중력이 강하고 지속력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규칙적인 연습과 필요한 학습 준비를 할 수 있다.(기영화외 공역, 2009: 68)

2. 음악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특성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에 적극 참여 한다. 성인의 음악활동의 이유를 첫째, 개인적 동기(자기표현, 오락 또는 기분 전환, 자기계발, 여가선용), 둘째, 음악적 동기(음악 애호,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한 연주, 음악에 대한 보다 나은 학습), 셋째, 사회적 동기(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친구와 함께하기, 소속감을 느끼기 위함)로 나타냈다(Coffman, 2002 & Hinke, 1988. 고선미 역 2011: 227 재인용)

아동과 청소년학습자들과 다른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음악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의 특징을 ‘비전공 성인 피아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따른 수업 관찰 연구’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김현영, 2009).

첫째, 인지적인 면으로 그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축적한 정보와 경험, 생각들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둘째, 근육 운동에 관한 기술면에서 성인학습자의 경우 이미 근육 운동 기술에 상당한 발달이 이루어진 상태로 이런 기술 중 상당수는 피아노 연주에 응용할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비해 체격과 힘, 신장면에서도 악기 연주에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성인은 이미 특정 방법과 조건하에서 신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굳어진 신체 동작의 패턴을 바꾸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교사들이 성인 학습자는 때때로 성공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 필요한 손가락의 기민함이 떨어진다고 느끼며 학습자 자신 또한 이 문제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셋째, 성인이 되어 피아노를 시작한 많은 학습자에게 피아노 연주는 일생의 꿈이자 목표였던 경우가 많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대단한 만족감과 기쁨의 원천이 되며 미학적 성취와 지적 자극을 주는 취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또, 대부분의 성인 피아노 학습자가 부모의 의지나 권유로 인해 학습을 시작하는 아동이나 학사일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배워야만 하는 전공생들과 달리 자신의 자유 의지가 피아노 학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를 재정리하여 보면 음악교육을 받는 성인은 비교적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이 있으며, 아무래도 아동이나 청년기 때 보다는 개인이 원하여서 음악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려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음악적 면에서도 이론적인 이해가 빠르고 교사와 대화를 통해서로의 기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마음처럼 손가락이 빨리 움직여 주지 않아 쉽게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 연주자 프로그램과 취미를 위한 성인학습자 프로그램은 질적으로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악기를 연주함에 있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음악을 많이 듣고 연주회 같은 곳에서 많이 감상하고 많이 연습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피아노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흥미를 쉽게 잃지는 않지만, 대금의 경우는 소리가 바로 나지 않고, 무거운 대금을 들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흥미를 빨리 잃어버릴 수 있다. 성인학습자는 개인의 생활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편안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던 곡을 이용하여 흥미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5절 대금 프로그램 선행연구

대금교육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초등·중·고 연령대별 프로그램의 특징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어떤 의의와 한계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앞서서 문헌고찰 등을 통하여 대금 교육 현황 및 대금 교육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대금 교육은 전문 연주자가 되기 위한 대학이나 예술고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특기 적성교육으로서 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기타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금 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도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연구로서 성인을 위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배우는 성인학습자이므로 여기에서는 전문 연주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금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대금 지도에 관한 연구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금지도(김성철, 2011; 이경희, 2010; 정재훈, 2012; 송선명, 199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금지도의 연구(이은미, 2008; 김윤조, 2008; 김지용, 2002; 김셋별, 2008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금지도의 연구(최윤복, 2002), 예술계고등학교의 대금 실기 지도 방안연구(이소진, 2011) 등이 있다.

초등학교 대금지도의 선행 연구에서는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 후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악기사용은 3학년부터 수업 진행시에는 산조대금을 사용 하였고 4학년부터의 고학년은 정악대금을 사용하였으며, 송선명(1998)은 초등학생을 위한 대금의 효율적인 학습방안 연구: 악기 개량을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악기 개량을 산조대금보다 더 작은 본청이 E플랫 대금을 사용하면 쉽게 연주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손가락이 작아 정악대금보다는 산조대금을 그리고 더 작은 개량대금을 추천하였다. 현재는 교과과정이 바뀌어서 정악대금과 운지법, 율명 등이 같아 소금을 사용한다.

중학교의 대금교육은 특별활동 수업시간에 플라스틱 정악대금으로 수업 진행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신체적 조건 때문에 초등학교와는 달리 작은 개량대금을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타나 있지 않다. 고등학교에서의 특기적성은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중학생들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고등학교에서도 대금교육이 활성화 되려면 학교장 및 지도자가 관심을 보여 학교에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특기를 계발·신장시킬 수 있도록 대금교육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통음악에 능력이 있는 교사 및 강사를 확보하고, 시청각 자료와 국악기 등 기자재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전통음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는 대금의 단계적 지도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신체적 조건 때문에 작은 개량대금을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 있고 정악대금 보다는 산조대금으로 프로그램을 구안 하였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산조대금 이나 정악대금을 사용하였는데 산조 악보나 정악 악보가 정간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악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금의 본청 음고도 다른 데 지공의 울명을 같이 보게 되어 있다. 정악대금의 울명과 산조 대금의 울명을 음고에 맞추어 통일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대금 교육에 쓰이는 교재를 조사한 결과, 김기수, 이상용의 「대금정악」(2001), 조성래의 「알기 쉬운 대금교본」(1999)과 이생강의 「이생강 민속악 대금교본」(2003)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김기수, 이상용 「대금정악」은 대금정악에 전반적인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교재는 전공자들이 많이 보는 편이고, 취미로 배우는 학습자들은 수준이 향상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조성래 「알기 쉬운 대금교본」 정악대금에 처음 입문 할 때 대금의 자세, 손잡는 방법, 소리내기, 악보 보는 방법, 선법, 청 달기 등 초보자들이 처음 배울 때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연습곡 및 동요, 예술가곡, 포크송 및 가요, 산조대금의 5관청 사용의 민요와 시김새를 간단히 하는 전통음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곡들이 수록 되어 있다. 이생강의 「이생강 민속악 대금교본」(2003)은 저자가 직접 무대에서 독주, 합주, 무용반주, 효과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연주

법을 알려주는 책으로 초보자 수준과 보다 나은 연주법을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남도민요 5관 본청 주법, 민요 운지법(1)과 민요 운지법(2)로 구분하여 다양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전문 연주자로 가는 대금을 배우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정악대금으로 소리 내기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정악대금이 커서 손에 맞지 않으므로 개량대금, 산조대금, 소금 등을 먼저 배우게 하고 고학년이 되면 교재를 보면서 각 장르에 맞는 연습곡을 가르치고 정악 연주가 되면 산조대금을 병행해서 가르친다. 중학생이 예술 고등학교나 국악고 진학 또는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을 원하면 소리 내기, 운지법, 율명, 정간보를 보기 위한 연습곡 등을 하게 되며 바로 정악과 산조를 병행해서 가르친다. 학교진학을 위한 대금은 정악과 산조 둘 다 원하기 때문이다. 중학생 정도 되면 정악대금 배우기에 신체적 문제는 어렵지 않다. 진학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녁 늦게까지 연습할 수 있고 부모님의 관심과 배려로 집에서도 연습이 가능하다. 때문에 성인학습자들에 비해서 많은 연습 시간과 주변의 관심으로 인하여 소리도 더 빨리 내고 음악의 이해도 빠르다.

성인학습자나 전문연주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금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처음 대금을 접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겠다. 물론 성인학습자가 대금이 좋아서 단계가 올라가면 전문 연주자 되기 위하여 대학을 진학하기도 하지만 성인학습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문연주자들은 처음부터 소리만 나면 정악이나, 산조를 시작하기 때문에 쉬운 악보를 보며 연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취미로 하는 초보 성인학습자들이 배우는 곡들과 병행해서 연주 가능하니 처음부터 전통음악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행논문을 토대로 대금 프로그램을 고찰한 결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대금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추세이고 그에 따른 지도안 구안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금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성인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은 부족하다. 학교 교육과는 달리 성인학습자들은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실천된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대상자들이 어떠한 목적과 심리적 동기에 의해서 대금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의 대금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요구

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인학습자들의 참여 동기에 따라 학습내용 및 방법 목표달성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 연구1: 대금 입문 프로그램 기획·설계

제1절 프로그램 기획 단계

프로그램 준비·분석단계는 교육 요구를 프로그램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교육요구와 필요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에 따라 정립하여 가는 과정이다.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명료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지 여부와 프로그램 개발요구를 확인하는 것이다.

1. 프로그램 개발 요구 확인

프로그램 개발요구 확인단계는 개발 프로그램의 주제, 목적 등을 명료화하는 과정이다. 이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준비, 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은주, 2005: 73). 프로그램 개발 요구에 대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면 <표 1>와 같다.

<표 1> 프로그램 개발 요구 구성요소

구분	내용
프로그램 주제	초보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금교육
프로그램 목적	초보 성인학습자들의 대금연주에 대한 흥미·몰입·유지를 통한 향유
유사프로그램 유무	성인학습자 대상 프로그램은 소수 있으나 체계화된 입문 프로그램은 없음
프로그램의 필요성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거쳐 평생교육으로서의 대금교육 대중화를 위한 성인학습자 프로그램이 요구됨

2. 전문가 설문조사

성인학습자 대상 대금 입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금연주자이자 전문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평상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대금연주 교육을 할 때 전공자와 일반 성인학습자를 가르칠 때의 차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삼았다. 인식조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전문교수자들이 취미로 배우는 성인학습자들과 전공자들을 가르칠 때 어떤 차이점을 느꼈는지,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반대로 좋은 점은 무엇이었는지, 방법상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가. 취미로 배우는 성인학습자들과 전공자들의 차이

전공교수자들은 대체로 성인학습자들에게는 대금의 재미, 흥미 위주의 수업 진행으로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아는 곡들과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을 해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 위주로 가르치며, 재미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 가르치는 곡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귀에 쉽게 익힌 민요 아리랑, 도라지나 한오백년을 중심으로 가르치지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점은 둘 다 같다고 하였다.

한편, 전공자에게는 재미나 흥미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며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부여, 쉬운 음악보다는 전공음악을 위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시김새⁶⁾나 농음 및 기교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친다고 하였다.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법에서부터 가르치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연주와 호흡을 익히기 위해 정악 연주를 먼저 학습하게 한다고 했다.

6) 시김새 : 어떤 음이 소리의 변화를 동반하여 한 음의 변화된 모양새를 일컫는 말. 시김새의 종류에는 크게 흔드는 소리(떠는 소리: 요성), 흘러내리는 소리(꺾는 소리 포함: 퇴성), 밀어 올리는 소리(추성), 구르는 소리(전성) 등이 있다.

나. 취미로 배우는 성인학습자들과 전공자를 가르칠 때의 어려움

성인학습자들은 첫째는 처음에 소리 내고 자연스럽게 연주가 가능하기까지 고비들이 많아서 그만 두는 경향이 많아 그럴 때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둘째, 연습 시간이 자유롭지 않아 연습량이 부족하여 학습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습 복습을 하지 않을 때 다음 과정으로 넘어 가지 못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가르쳐야 할 때 진도가 더딘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금을 배우는 목적이 즐겁게 연주를 하기 위함인데 대금의 경우 소리 내기가 쉽지 않아 도중에 포기하고 재미없어 하시는 학습자들이 많고 소리내기를 하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과정까지 만드는 게 가장 힘든 것 같다고 하였다. 몇 달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다섯째, 성인학습자는 기초를 다지지 않고 상위의 음악만을 하려고 하기에 가르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음악의 세부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르치는데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반면, 전공자들은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진도를 늦게 나가고 깊이 가게 되므로 어렵게 생각한다. 음악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 빠른 능력이 있지만 음악의 세부적인 표현 진도가 느리고 잘 알지 못하는 곡을 연주하기 때문에 지루해 하고 힘들어 하기도 한다고 했다. 느낌을 살리는 것은 학습자의 몫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과 반복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 취미로 배우는 성인학습자들과 전공자들의 장점

취미로 배우는 성인학습자들의 경우 첫째, 어느 시기까지 곡을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어 매 시간에 해야 할 분량을 다 하지 못해도 편하게 생각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다고 했다. 둘째, 대금 자체를 좋아해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 가르치는 데 열정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공자들에 비해 수업진행에 있어서 재미있고, 즐겁게 수업할 수 있고, 실력이 향상되어 즐거워하면 가르치는 교수자도 뿌듯하다고 했다.

반면, 전공자들은 목표가 있기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습득이 빠르고 가르칠 때에 서로 소통하며 조금 더 음악을 발전시키는데 한걸음 먼저 나아 갈 수 있어 좋다고 했다.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연주를 잘 할 때가 좋고, 전공 성적을 잘 받아오며, 대학을 잘 가고, 관련 직장에 들어가면 좋다고 했다.

전문교수자들은 어느 편이건 간에, 취미로 배우시는 학습자들이나 전공생들 모두는 처음은 어렵지만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연주가 잘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즐겁고 뿌듯하다고 하였다.

라. 취미로 배우는 성인학습자들과 전공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의 차이

먼저, 성인학습자들은 연습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것 같고 흥미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기법이나 부는 방법 등 처음 배우기는 전공자와 똑같이 배우나 익숙한 곡 중심으로 가르치고 가요, 민요 등과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곡들로 택하고 오랜 시간 연주하고 난 후에 전공자의 곡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여가활용에 맞게 가르치고 빠른 시간 내에 연주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손가락의 유연성과 소리내기 등 간단한 기교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전공자에게는 엄격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잘 모르는 곡이지만 중요한 곡을 중심으로 가르치며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반복 연습하도록 한다고 했다. 더 깊고 자세히 가르치고 입시위주의 정악, 산조, 신곡 위주로 수업한다.

3.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요구 분석

대금 입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대금 입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요구조사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은 현재 대금을 배우고 있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70부를 문화 복지 시설인 빛고을 국악 전수관, 사단법인 내 벗소리 민족예술단, 그리고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세계 백화점 문화센터, 개인레슨, 사설학원, 여민락 다음 카페에 배포하여 64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이 91.4%이었다.

가. 연구 참여자의 배경

요구조사에 응한 성인의 성별은 응답자 중 남자는 50명(78.1%), 여자는 14명(21.9%)으로 남자가 현저하게 많았다. 연령대는 20대가 2명(3.1%), 30대가 8명(12.5%), 40대가(34.4%), 50대 이상이 31명(48.4%)으로 연령대가 젊은 층보다 4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학력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대졸(전문대졸 포함) 이상이었으며,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비교적 많았다(표 2).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al Economic status)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전통음악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저소득·저학력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 차원의 전통음악교육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표 2> 응답자의 배경변인 분석 (N=64)

배경변인	내용	응답자(명)	비율
성별	남자	50	78.1
	여자	14	21.9
연령	20대	2	3.1
	30대	8	12.5
	40대	22	34.4
	50대 이상	31	48.4
	무응답	1	1.6
	고졸이하	7	10.9
학력	대졸(또는 전문대졸)	36	56.3
	대학원 이상	20	31.3
	무응답	1	1.6
월 소득	100만원 미만	9	14.1
	100만원-200만원 미만	7	10.9
	200만원-300만원 미만	10	15.6
	300만 원 이상	33	51.6
	무응답	5	7.8

직업	가정주부	7	10.9
	경영-관리	1	1.6
	사무직	8	12.5
	상업	3	4.7
	전문직	21	32.8
	노무직	1	1.6
	학생	1	1.6
	기술직	4	6.3
	종교인	2	3.1
	기타	16	25.0

나. 연구 참여자의 전통음악교육 정도

(1) 음악교육의 유무와 분야

첫 번째 문항인 “학교 졸업 후 음악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학교 졸업 이후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37명(57.8%)로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높게 응답하였다. 졸업 후 음악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 복지시설과 개인레슨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았다.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받은 교육내용을 분석해보면 악기연주(92.3%)에 치우친 음악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의 음악교육경험이 이후 지속적인 음악교육 참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2) 전통음악교육 경험의 유무와 분야

학교 재학 중에 전통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12명(18.8%)에 불과하였으며 전체의 81.2%는 학교 재학 중 전통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설문대상자의 연령대가 40대 이상이 다수임을 고려한다면, 예전에 학교 교육에서 전통음악교육의 비중은 미약하였다고 생각된다. 학교

재학 중 전통음악교육을 받은 시기는 초등학교 3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6명, 대학교 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배운 내용을 분석해보면, 기악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표 3).

<표 3> 학교 재학 중 전통음악 교육을 받은 분야(복수 응답자 포함)

구분	응답개수(개)	비율(%)
가창	2	12.5
기악	12	75.0
감상	2	12.5
합계	16	100.0

학교 졸업 이후 전통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43명(67.2%)로 재학시절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학교졸업 후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자발적인 전통음악에 대한 배움의 욕구가 많아졌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응답자의 32%는 전통음악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졸업 후 전통음악교육 장소”라는 질문에 대한 분포 및 차 검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4와 같으며, 비교적 다양한 분야를 고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졸업 후 전통음악 교육 장소(복수 응답자 포함)

구분	성		나이			
	남	여	20	30	40	50이상
교육경험 무	32.08	21.43	50.00	42.86	32.00	21.21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 복지시설	30.19	57.14	50.00	14.29	24.00	45.45
백화점 문화센터 등 기업체산하 시설	7.55	0.00	0.0	14.29	4.00	6.06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	3.77	0.00	0.0	14.29	4.00	6.06
사설학원	22.64	14.29	0.0	14.29	28.00	18.18
개인레슨	3.77	7.14	0.0	0.0	8.00	3.03
합계(N)	53	14	2	7	25	33
χ^2	4.9025		9.2104			
df	5		15			
p	0.4279		0.8663			

고졸이하	학력		월 소득					계(N)
	대졸 (전문대 포함)	대학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이상	무응답	
12.50	38.89	21.74	11.11	0.00	25.00	41.18	66.67	28.36
62.50	27.78	39.13	66.67	85.71	16.67	23.53	0.00	34.33
12.50	5.56	4.35	11.11	0.00	0.00	5.88	33.33	5.97
0.00	0.00	8.70	0.00	0.00	0.00	5.88	0.00	5.97
12.50	25.00	17.39	11.11	14.29	50.00	17.65	0.00	20.90
0.00	2.78	8.70	0.0	0.00	8.33	2.88	0.00	4.48
8	36	23	9	7	12	34	3	67
	11.3180				31.7323*			
	10				20			
	0.3333				0.0459			

* p<0.05

졸업 후 전통음악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 복지 사설학원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았다. 월 소득 수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와 100~200만원 소득을 갖는 사람들은 주로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 복지시설을 이용하였으며, 200~300만원 소득을 갖는 사람들은 주로 사설학원, 300만원 이상 소득을 갖는 사람들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 복지 사설학원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월 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1.73235$, $p<.05$). 그러나 성별 ($\chi^2=4.9025$, $p>.05$)과 나이별($\chi^2=9.2104$, $p>.05$)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졸업 후 전통음악 교육 내용(복수 응답자 포함)

구분	응답개수(개)	비율(%)
민요	5	8.6
사물놀이	7	12.1
가야금	2	3.4
단소	11	19.0
판소리	4	6.9
기타 악기	29	50.0
합계	58	100.0

위와 같은 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의 배경을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전통음악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전혀 접해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성인이 되어서 참여한 경우는 거의 악기연주 경험에 한정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월수입 300만원 이상이며 40대 이상의 남성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으로 안정된 계층인 경우가 많았다.

4. 교육요구 및 필요 분석

성인학습자들의 대금교육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 중 그들의 요구를 크게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제재곡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성인학습자들의 학습동기에 따라 교육요구가 다를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교육요구를 학습동기마다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표본 수가 워낙 작아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는 없었다. 특히 학습동기가 전문연주자가 되는 것이라는 학습자 비율이 낮아서 학습동기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보였다.

가. 교육 내용

악기 연주 프로그램에서 교육 내용은 악기, 이론, 악보 읽는 법, 시김새 등의 연주기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대금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인학습자들이 대금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인지, 대금 악기와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어느 수준, 어느 정도로 포함시킬지, 악보는 어떤 악보를 선정해야 할지, 그리고 연주할 때 기법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대금을 배우는 목적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 구성을 위하여 성인학습자들이 대금을 배우는 목적이 학력이나 나이, 월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대금을 배우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여가 선용이나 취미와 특기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응답하였다(65.7%). 이것은 나이와 학력 및 월 소득 수준에 따라 대금을 배우는 목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구체적으로 대졸이상과 월 100만원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은 전문연주가가 아니라 여가선용이나 취미를 살리기 위해 대금을 배우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별($\chi^2=4.0210$, $p>.05$)에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대금을 배우는 목적(복수 응답자 포함)

구분	성		나이			
	남	여	20	30	40	50이상
전문연주가 되기 위해서	1.79	7.14	50.00	0.00	0.00	2.78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62.50	78.57	50.00	75.00	68.00	61.11
연주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12.50	0.00	0.00	0.00	12.00	13.89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0.00	0.00	0.00	0.00	0.00	0.00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23.21	14.29	0.00	25.00	20.00	22.22
합계(N)	57	14	2	8	25	36
χ^2	4.0210		18.9203			
df	3		9			
p	0.2592		0.0259*			

고졸 이하	학력			월 소득				계(N)
	대졸 (전문대 포함)	대학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이상	무응답	
28.57	0.00	0.00	28.57	0.00	0.00	0.00	0.00	2.86
14.29	68.42	73.08	14.29	70.27	78.26	33.33	0.00	64.79
14.29	7.89	15.38	14.29	8.11	13.04	33.33	0.00	11.2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2.86	23.68	11.54	42.86	21.62	8.70	33.33	100.00	21.13
7	38	26	7	37	23	3	1	71
	25.0395				31.2286			
	6				12			
	0.0003***				0.0018**			

*p<.05, ** p<.01, ***p<0.001

대금 지도를 받을 때 지도수준은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 악보를 보고 배울 때 어떤 악보 보기를 하면 좋겠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43.8%가 고급 정도의 수준까지 지도해 주기를 바라였지만, 응답자의 지도 수준의 요구도가 초급부터 전공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서 지도 수준 요구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대금 지도의 수준 요구도

구분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 ^{a)}				
	1	2	3	4	5
초급 : 쉬운 악보를 보고 연주	100.00	20.00	25.00	0.00	13.33
중급 : 소곡, 어려운 운지, 스케일을 연주	0.00	24.44	25.00	0.00	13.33
고급 : 약간 어려운 연주곡들을 연주	0.00	44.44	12.50	0.00	60.00
전공자 수준까지	0.00	11.11	37.5	0.00	13.33
합계(N)	2	45	8	0	15
χ^2			14.7000		
df			9		
p			0.0995		

a) 대금을 배우는 목적

1. 전문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2.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3. 연주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4.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5.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2) 음악이론공부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음악 이론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해도 좋겠는가를 알아보았다.

음악이론공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6.9%,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8.1%이었다(표 8).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다수의 응답자가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악보를 바르게 보기, 일정수준 이상의 연주, 응용력을 기르기 위하여 등으로 대답하였다. 병행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이유로는 이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연주할 수 있다는 것과 연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별로 상관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공이 아니면 적성과 관심이나 취향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서 음악이론공부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금교육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음악이론이 포함되

도록 하여야 하며, 수강자의 관심정도에 따라 이론의 깊이의 정도를 결정해야 된다.

<표 8> 음악이론공부의 병행 선호도

구분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 ^{a)}				
	1	2	3	4	5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50.00	20.45	50.00	0.00	40.00
병행되어야 한다	0.00	54.55	37.50	0.00	40.00
병행되지 않아도 된다.	0.00	4.55	0.00	0.00	0.00
별로 상관없다	0.00	13.64	0.00	0.00	13.33
잘 모르겠다.	50.00	6.82	12.50	0.00	6.67
합계(N)	2	44	8	0	15
χ^2			11.7981		
df			12		
p			0.4620		

a) 대금을 배우는 목적

1. 전문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2.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3. 연주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4.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5.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3) 악보 보기

악보를 보고 가르칠 때 어떤 악보 보기를 하면 좋겠는가, 어떤 악보를 먼저 보고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같이 보는 법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첫째, 악보의 경우, 전통적인 악보인 정간보가 오선보 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표 9). 기타 의견으로는 오선보와 정간보가 모두 괜찮다는 것과 정악대금을 배울 때는 오선보, 산조대금을 배울 때는 정간보가 더 좋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서 악보 선호도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정간보: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간(間)을 질러 넣고 거기에 율명(律名)을 적어 넣는 악보. 세종대왕이 창안(創案)한 동양최초의 유량악보(有量樂譜)로서 현재 서양의 오선보(五線譜)와 함께 가장 발달한 형태의 악보이다.

<표 9> 악보의 선호도

구분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a)				
	1	2	3	4	5
오선보	100.00	25.53	25.00	0.00	6.67
정간보	0.00	63.83	75.00	0.00	86.67
기타 및 무응답	0.00	10.64	0.00	0.00	6.67
합계(N)	2	47	8	0	15
χ^2			10.3343		
df			6		
p			0.1113		

a) 대금을 배우는 목적

1. 전문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2.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3. 연주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4.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5.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악보 활용 순서는 정간보만 활용하자는 응답자가 3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처음에는 오선보를 활용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정간보를 활용하자는 의견(10.9%)과 처음에는 오선보와 정간보를 함께 활용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정간보만 활용하자는 의견(29.7%)도 많이 나타났다(표 10). 기타의 견으로는 정간보를 활용한 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오선보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정간보와 오선보를 같이 활용하자는 의견, 배우고 싶은 음악의 악보에 따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서 악보 활용 순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악보 활용 순서에 대한 선호도로 미루어보건대 음악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오선보와 정간보의 적절한 배합이 요구된다.

<표 10> 악보 활용 순서 선호도

구분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 ^{a)}				
	1	2	3	4	5
처음에는 오선보를 활용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정간보를 활용한다.	0.00	11.11	12.50	0.00	7.14
처음에는 오선보와 정간보를 함께 활용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정간보만 활용한다	0.00	31.11	25.00	0.00	35.71
오선보만 활용한다.	100.00	4.44	0.00	0.00	0.00
정간보만 활용한다	0.00	42.22	50.00	0.00	50.00
기타	0.00	11.11	12.50	0.00	7.14
합계(N)	2	45	8	0	14
χ^2			34.7806		
df			12		
p			0.0005***		

a) 대금을 배우는 목적

1. 전문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2.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3. 연주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4.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5.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4) 운지법

운지법에 있어서 게이름, 율명, 손가락 번호 등으로 가르칠 때 어느 방법이 쉽고 빨리 알아질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운지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율명⁸⁾으로 익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또한,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서 운지법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운지법을 율명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게이름이나 손가락 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고려된다.

8) 12율명: 한국·중국에서 사용하는 12개의 음명(音名). 12율명은 황중(黃鐘),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중(夾鐘),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중(林鐘),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중(應鐘)임. 12율명을 실제로 쓸 때는 그 첫 자만 취하여 쓴다.

<표 11> 운지법 선호도(복수 응답포함)

구분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a)				
	1	2	3	4	5
계이름	50.00	13.64	25.00	0.00	12.50
울명	0.00	68.18	62.50	0.00	50.00
손가락번호	50.00	15.91	12.50	0.00	37.50
기타	0.00	2.27	0.00	0.00	0.00
합계(N)	2	44	8	0	16
χ^2			8.2626		
df			9		
p			0.5079		

a) 대금을 배우는 목적

1. 전문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2.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3. 연주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4.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5.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5) 시김새 활용도

장식음, 부호, 악상기호는 어느 단계에서부터 가르치면 어렵지 않게 느끼면서 배울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장식음⁹⁾, 부호¹⁰⁾ 및 악상기호 등의 연주기교에 대해 배우는 시기에 대한 선호도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쉬운 시김새 부터 한 곡에 한 두 개 정도씩 배우는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의견은 소리가 나면 바로 연습하는 것이었다 (표 12). 또한,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서 연주 기교를 배우는 시기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주 기교에 대해서 배우는 시기는 소리가 나면서부터 시김새 등을 한 두 개씩 배우기 시작하여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프로

9) 장식음: 어느 한 음정 옆에다가 여러 가지 부호를 붙여서 그 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앞 꾸밈 역할을 한다.

10) 부호: 대금의 복잡한 가락을 악보 위에 전부 기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호를 집어넣어 다른 음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좋게 생각된다.

<표 12> 시김새: 장식음, 부호, 악상기호 등을 배우는 시기에 대한 선호도

구분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a)				
	1	2	3	4	5
소리가 나면 바로 연습곡부터	50.00	29.55	57.14	0.00	40.00
쉬운 시김새부터 한 곡에 한 두 개 정도씩	0.00	61.36	28.57	0.00	53.33
정악을 배울 때부터	50.00	6.82	14.29	0.00	6.67
기타	0.00	2.27	0.00	0.00	0.00
합계(N)	2	44	7	0	15
χ^2			8.8216		
df			9		
p			0.4539		

a) 대금을 배우는 목적

1. 전문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2.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3. 연주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4.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5.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나. 교수-학습 방법

교수자가 박자를 배우는 방법이나 진도에서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먼저, 박자를 익히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먼저 익히면 쉽게 박자를 알아갈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박자 익히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악보를 보고 구음으로 부르며 익힌다는 것이 가장 높았으며(35.9%), 무릎장단을 치면서 구음을 부르며 익힌다는 것과 강사의 구음을 따라 연주하며 익힌다는 것이 각각 29.7%씩을 차지하여 3가지 방법이 고루 선호됨을 알 수 있다(표 13). 또한,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서 박자 익히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강자의 성향에 맞게 3가지 방법을 절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표 13> 박자 익히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

구분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a)				
	1	2	3	4	5
악보를 보고 구음으로 부르며 익힌다.	0.00	44.44	12.50	0.00	13.33
무릎장단을 치면서 구음으로 부르며 익힌다.	50.00	26.67	37.50	0.00	46.67
강사의 구음을 따라 연주하며 익힌다.	50.00	26.67	50.00	0.00	33.33
기타	0.00	2.22	0.00	0.00	6.67
합계(N)	2	45	8	0	15
χ^2			9.4225		
df			9		
p			0.3992		

a) 대금을 배우는 목적

1. 전문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2.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3. 연주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4.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5.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서 진도의 선호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에 있어서 진도가 조금 늦게 나가더라도 세밀하게 지도한다(34.4%). 악보를 읽어 간다는 생각으로 진도를 빨리 나가되 반복을 여러 번 한다(29.7%). 진도를 빨리 나가면서 반복하며 간단한 기교도 배운다(18.8%)의 순이었으며(표 14), 기타 의견으로 처음에는 세밀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약간 빨리 하면서 반복한다,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진도 조정이 필요, 수강자의 특성에 따라 진도가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은 학습자들은 아래와 같이 신체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대금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대금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손이 굳어 더디기 십상인데 그러므로 천천히 차근차근 배움의 완성도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남, 50대).”

따라서 느리게 하면서 세밀하게 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빠르게 하면서 반복하는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되겠다.

<표 14> 진도의 선호도

구분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a)				
	1	2	3	4	5
진도를 조금 늦게 나가더라도 세밀하게 지도한다.	0.00	30.95	87.50	0.00	57.14
악보를 읽어 간다는 생각으로 진도를 빨리 나가되 반복을 여러 번 한다.	100.00	35.71	12.50	0.00	21.43
진도를 빨리 나가면서 반복하며 간단한 기교도 배운다.	0.00	28.57	0.00	0.00	0.00
기타	0.00	4.76	0.00	0.00	21.43
합계(N)	1	42	8	0	14
χ^2			20.4949		
df			9		
p			0.0151*		

a) 대금을 배우는 목적

1. 전문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2.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3. 연주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4.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5.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다. 제재곡 구성

대금을 배우는데 있어서 대금연주곡들을 어느 정도까지 배우기를 선호하는지와 어떤 순서로 배우면 좋겠는가를 알아보았다.

배우는데 있어서 제일 선호하는 대금 연주곡 분야는 산조¹¹⁾(35.9%)였으며, 동요가 23.4%, 민요가 14.1%를 차지하였다(표 15). 또한 연주를 배울 때 순서는 동요, 민요, 대중가요, 가곡, 영화음악 등에서 시작한 후 소리내기가 익숙해지면 전통음악

11) 산조: 원래 허튼 가락이라는 말. 그러나 거문고 산조, 가야금 산조하면 시나위 계통의 곡이름으로 통용 되고 있다.

을 배운다(56.3%)가 악보 보기와 소리내기가 가능하면 바로 전통음악을 배운다(40.6%). 보다 더 선호되었다(표 16).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서 대금 연주곡의 선호도 차이와 연주곡을 배우는 순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배우는데 있어서 제일 선호하는 대금 연주곡

구분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a)				
	1	2	3	4	5
민요	50.00	13.04	12.50	0.00	27.27
산조	0.00	34.78	12.50	0.00	29.17
가요	0.00	10.87	25.00	0.00	0.00
동요	50.00	23.91	12.50	0.00	13.33
국악가요	0.00	2.17	12.50	0.00	0.00
정악	0.00	8.70	25.00	0.00	50.00
무응답	0.00	6.52	0.00	0.00	14.29
합계(N)	2	46	8	0	15
χ^2			16.9547		
df			18		
p			0.5262		

a) 대금을 배우는 목적

1. 전문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2.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3. 연주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4.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5.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표 16> 연주곡을 배우는 순서 선호도

구분	대금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a)				
	1	2	3	4	5
동요, 민요, 대중가요, 가곡, 영화음악 등에서 시작한 후 소리내기가 익숙해지면 전통음악을 배운다.	50.00	63.04	37.50	0.00	26.67
악보 보기와 소리내기가 가능하면 바로 전통음악을 배운다.	50.00	32.61	62.50	0.00	73.37
무응답	0.00	4.35	0.00	0.00	0.00
합계(N)	2	46	8	0	15
χ^2			9.1284		
df			6		
p			0.1665		

a) 대금을 배우는 목적

1. 전문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2.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3. 연주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4.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5.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설문 조사 결과 배우고 싶은 곡의 종류의 순서와 선호도가 다양하므로 보다 많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안배가 중요하리라 본다.

아래 서술형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성인학습자들은 어린 전공자학생들과 다른 자신의 악기연주 학습자로서의 조건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주자로서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성인학습자들의 신체적 조건과 목적, 상황에 적합하게 지도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함으로써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좋아서 배우기 시작해놓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데, 중도에 흥미를 잃어버려 포기를 합니다. 대금을 배우는 사람 각자가 배우는 이유가 있을 터이니 각자의 흥미와 호기심

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중도 포기 없이 꾸준히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남, 40대).”

“전공자들이 아마추어의 관점에서 취미자들의 전통음악교육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교육에 여러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기 수준의 연주를 강요하거나, 악기 강매, 진도 조정, 등등, 전공을 할 사람과 취미자들과의 조화로운 교육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남, 50대).”

이러한 요구조사의 결과는 앞서 이론적 배경으로 확인한 이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인 프래그머티즘의 원리와도 부합한다. 학습자들의 흥미에 근거하여 그들이 악기 연주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전 음악경험의 수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음악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5. 교육요구의 프로그램 목표로의 전환

교육요구의 프로그램 목표로의 전환단계는 모든 교육요구를 프로그램에 반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확인된 교육요구의 필요성을 이 프로그램 개발의 목표에 따라 성인학습자들의 교육요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성인학습자들의 흥미에 기초하여 그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그들의 교육경험의 지속적 재구성이라는 프래그머티즘의 원리에 따라 되도록 성인학습자들의 서로 다른 요구들이 적절히 안배되도록 하되, 교수-학습과정에서 개별적 차이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요구조사의 결과가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되기보다는 경향성은 있으나 여러 문항에 골고루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문항에 대한 반응이 과반수이상인 경우는 대금교육 목표와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한,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그렇지 않고 반응이 산포된 경우는 대금교육 목표와의 일관성 속에서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목표로 전환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대금교육의 전문화보다는 대중화를 지향하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악기는 플라스틱 정악대금으로 선정하였다. 악보의 경우도 처음 대금교육을 접하는 성인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이미 음악교육을 통

해 경험한 오선보와 정간보를 동시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운지법은 오선보와 정간보를 함께 활용하기 때문에 오선보의 계이름과 정간보의 울명을 함께 사용하고 손가락 번호도 활용하기로 하였다. 시김새 활용은 쉬운 시김새부터 조금씩 더 늘려가는 형태로하기로 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 이었고 그대로 결정하였다. 박자의 경우도 세 문항에 거의 골고루 산포되어 있어서 교수자가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진도에 있어서는 문항에 대한 반응이 거의 산포되어 그 두 반응을 모두 수업 전체에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진도를 나가지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지도를 하여 천천히, 그리고 세밀히 지도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제재곡 구성과 관련해서는 성인학습자들이 동요, 민요 등 다양한 연주곡 구성에 대한 반응이 과반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였지만 정악대금의 경우 15차시 시간에 수용할 수 있는 제재곡이 몇 곡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웠으므로 그 중 민요로 선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프래그머티즘에 기반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흥미를 유지하면서 학습에 몰입하고 대금연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목표를 구체적인 교육 목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제2절 프로그램 설계

이 절에서는 문헌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그리고 성인학습자 대상 요구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금 입문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다. 프로그램 설계는 일반적인 구성을 따라 교육목표 설정, 교육내용 선정, 교수-학습 방법 선정, 제재곡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1. 교육목표 설정

이 대금 입문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은 프래그머티즘 음악교육 철학에 근거하여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프래그머티즘 음악교육 철학은 이상주의나 실재주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음악 자체의 이상태나 실재등, 학습자 밖에 존재하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이전 음악경험과의 연속선상에서 학습자가 흥미를 유지한 채 기존 음악 경험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몰입하여 음악을 향유하면서 음악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프래그머티즘 음악교육철학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인문주의 평생교육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인문주의 평생교육 철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도덕적, 정신적 존재로 간주하고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합리적·지적 측면, 도덕적 측면, 정신적·종교적 측면, 심미적 측면 등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김진화, 2001). 또, 인본주의 평생교육에서는 성인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김동위, 1996). 즉, 인문주의 평생교육 철학의 경우 기능주의적 평생교육과는 달리 사회적 효용성보다는 성인학습자 자신의 인간성의 고양과 관련이 있지만 인본주의의 관점에서처럼 성인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2. 교육내용 선정

교육내용의 선정은 문헌연구, 전문가 설문조사, 그리고 학습자 요구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일정 시간 내에 다룰 수 있는 학습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습 집단에 맞게 학습내용의 종류와 분량을 선택해야 한다. 학습자의 다른 악기의 선행 경험과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하도록 내용 선정에 융통성을 지녀야한다. 요구분석에서 도출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전통음악 교육에 관련된 실질적 교수학습 영역으로 연주곡 및 이론, 연주 기법의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악기의 경우는 현재 대금 연주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에게 심층인 터뷰를 한 결과, 대금의 소리가 좋아 막상 대금을 배우고 싶어도 비싼 악기 가격, 레슨비, 비싸게 악기를 구입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우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평생교육원의 단체수업 진행과, 쌍골죽의 비싼 대나무 대금 보다는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 소리내기가 쉬운 플라스틱 대금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로 구성하였다. 플라스틱 대금은 가격도 저렴하고 소리가 쉽게 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수업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는 적합하다. 대금의 특성상 한 학기 (15주) 동안에 많은 진도는 나갈 수 없지만 수업 시간을 충실하게 이용하면 간단한 곡들은 연주할 수 있다.

둘째, 음악이론공부는 취미로 하는 성인학습자에게도 간단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이론공부의 병행은 필요하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대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악보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민요의 경우 장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연주곡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악보는 정간보만 활용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초보자 단계를 넘어서면 성인 학습자들은 교육요구가 높아서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오선보를 동시에 같이 수업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연주기법으로 소리내기와 운지법은 먼저 이미 익숙한 계이름을 울명과 함께 제시하되, 계이름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울명, 계이름, 손가락 번호를 모두 제시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와 같은 시김새는, 소리내기와 운지법이 가능하면 연습곡부터 쉬운 시김새 등을 한 두 개씩 배우기 시작하여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3. 교수-학습방법

프래그머티즘이라는 음악교육철학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에 따라 교육내용을 선정하였으며 ‘포괄적 음악성’의 교수원리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포괄적 음악성’은 어느 한 영역에만 치우친 제한된 수준의 음악성이

아닌 폭넓은 음악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음악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다만, 구체적인 교수법이라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의 방법이기도 한 프래그머티즘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박자를 익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3가지 방법을 학습자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악보를 보고 구음으로 부르며 익힌다는 것, 무릎장단을 치면서 구음을 부르며 익힌다는 것과 강사의 구음을 따라 연주하며 익히는 3가지 방법을 모두 선정하여 성인학습자들의 성향에 맞게 3가지 방법을 절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다시 말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개별적 성향이나 수준에 따라 박자 가르치는 방법을 혼용하고자 하였다.

가르치고 배우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대금이라는 악기는 국악기의 현악기에 비해 악기 소리가 크고 멀리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 특성 때문에 도시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연습할 장소와 저녁 늦은 시간에는 연습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또한,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다 보니 빨리 받아 드리는 사람과 여러 번 연습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더디게 진도가 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진도를 빠르게 나가지 않고 처음 몇 주는 다 같이 소리를 내며 단체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개개인의 차이가 나타나니 2시간의 수업을 조별로 나누어 진행하기도 하고 뒤쳐진 학습자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수업 진행을 하여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금에 몰입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하였다.

4. 제재곡 구성

15주 동안에 대금의 가치와, 전통음악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연습곡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습곡을 다양하게 하지 않았다. 연습곡을 선정할 기준은 소리내기와 악보보기가 쉬운 곡을 선정하고, 장식음과, 부호 등도 간단한 것을 사용한 경우를 선택하였다. 곡 유형에는 자주 듣고 불렀던 민요 중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순으로 선정하였다.

아리랑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곡으로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연주되고 있고, 우리민족의 삶과 함께 해온 곡이기 때문에 먼저 선정하였고, 도라지는 선율이 평취음이 주로 나와 초보 성인학습자들이 쉽게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대금을 연주하려면 필요한 혀치기 연습이 나오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밀양아리랑은 경상도 민요이고 선율이 역취음을 연습 할 수 있고, 짧은박의 혀치기 연습이 필요하므로 선정하였고 진도아리랑은 떠는 음, 꺾는음, 평으로 내는 음 등 널 남도민요의 맛을 낼 수 있어 흥미롭게 대금을 배울 수 있어 선정하였다.

곡 순서 역시 앞서의 음악경험이 뒤에 연주곡의 중요한 이전 경험이 되는 방식으로 연속성을 가지되, 조금씩 어려운 수준이 포함되는 곡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아리랑은 대중성뿐만 아니라 대금 불기가 평이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곡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라지는 중간음으로서 평취음은 대금에서 소리내기가 쉽지만 혀치기라는 단계가 새롭게 제시되므로 그 다음 곡으로 적합하며, 밀양아리랑은 평취음 외에 역취음이 새로 제시되며 혀치기도 다양한 박자로 연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도아리랑은 남도민요의 특징인 다양한 소리내기가 포함되어 앞서의 다양한 연주곡을 연습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로 포함되었다.

제3절 15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약안

앞서 정리한 프로그램 구성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수업지도안을 15차시 안으로 작성하였다.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학기개념에 따라 15차시로 두 시간씩 이루어지게 되며, 백화점은 보통 분기별로 3개월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12차시로 1시간씩 운영된다. 국악전수관의 경우는 분기별로 매주 2회 두 시간씩 운영되어 24회에 걸쳐서 운영된다. 이 차시안은 대금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으로 구성되어 2시간 15차시 안으로 작성되었다. 1시간씩 12차시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경우 이 수업 안을 2분기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며 국악전수관의 경우는 동요나 민요 등 제재곡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수강생들의 주의력 집중을 위한 도입단계, 본격적인 수업내용인 전개, 정리,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15차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아래 제시한 수업지도안 약안에는 교육내용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으며, 좀 더 상세한 이론적 내용과 악보 등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1. 개관

대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대금의 유래, 종류, 구조 및 명칭, 연주자세, 호흡법, 입술의 모양과 위치, 소리 내보기 등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2. 학습 목표

- 대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 연주자세, 호흡법, 입술의 모양과 위치, 소리 내보기 등에 대하여 이해한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이 수업의 목적은 성인 학습자들이 앞으로 대금을 연주하기에 앞서 대금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인 개관을 갖고 대금의 맥락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각각의 내용을 각 차시에 주제별로 자세히 다루게 되므로 본 차시에서는 전체적인 대금에 대한 악기 설명과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민요 등을 들려주면서 대금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대금의 유래, 종류, 구조 및 명칭, 연주자세, 호흡법, 입술의 모양과 위치, 소리 내보기 등 기초적인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지도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대금에 대한 이해		차시	1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대금 유래, 구조 및 명칭, 연주자세, 호흡법, 소리 내보기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대금의 구조와 명칭, 연주 방법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 각 종류별 대금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학습 자료	교 사	종류별 악기 준비,		
	학습자	개인적으로 악기가 있으면 준비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를 소개하며 인사한다. • 출석을 확인한다. • 학습자들 개별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며 대금을 배우러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 • 앞으로 15차시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구조와 연주자세 및 소리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 대금¹²⁾이란 무엇인가? <div data-bbox="330 697 1034 1155" style="text-align: center;"> <p>정악 대금</p> <p>산조 대금</p> <p>플라스틱 정악대금</p> <p>플라스틱 산조대금</p> </div> <p>정악대금은 길이가 약80센티미터에 내경이 2센티미터가 넘는 굵고 긴 가로저이다.</p> <p>첫 마디에 취구(吹口)가 있고 다음 마디에 청공(淸孔)이 있어 가부(葭葦)라고 하는 갈대 속 청(精)을 붙여 진동시킴으로서 맑은소리를 더욱 청청하게 울려 내게 하며 그 아래로 있는 여섯 지공(六指孔)을 왼손 검지, 장지, 무명지로는 마디를 구부려 세워 손끝으로 一, 二, 三공, 오른손 검지, 장지, 무명지로는 펴서 四, 五, 六공을 각각 율에 따라 여닫아 소리를 낸다.</p> <p>여섯 음공 아래로 칠성공(七星孔)이라는 다섯 개의 불용공이 있었으나 그 수에는 제약이 없고 다만 음정과 체제 미장의 조화작용을 할뿐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 자세 익히기 <p>전통음악은 일반적으로 방석이나 돛자리위에 앉아서 연주를 한다. 먼저 자연스럽게 앉아서 허리를 똑바로 편 다음, 머리는 약45도 정도로 좌로 돌리고 고개를 약간 숙인다. 시선은 전방 약15도 아래로 본 다음, 악기를 가볍게 쥐고 수평으로 든다. 연습을 하다 보면 팔에 힘이 빠져 악기가 쳐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수평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p>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율명과 오선보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별 대금 등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며 연주곡을 본 연구자가 직접 연주하여 들려준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정악대금 준비 해오기 • 수업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p> <p>전통음악과 대금의 관심 정도.</p>	20분

12) 대금(大箏) : 신라 삼죽의 하나. 젓대라고도 함. 삼죽은 대금(大箏), 중금(中箏), 소금(小箏)을 가리키며, 대금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임. 황죽, 또는 쌍골죽(雙骨竹)으로 만드는 데, 살이 두껍고 단단하여 맑고 여무진 소리가 나는 쌍골죽을 더욱 즐겨 씀. 원래는 취공(吹孔) 1, 청공(淸孔) 1, 지공(指孔) 6, 칠성공(七星孔) 5가 있었으나, 현재는 칠성공의 제도는 일정치 않음. 저취(低吹)·평취(平吹)·역취(力吹)에 의하여 2옥타브 반에 이르는 넓은 음역을 가졌고, 부드러운 저취, 청아한 평취, 갈대청의 진동을 곁들여 장쾌한 역취 등 그 음빛깔의 변화가 다양하여 독주 악기로 애용됨.

학습제재	중(泚), 고(澁), 태(汰) 3음 소리내기
------	--------------------------

1. 개관

대금의 음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소리내는 법, 복식호흡법, 평취음, 운지법 등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2. 학습 목표

- 대금의 음역에 대해서 안다.
- 대금의 평취음 중에서 중(泚) = A^b, 고(澁) = G, 태(汰) = F, 3음을 알고 소리를 낸다.
- 복식호흡을 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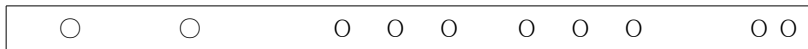
먼저 복식호흡 법과 대금 음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취음을 배우는 이유와 운지법을 설명하고 소리 내면서 율명과 계이름이 외워지도록 한다.

학습제재	중(泚), 고(澁), 태(汰) 3음 소리내기	차시	2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대금의 음역, 평취음, 복식호흡, 운지법	평취 3음 연습과 복식호흡을 하면서 소리 내는 연습을 한다.	
학습주제	호흡법을 익히면서 평취음 중(泚), 고(澁), 태(汰) 3음 소리내기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음역에 대해서 안다. • 대금의 평취음 중에서 중(泚) = A^b, 고(澁) = G, 태(汰) = F, 3음을 알고 소리를 낸다. • 복식호흡을 안다. 		
학습자료	교 사 학 습 자	개별적으로 대금 운지법 자료, 수연장지곡CD 플라스틱 정악대금 준비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전시간의 대금에 대한 설명을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 대금의 음역을 안다.
 - 저취 : 임(林), 남(備), 무(無), 황(黃), 태(太), 고(故), 중(仲) = 아랫단(저취)
 - 평취 : 임(林), 남(南), 무(無), 황(潢), 태(汰), 고(澍), 중(洵) = 중간단(평취)
 - 역취 : 임(淋), 남(漙), 무(漙), 황(潢), 태(汰) = 높은단(역취)
 - 인(イ)이 음 앞에 붙으면 옥타브 아래음이고 수(洵)가 앞에 붙으면 한 옥타브 위음이 되고 (洵)이 두 개가 붙으면 두 옥타브 위음이 된다.
- 지공과 율명 익히기
 - 12율명을 오선보와 함께 안다.
 - 정악 대금의 음정과 운지법을 안다.
 - 대금 주요7음 오선보 및 율명을 안다.

<정악 대금의 음정과 운지법>

○ ... 열기
 「 원 손 」 「 오른손 」 ● ... 닫기



전개

	취 구	청 공	1공	2공	3공	4공	5공	6공	칠성공
			1	2	3	4	5	6	
.....	林(임)	●	●	●	●	●	●	
저	備(남)	●	●	●	●	●	○	
	無(무)	●	●	●	○	○	●	
	黃(황)	●	●	●	○	○	●	
	太(태)	●	●	○	○	○	●	
취	姑(고)	●	○	○	○	○	●	
.....	仲(중)	○	●	●	○	○	●	
평	林(임)	○	●	●	●	●	●	
	南(남)	●	●	●	●	●	○	
	無(무)	●	●	●	●	○	●	
	潢(황)	●	●	●	○	○	●	
	汰(태)	●	●	○	○	○	●	
취	澍(고)	●	○	○	○	○	●	
.....	洵(중)	○	○	○	○	○	●	
역	淋(임)	●	●	●	○	○	●	
	漙(남)	●	●	○	○	○	●	
	漙(무)	●	○	○	○	○	●	
취	潢(황)	○	○	○	●	●	●	
.....	汰(태)	●	●	○	●	●	●	

6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 3음 연습과 복식호흡을 하면서 소리내는 연습을 한다. - 호흡은 복식호흡을 하도록 하는데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숨을 들이 쉴 때 코와 입으로 재 빨리 숨을 들이 쉰 다음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천천히 가늘게 내 뱉으면서 소리를 내쉬어 연습하도록 하고 몇 번이고 반복 연습을 하여 익숙해지도록 연습한다. - 다 열고 6공 막고 중(泚·A^b) 소리를 내어 잘 나면 지공 1,6공을 막는 연습을 한다 (고(泚)= G). 이때 호흡은 숨이 다 할 때까지 한음 만 길게 불도록 해야 한다. 소리가 잘 나지 않을 시에는 지공을 다 열고 소리 내고, 다시 지공 막고 소리내기를 수 없이 반복 연습을 하도록 한다. 1공 막고 소리가 잘 나면 2,6공 막는 연습을 한다. (태(汰)= F). 초보자들은 소리내기 연습을 많이 하면 현기증이 일어나므로 쉬어가면서 소리내기를 한다. ●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악대금으로 연주하는 ‘수연장지곡’을 들려주며 곡 해설도 함께 한다. - 평취 3음을 들려주고 정확한 음 높이를 익히게 하면서 소리 내기를 하며 율명 와 계이름이 함께 외워지게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 ●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 수업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p> <hr/> <p>대금 소리 내보기, 바른 자세</p>	

학습제재

황(潢)= E^b까지 소리내기

1. 개관

본 차시에는 평취음(중간단) 황(潢)= E^b의 운지법 즉 왼손 세 개까지 막는 것을 익히면서 소리 내기를 한다.

2. 학습 목표


- 평취음을 익힌다.
- 손가락 늘이기를 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평취음 중(泚), 고(澍), 태(汰)부터 소리내기를 하여 황(潢)음까지 연습을 하는데 있어서 소리가 잘 나지 않으면 중(泚), 고(澍), 태(汰), 황(潢) 지공까지 막지 말고, 연습하는 중간에 다시 지공을 열어 위음 소리를 내고 나서 다시 아래음 지공을 막아 소리내기를 지도해야 한다. 성인 학습자들은 손가락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2,3,6공 즉 황(潢) 음의 지공까지 막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황(潢) 음의 지공이 잘 막아 지지가 않아서 그 다음 아래음의 무(無) 소리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먼저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하여 각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넣고 손가락 늘이기 연습을 하고 나서 소리내기 연습을 시작하도록 지도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황(潢)까지 소리내기	차시	3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평취음, 운지법, 손가락 늘이기	평취 4음 연습,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황(潢)의 운지법 및 소리내기		
학습 목표	• 평취음을 익힌다. • 손가락 늘이기를 안다.		

학습 자료	교 사	악보, 연주모습 사진, 대금독주곡 CD 준비	시간 배분
	학습자	악기, 악보파일 준비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평취음 중(泚), 고(澁), 태(汰) 3음 소리내기를 확인한다.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의 평취음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의 평취음, 중(泚) = A^b, 고(澁) = G, 태(汰) = F, 황(潢) = E^b, 무(無) = D^b, 남(南) = C, 임(林) = B^b 음을 안다. 대금의 평취음 중에서 중(泚) = A^b, 고(澁) = G, 태(汰) = F, 황(潢) = E^b 4음을 알고 소리를 낸다. 황(潢) = E^b 음은 왼손 무명지까지 막는데 (1,2,3,6공) 황(潢)이라 칭한다. 평취 4음 연습과 손가락 늘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의 평취음 중에서 중(泚) = A^b, 고(澁) = G, 태(汰) = F, 황(潢) = E^b 4음 소리 반복 연습을 하여 소리가 나게 하면서 율명과 계이름을 함께 익히게 한다. <p><평취의 오선보와 율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潢) = E^b 음은 지공3번까지 막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반복하여 연습하게 한다.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취 4음을 들려주고 정확한 음 높이를 익히게 하면서 소리를 내며 율명과 계이름이 함께 외워지게 한다. 다소 지루하고 힘이 드니 ‘대금 산조’중에서 진양조를 들려주며 곡 해설도 함께 해준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수업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평가내용		
	황중 소리 낼 때 입김 넣는 모양, 호흡법, 자세		

학습재제	평취음
------	-----

1. 개관

본 차시에는 평취음(중간단) 중(洵) = A^b, 고(澍) = G, 태(汰) = f, 황(潢) = E^b, 무(無) = D^b, 남(南) = C, 임(林) = D^b 전체를 익힌다.

2. 학습 목표

- 평취음 전체를 안다.
- 바른 자세와 운지법을 익힌다.

3. 학습상의 유의점

대금에서 처음 소리내기에는 평취음이 쉽게 소리가 나므로 초보성인학습자들에게 먼저 평취음 부터 소리내기를 지도하면 좋다. 대금은 같은 지공에서 옥타브 위음과 아래음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입김의 세기에 따라 음이 다르게 난다. 그러므로 평취 소리 낼 때에는 입김의 정도를 적당히 불어 넣어야 하는데 초보자는 쉽지가 않아 많은 반복 연습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재제	평취음	차시	4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평취음, 운지법, 바른 자세	평취음 전체를 연습,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평취음 무(無) = D ^b , 남(南) = C, 임(林) = B ^b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음 전체를 안다. • 바른 자세와 운지법을 익힌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연주곡CD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대금의 평취음 소리내기를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평취음을 익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평취음 중(泫) = A^b, 고(澁) = G, 태(汰) = F, 황(潢) = E^b, 무(無) = D^b, 남(南) = C, 임(林) = B^b 울명과 계이름을 익힌다. - 무(無) = D^b 음은 왼손식지, 장지, 무명지, 오른손 식지, 무명지(1,2,3,4,6공), 남(南) = C 음 지공은 (1,2,3,4,5공), 임(林) = B^b 음은 (2,3,4,5,6공)까지 막고 1공은 연다. 음이 아래로 내려 갈수록 입김을 부드럽고 깊게 불면서 조심스럽게 소리를 낸다. - 평취음 소리가 고르게 나게 한다. ● 바른 자세와 운지법을 익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오른손 엄지와 왼손 엄지가 대금 밑쪽을 든다. - 힘을 뺀 상태에서 손가락 모양이 동그랗게 되어야 한다. - 손가락은 지공위에 약 1cm 정도 떨어지게 운지 하면 대금의소리가 몸으로 전달 되어 공명이 된다. - 지공을 막지 않은 손가락들은 자연스럽게 대금에 붙여둔다 - 손가락 늘이기를 반복하여 연습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른다. (초보자 일 때는 자주 손가락 늘이기 필요) ●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음을 들려주고 정확한 음 높이를 익히게 하면서 소리를 내며 울명과 계이름을 함께 외워지게 한다. - 다소 지루하고 힘이 드니 유초신지곡 ‘상령산’ 풀이를 대금정악 인간문화재 20호 조창훈선생님(개인적으로 본연구자 스승님)의 연주를 CD로 들려준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 ●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 수업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음은 잘 낼 수 있는가? ● 바른 자세, 운지법, 호흡법 	

학습 제재	저취음
-------	-----

1. 개관

본 차시에는 저취음 중(仲) = A^b, 고(姑) = G, 태(太) = F, 황(黃) = E^b, 무(無) = D^b, 남(南) = C, 임(林) = B^b 율명과 계이름을 익힌다.

2. 학습 목표

- 대금의 저취음을 익힌다.
- 평취음과 저취음의 입김의 세기를 구별한다.

3. 학습상의 유의점

평취음 소리를 내고 나면 입김 넣는 방법이나 입술 모양 등이 익숙해져 있으므로 저취음 소리내기에는 입김을 부드럽게 불어 넣어 낮은 소리를 내 보도록 하여야 한다. 입김의 세기에 따라 평취음과 저취음의 구별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강사가 소리를 구별하여 들려주고 연습하도록 하는데 초보자들은 음의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도록 지도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저취음	차시	5-6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저취음, 평취음과 저취음과의 차이	저취음을 연습,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저취음(낮은단) 소리내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저취음을 익힌다. • 평취음과 저취음의 입김의 세기를 구별한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CD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대금의 평취음 소리내기를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저취음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인변(1)이 올명 앞에 붙으면 옥타브 아래 음이라는 것을 안다. - 대금의 저취음 중(仲) = A^b, 고(姑) = G, 태(太) = F, 황(黃) = E^b, 무(無) = D^b, 남(楠) = C, 임(林) = B^b 올명과 게이름을 안다. <p><저취의 오선보, 올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취음 소리가 고르게 나게 한다. • 저취음의 운지법을 익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취음 중(仲) = A^b은 손가락의(2,3,6)공을 막고, 나머지는 평취음과 운지법이 같으며 제일 낮은음 임(林)은 (1,2,3,4,5,6)공을 다 막고 소리를 낸다. •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음과 저취음을 들려주고 정확한 음 높이를 익히게 하면서 소리를 내며 올명과 게이름이 함께 외워지게 한다. - 저취음이 주로 소리 나는 현악영산회상곡 중에서 ‘상령산’을 들려주며 이해를 높인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 •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 수업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p> <hr/> <p>평취음, 저취음 구별</p>	

학습제재	역취음
------	-----

1. 개관

본 차시에는 역취음 임(淋) = B^b, 남(瀟) = C, 무(濩) = D^b, 황(潢) = E^b, 태(湑) = F를 율명과 계이름을 익힌다.

2. 학습 목표


- 삼수(彳)변이 율명 앞에 붙으면 옥타브 위음이라는 것을 안다.
- 역취음 전체를 익힌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입술 끝에 힘을 주어 입술이 팽팽하게 만들어 입김을 입술 가운데로 모아서 세게 불면 쉽게 소리가 난다. 초보자들은 평취음, 저취음, 역취음 구별이 쉽지 않아 소리를 내고도 그 음정이 맞는지 조차도 모른다. 입김의 세기를 잘 조절하면서 소리내기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음정의 높낮이도 알게 되고 호흡도 길어진다. 힘들다고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주의해서 지도해야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습관이 초보성인 학습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역취음	차시	7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역취음, 운지법, 율명	역취음 연습,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역취음(높은단) 소리내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수(彳)변이 율명 앞에 2개 붙으면 옥타브 위음이라는 것을 안다. • 역취음 전체를 익힌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정악연주곡 CD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대금의 평취음, 저취음 소리내기를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역취음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취음은 음에 삼수(̇)변이 두 개가 붙어서 옥타브 위음을 나타낸다. - 임(淋) = B^b, 남(漑) = C, 무(濩) = D^b, 황(潢) = E^b, 태(汰) = F를 익힌다. <p><역취의 오선보, 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취음의 소리가 나게 한다. • 역취음의 운지법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취음은 운지법이 달라지므로 소리를 내면서 운지법 외우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 淋(임)은 (1,2,3,6)공을 막고, 漑(남)은 (1,2,6)공을, 濩(무)는 (1,6)공을, 潢(황)은 (4,5,6)공, 汰(태)는 (1,2,4,5,6)공을 막고 평취음 보다 입술 끝에 힘을 주고 입술을 팽팽하게 하여 더 세게 입김을 불어 넣어 소리를 낸다. •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음과 저취음, 역취음을 들려주고 정확한 음 높이를 익히게 하면서 소리를 내며 울명과 게이름이 함께 외워지게 한다. - CD에서 역취음이 주로 사용 되어진 관악 영상회상 중에서 ‘상령산’을 들려준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 •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 수업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평가내용	
	역취음, 입김을 모아서 세게 내는 방법	

학습제재	정간보 읽기
------	--------

1. 개관

본 차시에는 정간보에 대한 이해와 정간보와 오선보의 차이점에 대하여 배운다.

2. 학습 목표

- 정간보는 무엇인가를 안다.
- 정간보 읽는 방법을 안다.
- 정간보의 기보 방법을 안다.
- 정간보와 오선보의 차이점을 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정간보 안에서 장식음과 부호들의 활용과 쓰임새에 대해서 이해하고 직접 대금으로 연주하게 하여 그 맛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정간보 읽기	차시	8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정간보, 오선보	정간보와 오선보 읽고 연주하기,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정간보 보는 법과 연습곡1~2번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는 무엇인가를 안다. • 정간보 읽는 방법을 안다. • 정간보의 기보 방법을 안다. • 정간보와 오선보의 차이점을 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연습곡 악보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전 시간에 연습했던 대금의 평취음, 저취음, 역취음 소리내기를 확인한다.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간보란 무엇인가를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란 우물정(井)자 모양인데 여러 개의 음명을 적어 넣어 음정의 높고 낮음과 박자를 표시한 악보로 한 칸[一井間]을 한 박으로 쳐서 음의 시가(時價)를 나타내는 세종대왕이 창안하신 우리나라 고유의 악보이다. •악보 읽는 방법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 간다. 그리고 맨 오른쪽 줄에서 왼쪽으로 읽어간다 (옛날 신문, 고서 등과 읽는 방법이 같다). 정간 안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p style="text-align: center;">정간보 읽는 방법</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④</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⑤</td> <td style="text-align: center;">⑥</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①②③④⑤⑥의 번호 순으로 읽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보 방법: 2분식 기보법, 3분식 기보법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는 1정간 1박이 기본이다. 그리고 1정간을 1/2, 1/3, 1/4, 1/6, 1/9, 1/12박의 시가¹³⁾로 나뉘게 된다. 크게, 이분식 기보법과 삼분식 기보법으로 나뉜다. 이분식 기보법은 2박자 계열이고 삼분식 기보법은 3박자 계열이다. - 한 정간에 한음이 있는 경우 온전한 한음이고 한 정간에 두음이 있는 경우 반박을 나뉘게진다. - 정간보의 세로 한 줄을 1 행(行), 또는 1 각(刻), 혹은 1 장단(長短)이라 부른다. 또 한 각에서 큰 구분을 하는 경우(굵은 줄로 나눈 경우)에는 대강(大綱)¹⁴⁾이라 부른다. 	①	②	③	④	⑤	⑥	60분
①	②							
③	④							
⑤	⑥							

13) 음표 또는 쉼표로 나타내는 길이

14) 정간보(井間譜) :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간(間)을 질러 놓고, 거기에 율명(律名)을 적어 넣는 악보. 세종대왕이 창안 한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流量樂譜)로서 현재 서양의 오선보(五線譜)와 함께 가장 발전한 악보임. 간(間)은 음의 길이, 율명(律名)은 음의 높이를 나타냄. 현재는 한 장단의 박자 수에 따라 4정간·6정간·10정간·12정간·16정간·20정간 등 편리하도록 간을 그어 쓰고 있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한 정간 안에 세로로 줄이 몇 칸이냐에 따라 나누는 박이 다르고 가로로 음이 복수로 있는 경우 나눈 박에서 다시 박을 나눈다. 한 정간을 4분음표나 점 4분음표냐에 따라 서양식으로 박자를 나누는 것이 달라지는데 흔히, 이분식은 4분음표 삼분식은 점4분음표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 표기가 있는 경우는 전에 있는 박을 연장한다는 의미이고 삼각형(△)이 있는 경우는 쉼표를 의미한다. 그리고 쇠가를 변하게 하기 위하여 덧길이, 반길이 부호가 있다. 덧()길이는 음을 1/2 늘이고 반(·) 길이는 음을 1/2로 줄인다. ●연습곡을 통해서 정간보를 이해한다. ●정간보와 오선보 연습곡을 동시에 제시해서 연주 할 수 있게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보를 보면서 강사가 연습곡을 들려주고 수업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평가	평가내용	20분
	정간보, 오선보 보기	

1. 개관

본 차시에는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 등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실제로 연주에 적용한다.

2. 학습 목표

-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안다.
- 정간보 읽는 방법을 안다.
-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는 어떻게 연주되어야 손가락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를 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대금의 특징을 설명하며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제시하고 시김새 들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전통음악의 모든 대금곡에는 장식음 와 부호등 시김새를 사용하는데 그 연주곡을 들려주면서 이해하게 하며 어려움을 극복 하도록 지도한다. 이번차시의 장식음과 부호는 초보성인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천천히 설명하며 반복 연습을 하면 손가락 운지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연습곡 3~4번,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	차시	9-10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장식음, 부호, 악상기호	부호를 익히고 나서 연주하기,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 익히고 연습곡 3~4번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안다. • 정간보 읽는 방법을 안다. •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는 어떻게 연주되어야 손가락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를 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연습곡 악보, DVD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 •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한다. • 전 시간에 연습 했던 대금의 연습곡 소리내기를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다. 대금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손놀림이 아주 편리해지는데 이런 경우 대금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잡한 가락들을 한정된 정간보 위에 전부 기보(記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단한 부호와 장식음으로 대신하여 표기한다. 이러한 장식음과 부호는 오래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 되는 것이니 애써 외우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에서 한음 아래 음, 두음 아래 음 또는 한음 위 음, 두음 위음이란 대금의 기본 5음인 중. 임. 남. 황. 태의 순서로 어느 음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음의 위 음과 아래 음을 말한다. 그리고 분음이란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가 붙은 바로 그 음을 말한다. 장식음이란 어느 한 음정 옆에다 여러 가지 기호 등을 붙여서 그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알 꾸밈 역할을 한다. 부호란 장식음과 달리 음정옆에 붙지 않고 정간안에 위치하고 있어 제 쇿가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음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음의 위와 아래 음을 말한다. • 구음으로 악보를 읽으며 장식음, 부호들을 익히고 난 뒤 악기로 연주해 본다. 처음에는 한문 율명 옆에 한글로 율명을 적는다. (연필로 적는다. 잘 되면 지울 수 있도록) • 주요 장르 감상 전통음악을 관악기들로 연주하는 ‘수제천’을 보여주며 그 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음들 보게 하며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 악상기호를 정확히 들려준다. • 연습곡 반복해서 익히기 차시 예고. 		20분
평가	평가내용		
	장식음, 부호		

학습제재	아리랑
------	-----

1. 개관

본 차시에는 정간보와 오선보 보는 법을 재확인하고, 아리랑의 선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실제로 연주에 적용한다.

2. 학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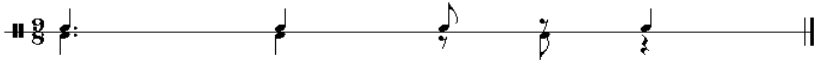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정간보와 오선보를 번갈아 보면서 아리랑의 세마치장단을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면서 세마치장단의 리듬도 익히고 노래 부르게 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 치는 것에 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세마치장단에 정확하게 리듬을 맞추게 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아리랑	차시	11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세마치장단, 민요	세마치장단 익히기, 아리랑 연주하기	
학습 주제	민요와 세마치장단에 대해 익히고 아리랑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아리랑 오선보와 정간보, 관현악곡 ‘아리랑’ DVD, 장구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대금의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이해하고 있는지 연습곡을 통해서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가 아리랑을 들려준다. • 아리랑의 전체적 선율의 특징과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다. 민요는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는 소박한 노래를 말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으로 삶을 영위해 왔으며 밭갈이나 김매기와 같이 노동을 할 때나 죽음 앞에서의 상여소리와 같이 슬픈 마음을 위로 할 때에도 생활의 일부로 노래를 불러왔다. 아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널리 불러 지게 된 이유의 하나는 곡이 현대적이고, 부르기 쉽고, 거기에 곁들여 일정(日政) 치하에서 민족적인 감정과 울분을 쉽게 엮어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민요의 맛을 살리기 위해 장식음과 삼분 박을 설명한다. • 정간보의 율명파 오선보의 게이름으로 읽어 보게 하고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 후렴을 들려주고 대금으로 연주하게 하고 다시 메기는 부분을 들려주고 연주하게 하고 나서, 전곡을 연주하고 반복 연습을 하게 한다. • 세마치장단을 안다. (장구가 개인적으로 없으므로 무릎을 손바닥으로 쳐보게 한다) <p><세마치장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장르 감상 힘이 드니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국악관련악곡 ‘아리랑’을 DVD를 보면서 쉬게 하며 흥미를 갖게 한다. • 구음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연주해 준 것을 녹음하게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한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 • 다 같이 아리랑을 연주한다. • 아리랑 연습 해오기. •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p> <p>아리랑 연습</p>	

1. 개관

본 차시에는 혀치기에 대해서 배우고, 도라지의 선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실제로 연주에 적용한다.

2. 학습 목표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도라지의 혀치기를 흉내 낼 수 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도라지는 한 호흡에 반복되는 음이 여러 개 이다. 초보성인학습자들은 호흡을 길게 하기도 힘든데 반복되는 음에 ‘루’ 하고 혀치기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반복되는 음이 나오면 호흡을 멈추었다가 다시 불어 음을 끊어 버리기가 일쑤인데 호흡을 멈추지 말고 먼저 입안에서 혀로 ‘루’하고 혀치기를 하여 소리 내어 반복 연습을 한다. 혀치기는 한두번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매 시간 마다 반복되는 음을 연습하게 하면 노래가 끊어 지지 않고 가사와 일치하게 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도라지		차시	12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혀치기, 장식음, 삼분박		혀치기 익히기, 도라지 연주하기	
학습 주제	혀치기에 대해 익히고 도라지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도라지의 혀치기를 흉내 낼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도라지 오선보와 정간보, CD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녹음기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대금의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리랑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리랑이 연주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가 도라지를 들려준다. ● 도라지의 전체적 선율의 특징과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다. ● 민요의 맛을 살리기 위해 장식음과 삼분 박을 설명한다. ● 정간보의 율명과 오선보의 게이름으로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 후렴을 들려주고 대금으로 연주하게 하고 다시 메기는 부분을 들려주고 연주하게 하고 나서, 전곡을 연주하고 반복 연습을 하게 한다. ● 힘이 드니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세마치장단에 맞추어서 도라지를 노래로 불러보게 하고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 주요 장르 감상 CD로 도라지를 들려주며 노래곡은 가사가 있기 때문에 노래하듯이 혀치기와 시김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금으로 정확하게 연주해야 한다. ● 구음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연주해 준 것을 녹음하게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한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 ● 다 같이 아리랑, 도라지를 연결해서 연주한다. ● 아리랑 연습 해오기. ●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평가내용	
	도라지를 연습하면서 혀치기.	

1. 개관

본 차시에는 짧은 음에서 혀치기 내는 법을 배우고, 밀양아리랑의 선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실제로 연주에 적용한다.

2. 학습 목표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밀양아리랑의 혀치기를 흉내 낼 수 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밀양아리랑은 경상도 지방의 민요이다. 짧은 음에서 혀치기를 할 수 있는 선율 구성이다. 초보자들은 짧은 음에서 빨리 혀치기가 쉽지가 않다. 여러 번 반복 연습을 많이 하여도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연습 시간이 많아지면 차츰 차츰 좋아지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지도해야 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밀양아리랑	차시	13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혀치기, 장식음, 삼분박	혀치기 익히기, 밀양아리랑 연주하기	
학습 주제	혀치기에 대해 익히고, 밀양아리랑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밀양아리랑의 혀치기를 흉내 낼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밀양아리랑 오선보와 정간보, CD, 장구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녹음기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대금의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이해하고 있는지 도라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도라지가 연주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가 밀양아리랑을 들려준다. ● 밀양아리랑의 전체적 선율의 특징과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며, 그에 얽힌 전설도 이야기하여 학습 재재곡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 민요의 맛을 살리기 위해 장식음과 삼분 박을 설명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정간보의 율명과 오선보의 게이름으로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 혀치기가 정확하게 되도록 시범을 보여주고, 들려주며, 반복 연습을 시켜 이해하고 대금으로 연주 할 수 있도록 한다. ● 후렴을 들려주고 대금으로 연주 해보게 하고 잘되면 메기는 부분을 들려주며 연주 하게 하고, 다시 전곡을 반복 연습하게 한다. ● 힘이 드니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세마치장단에 맞추어서 밀양아리랑을 노래로 불러보게 하고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 주요 장르 감상 CD로 ‘밀양아리랑’을 들려주며 노래곡은 가사가 있기 때문에 노래하듯이 혀치기와 시김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금으로 정확하게 연주해야한다. ● 구음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연주해 준 것을 녹음하게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 다 같이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을 연결해서 연주해본다.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연습 해오기, ● 연주회 공지 ●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평가내용	
	밀양아리랑의 장식음, 부호, 짧은 혀치기	

학습제재	진도아리랑
------	-------

1. 개관

본 차시에는 남도민요의 특징과 시김새를 배우고, 진도아리랑의 선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실제로 연주에 적용한다.

2. 학습 목표

- 남도민요의 특징을 알고 악기로 표현한다.
- 시김새들을 이용하면서 받고 메기고를 설명한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육자배기 토리의 민요인 진도아리랑에는 요성, 퇴성, 추성, 전성, 꺾는음 등 대금으로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시김새들이 나온다. 다양한 시김새를 설명하고, 연주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진도아리랑	차시	14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시김새, 남도민요	시김새 익히기, 진도아리랑 연주하기	
학습 주제	시김새에 대해 익히고 진도아리랑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민요의 특징을 알고 악기로 표현한다. • 시김새들을 이용하면서 받고 메기고를 설명한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진도아리랑 오선보와 정간보, DVD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녹음기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가 진도아리랑을 들려준다. • 진도아리랑의 전체적 선율의 특징과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다. • 남도민요의 맛을 살리기 위해 “떠는음”, “꼭는음”, “평으로 내는 음” 등을 설명한다. 육자배기 토리의 민요인 진도아리랑에는 요성, 퇴성, 추성, 전성, 꺾는음 등 대금으로 연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나온다. 그 음계는 미, 라, 시, 레로 이루어져 있으나 미, 라, 시의 3음을 주로 사용하고, 남도음악의 특색인 “떠는음”, “꼭는음”, “평으로 내는 음” 등의 3가지가 주로 사용 되고 있다. 이중 “떠는음”은 말 그대로 흔드는 음을 말하며, “꼭는음”은 음의 진행에서 한음을 내고 다음 음으로 내려올때 빠르게 꺾어 내거나 음을 흘려 내려오면서 내는 것을 말하며 “평으로 내는음”은 음을 흔들거나, 흘려 내리기, 끌어올리기를 하지 않고 평평하게 음을 내는 것을 말한다. • 장간보의 율명과 오선보의 계이름을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 후렴을 들려주고 대금으로 연주 해보게 하고 잘되면 메기는 부분을 들려주며 연주 하게 하고, 다시 전곡을 반복 연습하게 한다. • 힘이 드니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세마치장단에 맞추어서 진도아리랑을 노래로 불러보게 하고 대금으로 연주 하게 한다. • 주요 장르 감상 진도아리랑 DVD를 감상하며 남도민요 흥겨움에 빠져본다. • 진도아리랑을 연주 할 때 강사가 구음으로 불러서 녹음하게 하고, 강사가 대금으로 연주하고 녹음하게 하여, 듣고 혼자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같이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쉬지 않고 연결해서 연주한다.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 • 악보를 보면서 강사가 진도아리랑을 들려주고 수업 내용 정리 및 연주회 준비.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20분
평가	평가내용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의 맛내기	

1. 개관

본 차시에는 그동안 배웠던 우리 전통 민요를 무대 위에서 연주 한다.

2. 학습 목표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연주한다.
- 세마치장단에 맞추어 연주한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전곡을 2번씩 받고 메기고 연주를 하면서 바른 자세, 무대 예절 등을 알게 한다. 힘들다고 연주 중간에 악기를 내리지 않으며, 소리가 나지 않고 바람소리만 난다고, 틀렸다고 당황하지 않고 자세를 흐트리지 말고 연주를 하여야 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연주 및 감상		차시	15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			연주회
학습 주제	연주회 준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연주한다. • 세마치장단에 맞추어 연주한다. 			
학습 자료	교 사	장구, 의상 준비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허설을 할 때에는 실제 연주 할 때 앉는 자리순서를 정하고 자리배치를 하여 앉아서 한다. ● 연주는 의자에 앉아서 하므로 무대 자리배치를 확인하고, 옆 사람과의 알맞은 간격을 유지 하도록 한다. ● 자리를 정한 순서에 맞게 줄을 서서 무대에 들어가며 악보와 악기를 바르게 들고 가는 자세와 걸어 들어가는 바른 자세, 의자에 앉았을 때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행한다. ● 보면대의 높이는 본인의 얼굴이 보이도록 하고, 마이크는 대금을 들고 연주할 때 귀쪽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여 대금 소리가 객석에서 잘 들리도록 한다. ● 긴장하면 대금 소리가 나지 않고 바람소리가 많이 나므로 평소 때와 같이 편한 마음으로 연주한다. (연습은 연주처럼, 연주는 연습처럼 하라는 말이 있다) ● 장단의 신호에 맞추어 악기를 들고, 세마치장단에 맞추어 다 같이 연주한다. ● 연주가 끝나면 천천히 악기를 내리고, 동시에 인사하고, 일어서서 연주하러 들어 올 때처럼 바른 자세를 하고 반대로 나가면 된다. ● 분장실에 들어가서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의상을 갈아입고 다른 팀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례에 다른 팀 연주가 있으므로 조용히 분장실을 비워준다. ● 간단한 뒤풀이를 하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연주회의 소감과 한 학기 동안 대금을 배우면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강사에게 바라는 점 등의 요구사항을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 하며 공유하고 자신을 성찰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20분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p> <p>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전곡을 2번씩 연주하기</p>	

제4장 연구2: 대금 입문 프로그램의 적용

제1절 연구목적

연구 2는 연구 1을 통해 개발된 대금 입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를 실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적용 연구이다. 대금연주에 처음 입문하는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기존의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이 프로그램이 원래 목표했던 바, 성인학습자들의 흥미에 근거하여 몰입을 유지하고 대금연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에 비추어 그 실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1회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끝나는 단선적인 방식의 일반적인 프로그램 적용 연구와 달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적용 과정에서 목표에 비추어 실현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교수자이자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학습자의 평가를 경청하고 그 결과 프로그램을 수정하며, 그 수정된 프로그램을 다시 적용, 성찰, 평가하는 식의 반복적이며 나선형적인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위해 이 연구는 일종의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

1. 실행연구와 연구과정

이 연구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실지로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인학습자들의 성장도모하기 위한 실행연구이다. 실행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

어왔고, 최근에 와서는 그 가치와 중요성이 포괄적으로 확산되어 발전 중에 있다 (Kemmis & Mctaggart, 2000; Noffke, 1989; Reason & Bradbury, 2001). 실행연구가 기타 연구방법과 다른 점은 연구자인 행위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개인·사회적 삶을 탐구하여 계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과정 지향적 탐구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다는 점이다. 실행연구는 행위당사자인 교사가 ‘모종의 개선 계획을 실제로 행하면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현장개선을 직접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구체적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및 그 적용과정을 강조한다(이용숙 외, 2008: 20-21). 요컨대, 실행연구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그 모두를 포괄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1차 개발된 프로그램을 목표에 비추어 좀 더 수정,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실행 연구를 원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실행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2차에 걸쳐서 적용, 평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산출하였다. 1차 프로그램의 적용은 2010년 3월부터 15주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1주일에 2시간씩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13명의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전업주부보다는 직장인여성이 더 많았다. 1차 적용 과정에서의 연구자의 성찰과 학습자의 평가에 근거하여 다시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2차 적용은 같은 평생교육원에서 2010년 8월 30일부터 15주간에 걸쳐서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졌으며 총 수강자는 15명으로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역시 직장인 여성이 더 많았다. 2차 적용 과정 중에는 교수자의 수업 성찰일지와 면담을 통한 학습자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을 거쳐 수정된 프로그램은 다시 외부 전문가에게 서면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즉 최종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위해 일종의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한 셈이다.

위와 같은 2차례의 계획-실천-반성-계획-실천-반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성인학습자 대상의 대금 입문 프로그램을 산출해 내었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적용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2. 연구자

실행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도구이자 행위당사자이다. 현장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행연구는 그 현장에서 오랜 실천을 통해 체득한 실천적 지식을 중요시한다. 이 연구 역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금교육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 실제 오랫동안 교육현장에 참여한 교수자로서의 문제의식과 실천적 지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연구자에 대한 소개는 이 연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 연구의 연구자는 4년제 대학에서 대금을 전공하고 연주단체에서 연주를 하면서 음악교육석사과정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을 마쳤다. 연주단체에서 연주경력 26년 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연주단에 있으면서 예술고등학교, 대학,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그리고 백화점문화센터 등에서 강사를 다년간 해왔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백화점문화센터 등에서 대금을 가르친다는 것에 열정은 있지만 전통음악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성인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하면 소리가 좀 더 쉽게 나며 흥미를 잃지 않고 대금을 배울 수 있을까? 성인학습자들이 보다 흥미를 느끼며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좋은 수업의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에게 능률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교수방법에서 끊임없는 성찰과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필요에 기초하여 대금연주자인 연구자가 수업 개선을 위해 적용하여 실행, 평가하는 과정을 직접 실행하게 되었다.

3. 연구 참여자

이 실행연구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은 앞서 요구조사에 참여한 성인들과 거의 유사한 인구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연령대도 40대가 가장 많고,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며, 직장인이거나 퇴임한 경우로 월수입 역시 300만원 이상의 중산층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1차 적용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은 대학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대한 공고를 한 후 신청한 성인학습자로 이루어졌다. 총 수강인원은

13명중 남자는 총 8명이며, 60대 2명, 50대 1명, 40대 4명, 20대 1명으로 되어 있고, 여자는 총 5명이며, 50대 1명, 40대 2명, 30대 2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남녀 성 비율은 저녁 시간이다 보니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여성들은 주부 보다 직장인 여성이 많았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학교 특성상 가톨릭 신자들이 주로 많은 분들이 수강 신청을 했다.

2차 적용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 역시 대학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 참여 모집에 대한 공고를 한 후 신청한 성인학습자로 이루어졌다. 다만, 연구1에서의 같은 성인학습자들은 아니고 새로 모집한 초보성인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총 수강인원은 15명중 남자는 9명으로 60대 4명, 50대 2명, 40대 1명, 30대 1명, 20대 1명이며, 여자는 6명으로 50대 1명, 40대 2명, 30대 3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악기 특성상 60대 여성은 없는 것 같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남녀 성 비율은 저녁 시간이다 보니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많았고, 여성들은 주부 보다 직장인 여성이 많았다.

4. 실행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 연구는 기존의 프로그램 적용 연구와 달리 일회적인 적용으로 그치지 않고 적용 과정 중에 연구자이자 교수자가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면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학습자들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경청함으로써 더 나은 프로그램을 다시 계획하고 수정하여 적용하고 성찰하는 반복적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연구자 자신이 직접 교수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적용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대금 전문연주자이자 교수자의 실천적 지식을 명제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으로서도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실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기에는 지면과 연구자의 역량의 한계 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꾸준히 연구자는 적용 과정에서의 성찰을 일지로 남기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는 부록으로 실었다. 논문에는 실행연구의 과정에서 얻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실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특히 2차 적용의 경우에는 연구의 타당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하여 제3의 전문교수자들에게 서면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프로그램

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대금교육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15주에 걸쳐 매주2시간씩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서 실행되고 수정되고 최종 개발된 것이다. 이 결과물은 12주, 24주, 혹은 1시간 프로그램의 경우 다소간의 수정을 거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절 실행연구의 결과

이 절에서는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적용의 결과를 크게 프로그램 평가와 프로그램 수정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수자가 성찰한 결과와 학습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프로그램 수정은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한 수정 계획과 수정된 수업지도안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1차 프로그램 적용

프로그램의 평가(evaluation)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원래 지향하고자 한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수정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새롭게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업지도안에 반영한 것이다.

가. 프로그램 평가

(1) 교수자의 성찰

이 프로그램은 프래그머티즘에 근거하여 성인학습자들이 최대한 흥미를 유지하면서 대금연주에 몰입하여 그 음악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인학습자의 이전 음악경험과 새로운 대금연주 경

힘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그들의 반응에 적절하게 교수자가 반응하여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원리에 따라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제재곡 등에 대하여 성찰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가) 교육내용

첫째, 악기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악기는 학교 다닐 때 기타, 서양 악기 중에서 관악기를 배웠거나, 단소를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는데 대금 소리가 좋아서, 나이가 들다 보니 울리는 대금 소리가 그저 좋아 배워보겠다고 한 성인학습자들이 대금을 처음 접하다 보니 전공자의 수준이 되지는 못하지만 타인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초보성인학습자들이 정악대금을 연주하기에 지공을 6공까지 막는다. 왼손무명지로 3번 막는 지공이 소리내기가 어려웠다. 그 이유는 지공이 막아지면 취구에 입술이 맞지 않아서 입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취구를 맞추면 지공이 막아지지 않아 소리 내기가 어려웠다. 3번 지공 막는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무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 해버리기도 하였다. 이는 악기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음악이론공부는 취미로 하는 성인학습자에게도 간단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이론공부의 병행은 필요하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오선보와 정간보를 보고 연주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기초적인 이해와 전통음악의 기본적인 이해, 악보를 바르게 보고 연주하기, 초보자의 단계를 넘어서 일정수준 이상의 연주,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병행되지 않아도 괜찮고, 연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겠지 하는 마음과 전공이 아니므로 적성과 취향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수업 중에는 전통음악이론이나 음악이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습자들도 있다. 이론적인 것을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기도 하고 전통음악의 이론은 처음 듣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과거에 배웠던 기억도 되살린다. 음악이나 전통음악을 전혀 모르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대금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묻는 학습자도 있다. 이론과의 병행은 대금을 배워 가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셋째, 악보는 정간보와 오선보를 병행하는 것이 성인학습자들의 독보력을 향상시

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초급 단계를 넘어서면 전통음악 즉 정악이나 산조를 배우게 된다. 전통음악 대금 악보는 대체로 정간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의 악보들은 오선보를 보고 연주 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졌다. 따라서 다소 어렵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정간보와 오선보를 병행해서 습득하는 방법이 좋았다. 정간보와 오선보를 동시에 같은 곡을 제시 하였더니 처음에는 정간보 보는 방법을 어려워하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정간보 보는 방법이 더 쉽다고 한다. 그렇다고 성인학습자들이 오선보를 잘 보지는 않았다. 늘 보아왔던 익숙한 악보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 하는 것이다. 우리 악보인 정간보를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실시하였다면 악보 보는 방법에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넷째, 소리내기 역시 시김새 등이 조금씩 포함되다가 확대되는 방식이 적합했다. 초보성인학습자들이 정악대금 소리내기에는 지공을 6공까지 막는다. 왼손무명지로 3공 막는 지공의 소리내기가 어려웠다. 그 이유는 지공이 막아지면 취구에 입술이 맞지 않아서 입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취구를 맞추면 지공이 막아지지 않아 소리 내기가 쉽지 않았다. 3공 막는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무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 해버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운지법은 배울 때 울명과 계이름으로 익히는 것과 보조적으로 손가락 번호를 이용하여 울명, 계이름 서로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연계를 잘 못시키고 망설이고 있을 때 손가락 번호를 알려주면 좀 더 쉽게 다가 왔다. 또한 시김새 즉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 등의 연주 기교에 대해 배우는 시기는 연습곡부터 쉬운 시김새를 한곡에 한 두 개 정도 반복적으로 배우면서 점차적으로 양을 늘려갔다. 장식음과 부호는 정간 안에 적어 놓으므로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외워지지 않아 장식부호 옆에다 한글로 음이름을 써서 연습하게 하였다.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니 저절로 외워지니 학습자들도 자신이 대금에 대해서 이해의 수준이 높아진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나) 교수-학습방법

첫째, 박자를 익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악보를 보면서 구음으로 읽게 하거나 무릎장단을 치면서 읽게 하고 구음에 따라 악기로 연주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의 연주를 녹음기나 스마트 폰으로 녹음하게 하고 구음으로 불러 준 것도 녹음하게 하

여 언제나 대금을 연습 할 수 있도록 하였더니 박자 감각 익히는 것이 아주 쉬워졌다고 한다.

둘째, 진도는 더디게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조금 늦게 나가더라도 세밀하고 자세하게 해주고, 조금 빠르게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악보를 읽는 정도로 진도를 빨리 나가면서 반복을 여러 번 하였다. 다양한 연령층이다 보니 빨리 받아 드리는 학습자와 여러 번 연습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학습자를 위해 처음 몇 주는 다 같이 소리내기를 하며 단체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개인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2시간의 수업을 조별로 나누어 진행하기도 하고 뒤쳐진 분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수업 진행을 하여 흥미를 잃지 않게 관심을 보였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연습할 시간을 못 내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습 못하고 오는 데 진도를 빨리 나가면 무엇을 배웠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한다. 대금이라는 악기의 특성상 도시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연습할 장소와 저녁 늦은 시간에는 연습이 힘들다. 어떤 학습자는 차를 가지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연습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고 했다. 삶의 여유로움을 갖기 위해 배우는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천천히 차근차근, 반복하며 배우면서 흥미를 느끼고 몰입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의 맛을 느끼는 방법이 본 연구자는 좋다고 생각한다.

(다) 제재곡 구성

먼저, 아리랑은 대중성뿐만 아니라 대금 불기가 평이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곡으로 구성하였는데 연습곡을 연습한 후 익숙한 곡으로 들어가니 초보성인 학습자들의 관심과 열의가 보였다. 도라지는 쉽지 않았지만 혀치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었다. 중간음으로서 평취음은 대금에서 소리내기가 쉽지만 혀치기라는 단계가 반복적으로 새롭게 제시되었는데 혀치기는 가사가 있는 노래에서 가사에 맞게 혀치기가 구성되어 있으니 음을 끊지 말고 호흡을 이어서 ‘루’ 하고 혀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밀양아리랑은 평취음 외에 역취음이 새로 제시되며 짧은 혀치기도 다양한 박자로 연습할 수 있어서 제시되었는데 짧은 박에서의 혀치기는 여러 번 반복 하는 혀치기보다 호흡이 짧아서 되는 것처럼 들리기만 하였다. 그러나 역취음을 반드시 익혀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

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곡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진도아리랑은 남도민요의 특징인 다양한 소리내기가 포함되어 앞서의 다양한 연주곡을 연습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로 구성하였는데 초보성인학습자들에게는 정악대금으로 연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랐다. 정악대금은 악기가 커서 남도민요의 특징인 ‘격는 위음에서 격어 내려 오는음’, ‘떠는음’ 등의 시김새의 맛을 내기가 어려웠다. 이는 연습을 통해서 극복되기 어렵고 즐기면서 하기 어려운 곡이어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2) 학습자의 평가

대금 입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업 참여도는 비교적 높았으며 수강생들이 대체적으로 수업시간 이외에도 연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불참 시에는 보통 일 때문이고, 흥미가 떨어져서인 경우도 있었으며, 수업에 불참 시에는 연락을 주어 관심을 보여 주길 원하기도 하고, 단기간에 해야 할 숙제도 아니고 수험생도 아니니까 천천히 하길 원했다.

(가) 교육내용

첫째, 학습자들은 악기는 정악대금의 3공의 지공이 손가락의 유연성이 떨어져 쉽게 막아지지 않으니 흥미를 잃고 수업 받으러 나오기가 부담스럽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성인학습자들은 기본적인 소리만이라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금을 시작 하였는데 정악대금 연주는 힘들고 어렵다고 했다.

둘째로, 음악이론공부는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하였는데 대금을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지식이 쌓이는 것 같고 좋다고 하였다.

셋째, 연주기법에서 악보는 대금 단계가 높아지면 정간보를 보며 연주를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초보단계부터 오선보와 정간보를 병행하여 배우니까 좋았다고 판단했다. 학습자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계이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율명도 함께 하니 어렵게 느껴진다고 했지만, 배울수록 많이 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같이 병행하여 배우면 좋겠다고 했다. 학습자에 따라서는, 너무 어려워서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하였지만, 대체로는 잘 몰라도 전문가가 알려 주는 방법으로 따

라 하니 어렵게만 느껴지는 정간보가 차츰 익숙해지기도 한다고 했다.

소리내기와 운지법은 성가 반주 정도 하는 소리내기 하기를 원하고, 음악을 한 두곡 정도 해보았으면 했다. 또한 시김새 즉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는 잘 모르겠지만 장식음이나 부호들을 외우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재미가 있고 대금 소리도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고 하였다.

(나) 교수 - 학습 방법

박자는 교수자가 대금으로 들려주고 성인학습자들에게 무릎장단을 치면서 노래로 불러 보게 하기도 하고 구음에 따라 천천히 익숙해 질 때까지 연주하게 하여서 좋았다고 하였다. 진도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차근차근 나가면서 본인이 하는 만큼 나가고 천천히 하니까 좋다고 하였다. 배우는 순서를 민요부터 배우는 것은 일반사람이 아는 음악이어서 좋고 어느 장소에 가서라도 한 곡정도 연주 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어도 본인이 심취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면 좋겠다고 하였다. 성인 학습자이다 보니 같은 수강생들끼리 편안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이 연습을 하지만, 결국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도 지도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었다.

(다) 제재곡 구성

성인학습자들에게 아리랑은 평상시에도 많이 불렀고 들어 왔던 곡이라 익숙한 곡이라서 소리가 쉽게 잘나지는 않았지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다. 소리내기와 연습곡만 하니 지루하기도 하였는데 재미도 있고 대금을 부는 맛이 나기도 한다고 했다. 도라지는 아리랑보다는 전반적으로 소리내기는 쉽지만 혀치기라는 단계가 반복적으로 새롭게 제시되어 노래에 가사에 맞게 혀치기가 되지는 않고 호흡이 짧아 음이 끊어져 음악이 연결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밀양아리랑은 새롭게 역취음이 제시되었는데 음악을 연결할 때면 역취음에서 입김을 세계 넣어야 하는데 호흡 조절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역취음 소리가 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진도아리랑은 남도민요의 특징인 다양한 소리내기 ‘꺼는 위음에서 꺾어 내려 오는음’, ‘떠는음’ 등의 시김새의 맛을 내기가 어려웠다. ‘꺼는음’에서는 위

음에서 꺾어 내려야 하는데 손가락의 지공 간격이 멀어서 음의 연결 잘되지 않았고, ‘떠는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금이 커서 남도민요의 맛이 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성인학습자들은 초보자들인 자신들이 진도아리랑을 연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나. 1차 프로그램 수정

1차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한 결과에 기초하여 1차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은 계획에 따라 새롭게 수정하였다.

(1) 교육내용

첫째, 악기는 1차 수업 진행은 플라스틱 정악 대금으로 하였으나 산조대금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정악 대금은 악기가 크고 길고 지공간의 간격이 멀어서 초보성인학습자에게는 대금의 소리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손가락의 유연성이 떨어져 지공 막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플라스틱 정악대금에서 산조대금으로 악기를 바꾸고 지공을 5공 잡는 운지법, 즉 5관청을 본청으로 하는 수업 진행을 계획하였다. 플라스틱 산조대금은 정악 대금 보다 악기가 작고 산조대금(정악대금: 길이는 약 81cm, 내경 2cm. 산조대금: 길이 약70cm. 내경 1.7~1.8cm)은 소리가 쉽게 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수업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는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곡구성은 1차의 정악 대금으로는 연주곡을 많이 하지 못했다. 이유는 악기의 특성상 크고 길다 보니 소리내기와 지공 막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2차에는 산조대금 5관 본청으로 대금을 붙면 소리가 더 쉽게 나기 때문에 곡구성을 좀 더 다양화 해보았다. 15주 동안에 대금의 맛과, 전통음악적인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자주 듣고 불렀던 민요 중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은 1차와 같이 구성하였고, 널리리야에서의 역취음 연습을 다음차시 칠갑산을 배울 때 원활한 역취음을 내기 위하여 선곡 하였고, 칠갑산은 대금으로 전통음악적인 맛을 낼 수 있으며 대중들이 애창하는 가요이기 때문에 선곡 하였고, 1차의 진도아리랑은 정악대금으로 초보성인학습자들이 남도의 맛과 다양한 시김새의 맛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강원도 민요인 한오백년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한오백년은 메나리토리의 음악으로 탄식하는 듯 한 선율과 느리게 연주하면 구슬프게 들려져 대금으로 그 맛을 내기에는 적합하여 선곡하였다.

셋째, 연주기법에서 악보는 전통음악의 정악, 산조 등의 주요 악보가 정간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선보는 맨 뒤쪽의 부록처럼 되어 있다. 대금을 전공하는 연주자들은 전통음악을 연주할 때 오선보를 보기 보단 정간보를 보며 연주한다. 그러나 요즘음 작곡 되어진 연주곡들은 모두 오선보로 되어 있다. 물론 취미로 배우는 성인학습자들도 초급 단계를 지나서 정악을 배우거나 산조를 배울 때 모두 정간보를 보고 연주한다. 오선보에 익숙한 성인학습자들은 정간보를 처음 보면 어려운 악보를 어떻게 보느냐고 반문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쉬운 정간보와 오선보를 동시에 제시하여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이해하고 읽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소리내기와 운지법에서 2차에는 산조대금 5관 본청으로 대금을 불기 때문에 1차의 정악 대금 보다는 소리가 쉽게 나고 힘도 덜 든다. 지공을 5공까지 사용하고, 왼손 무명지로 3공을 막았던 1차와는 달리, 2차에서는 오른손 식지로 3공을 막기 때문에 손가락 움직임이 자유스러워 지공이 잘 막아지고 정확하게 지공이 막아지면 소리내기도 쉬워진다. 소리내기가 쉬워지면 운지법이 자유로워지고 대금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지 않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빠져도 다음 시간에 나왔을 때 부담감도 덜 한다. 시김새 즉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는 지공을 막는 것이 자유로워지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장식음, 부호 등 시김새 표현이 자유로워진다. 소리내기가 되면 연습곡을 진도 나갈 때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표기하여 이해하게 한다. 처음에는 잘 숙지가 되지 않으면 연필로 울명과 계이름을 쓰도록 하여 연습하게 하고 이해가되면 지우도록 한다.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사용하여 초보자들에게 무리가 없게 하였다. 처음부터 조금씩 알아 가면 나중에는 복잡한 장식음을 배우게 되고 손가락이 유연해져 아름다운 대금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 교수-학습방법

박자는 연구자가 대금으로 들려주고 초보 성인학습자들에게 무릎장단을 치면서

노래로 불러 보게 하기도 하고 구음에 따라 천천히 익숙해질 때 까지 연주해 보게 하였다. 본 연구자가 구음으로 박자 맞추는 것을 녹음하게 하고, 제재곡을 들려 줄 때는 연주하는 손가락 움직임의 중심으로 동영상을 찍게 하여 귀가해서 어느 때든지 혼자서도 박자를 맞추며 연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도는 천천히 본인이 하는 만큼 나가고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기로 계획하였다.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다양한 연령층이고 빨리 받아 드리는 학습자와 여러 번 연습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음악이 연결 되지 않아 진도를 빠르게 나갈 수 없어 처음 몇 주는 다 같이 소리를 내며 단체 수업이 진행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개개인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2시간의 수업을 조별로 나누어 진행하기도 하고 뒤쳐진 학습자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수업 진행을 하여 흥미를 잃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연습할 시간을 못 내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습 못하고 오는 데 진도를 빨리 나가면 무엇을 배웠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한다. 대금이라는 악기는 국악기의 현악기에 비해 악기를 붙였을 때 소리가 바로 나지 않고 크고 멀리까지 소리가 들린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도시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연습할 장소와 저녁 늦은 시간에는 연습이 힘들다. 어떤 학습자는 차를 가지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연습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고 한다. 삶의 여유로움을 갖기 위하여 배우는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천천히 차근차근, 반복하며 배우면서 대금의 맛을 느끼는 방법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초보 성인학습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개인 사정이 있어 못나오는 학습자에게는 다음 시간에 나오면 심리적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진도를 천천히 나가며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서 다른 학습자와 보조를 맞추는 방식으로 개별적 수업 원리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출석률이 좋거나, 음악성이 다른 사람 보다 나은 학습자는 진도를 빨리 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성인학습자들과 구별하여 서로 소외 되지 않도록 개인별 지도를 진행하여 성인학습자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인식하게 하여 흥미를 잃지 않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3) 제재곡 선정

1차의 정악 대금으로는 연주곡을 많이 하지 못했다. 이유는 악기의 특성상 크고 길다 보니 소리내기와 지공 막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하여 2차에는 산조 대금 5관 본청으로 대금을 불면 소리가 더 쉽게 나기 때문에 곡구성을 좀 더 다양화 해보았다. 15주 동안에 대금의 맛과, 전통음악적인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자주 듣고 불렀던 민요 중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은 1차와 같이 구성하였고, 널리리아에서의 역취음 연습을 다음차시 칠갑산을 배울 때 원활한 역취음을 내기 위하여 선곡하였고, 칠갑산은 대금으로 전통음악적인 맛을 낼 수 있으며 대중들이 애창하는 가요이기 때문에 반주음악 CD와 함께 연주 할 수 있도록 선곡 하였다. 1차의 진도아리랑은 정악대금으로 초보성인학습자들이 남도의 맛과 다양한 시김새의 맛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강원도 민요인 한오백년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한오백년은 메나리토리의 음악으로 애달픈 선율이 느리게 연주하면 구슬프게 들려져 대금으로 그 맛을 내기에는 적합하여 선곡 하였다. 대금 소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 성인 학습자들은 많은 곡 들을 하고 싶어 한다. 인터넷 카페, 동호인 모임 등에 참여하며 정악 대금으로 연주하면 좋은 곡의 악보, 산조 대금으로 연주하면 좋은 곡의 악보를 스스로 만들거나 복사하여 서로가 공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악보들은 대개가 정간보로 이루어져 있다. 정악이나 산조 악보들은 류 파 별로 교재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서 구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초보자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악보 보단 자주 접하고 노래로 불러 보았던 곡들을 먼저 해보고 싶어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 곡 구성을 민요와 반주음악 CD가 있는 가요를 덧 붙여 채택해 보았다.

(4) 수정된 프로그램 개요

다음은 1차시부터 15차시까지의 산조대금의 5관 본청 세부 수업 프로그램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성인 학습자들은 대금의 크기가 큰 정악대금을 학습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리 내기도 더 쉽고 힘도 덜 드는 산조대금의 5관 본청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15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부록4에 제시하였다.

1차와 2차 프로그램에서 표와 같이 정악대금으로 1차 수업을 진행한 반면 2차 수업 진행에서는 산조대금 5관 본청 잡는 방법으로 수업을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이유는 성인학습자들은 손가락이 유연하지 않아 왼손손가락 1,2,3공 지공을 막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한정된 수업 시간 즉 15주 수업에 소리내기를 몇 차시 진행하고 있으면 대금 불기에 흥미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쉽게 나고 힘이 덜 들어 재미를 느끼며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이유로 산조대금 5관청 사용으로 수정하여 수업 진행을 하였는데 소리도 더 빨리 낼 수 있고 정악대금에 비하여 악기가 작아 힘도 덜 든다고 하였다. 소리를 빨리 내다보니까 진도도 더 많이 나갈 수 있었다.

1차에서는 누구나 좋아하는 진도 아리랑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정악대금으로는 남도민요의 맛을 내기가 초보성인학습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2차 수업에서는 진도 아리랑을 빼고 역취음(청황)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다음차시의 칠갑산을 배우기에 용이 하도록 널리리아, 전통음악적인 맛이 나는 가요 칠갑산을 반주음악 CD와 함께 연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애절한 선율의 강원도 민요인 한오백년으로 바꾸었다.

<표 17> 수업의 1차와 2차 프로그램의 차이

차시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수정)
1차시	플라스틱 정악대금 준비.	플라스틱 산조대금 준비
2차시	소리를 내기위한 왼손가락 3개, 오른손가락 3개 막는 운지법 설명.	소리를 내기위한 (5관 본청) 왼손가락 2개, 오른손가락 3개 막는 운지법 설명
3차시	지공1, 2, 3공을 왼손손가락 식지로 1번, 장지로 2공, 무명지로 3공 막는데 쉽게 막아지지 않아 소리도 나지 않고 손가락이 아프다고 호소.	지공 1, 2, 3공을 왼손손가락 식지로 1공, 장지로 2공까지 막고, 오른손 손가락 식지로 3공을 막으니 지공이 쉽게 막아져 소리가 용이하게 남.
4차시	평취 음역의 지공이 막아지지 않아 소리가 잘나지 않을뿐더러 악기를 들고 있기도 힘들다고 함.	평취 음역의 전체 음정을 소리내기를 함 (지공 전체를 막게 함).
5차시	2주 동안 평취와 저취 음정 소리내기 함. (쉽게 나지 않음)	저취 음정 전체 소리내기

6차시	앞 차시 반복	평취, 저취, 역취 음정 소리 내기.
7차시	역취 음정 알고 소리 내기	정간보 읽는 법과 연습곡 1, 2번 진도 나가기
8차시	정간보 읽는 법과 연습곡 1,2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 익히 며 연습곡 3, 4번
9차시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 익히며 연습곡 3번연습곡 4번,	아리랑
10차시	앞차시 반복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
11차시	아리랑	닐리리아
12차시	도라지타령	칠갑산
13차시	밀양아리랑	한오백년
14차시	진도아리랑 (민요 전체 연습)	아리랑,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 닐리리아, 칠갑산, 한오백년 전체 연습
15차시	연주 및 감상	연주 및 감상

2. 2차 프로그램 적용

1차에서 수정된 프로그램을 2010년 8월 30일부터 다시 동일 기관에 등록된 초보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하였고, 그 실행 과정 결과 교수자의 평가와 학습자의 평가를 받아 다시 수정계획을 세워 최종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이번 학습자 평가는 인터뷰방법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문가 서면 평가를 받아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 프로그램 평가

(1) 교수자의 성찰

(가) 교육 내용

첫째, 연주곡 및 이론의 악기는 전학기의 수업은 플라스틱 정악 대금으로 수업을 진행한 반면 이번 학기에는 플라스틱 산조대금의 6관 본청 사용보다는 민요 중심의 수업 진행으로 산조대금의 5관 본청을 본청 사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보았다. 길이와 크기가 더 큰 정악대금 보다는 더 짧고 작은 산조대금으로 초보자들이 소리내기를 하니 정악 대금 보다는 쉽게 소리가 나고 힘도 덜 들어 대금에 접근하기가 수월하였다.

음악이론공부에 이론적인 것을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기도 하고 전통음악의 이론은 처음 듣는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과거에 배웠던 기억도 되살리면서, 음악이나 전통음악을 전혀 모르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대금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묻는 학습자도 있었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였다.

둘째, 연주기법에서 악보는 정간보와 오선보를 동시에 같은 곡으로 제시를 하였다. 처음에는 정간보 보는 방법을 어려워하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정간보 보는 방법이 오선보 보는 방법 보다 더 쉽다고 하였다. 초급 단계를 넘어서면 정악

이나 산조를 배우게 되고 또는 다양한 곡 들을 스스로 찾아서 연습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곡들은 대개 오선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오선보와 정간보를 동시에 활용은 바람직하다.

운지법을 배울 때는 율명과 계이름 또는 손가락의 지공 번호를 이용하며 율명, 계이름, 손가락으로 지공 번호를 서로 연계하면서 정간보, 오선보 보는 방법에서도 쉽게 다가왔다. 소리내기는 성인학습자들은 손가락의 유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호흡도 약하고, 소리 내기가 어려우므로 초급 단계에서는 산조대금 오관 본청¹⁵⁾을 사용 하는 방법 즉 지공을 다섯 개만 막는 방법(왼손 식지와 장지로 1,2공 막고 오른손 식지, 장지, 무명지(3,4,5공을 막는)로 소리를 내면 소리도 쉽게 나고 힘도 덜 들고 지공도 쉽게 막아 지기 때문에 대금을 배우는데 있어서 싫증도 덜 나고 재미 있게 대금 연주를 할 수 있었다. 시김새, 장식음, 부호등의 연주 기교에 대해 배우는 시기에 대해서는 쉬운 시김새 부터 한곡에 한 두 개 정도 씩 배우면서 점차적으로 늘여 가기를 원했다. 장식음은 정간안에 장식부호를 적어 놓으므로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외워지지 않으니 장식부호 옆에다 한글로 음이름을 써서 연습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익숙해져 저절로 외워진다. 외워지고 나면 지워버려야 한다.

(나) 교수-학습 방법

박자를 익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악보를 보면서 구음으로 읽게 하거나 무릎장단을 치면서 읽게 하고 강사의 구음에 따라 악기로 연주하니 흥미도 유발되고 연주가 더 수월했다.

진도의 선호도는 진도가 조금 늦게 나가더라도 세밀하게 해주기를 요구, 악보를 읽는 정도로 진도를 빨리 나가되 반복을 여러 번 요구, 진도는 빨리, 반복 여러 번, 간단한 기교도 요구하였는데 다양한 연령층이다 보니 빨리 받아 드리는 분과 여러 번 연습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음악이 연결 되지 않아 진도를 빠르게 나갈 수 없어 처음 몇 주는 다 같이 소리를 내며 단체 수업이 진행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개개인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2시간의 수업을 조별로 나누어 진행하기도 하고 뒤쳐

15) 오관청(五管淸) : 시나위 대금(大箏)의 6구멍 중 제1공에서 제5공까지 막고 제6공은 열고 낸 음으로 민요청 이라고도 한다.

진 분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수업 진행을 하여 흥미를 잃지 않게 관심을 보였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연습할 시간을 못 내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습 못하고 오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면 무엇을 배웠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한다. 대금이라는 악기는 국악기의 현악기에 비해 악기의 소리가 크고 멀리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도시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연습할 장소와 저녁 늦은 시간에는 연습이 힘들다. 어떤 분은 차를 가지고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연습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고 한다. 삶의 여유로움을 갖기 위하여 배우는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보단 천천히 차근차근, 반복하며 배우면서 대금의 맛을 느끼는 방법이 본 연구자는 좋다고 생각한다.

(다) 제재곡 구성

연주곡 선정은,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은 1차와 동일하게 선정하였고 널리 알려진 야에서의 역취음 연습을 다음차시 칠갑산을 배울 때 원활한 역취음을 내기 위하고, 곡이 어렵지 않기도 하여 선곡 하였다. 칠갑산은 대금으로 전통음악적인 맛을 낼 수 있으며 대중들이 애창하는 가요이기 때문에 선곡 하였으며, 1차의 진도아리랑은 정악대금으로 초보성인학습자들이 남도의 맛과 다양한 시김새의 맛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강원도 민요인 한오백년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다른 민요는 정악대금으로 연주가 용이하지만 남도 민요인 진도아리랑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진도아리랑 보다 좀 더 느린 한오백년으로 곡을 바꾸었더니 빠른 음악 보다는 보통 빠르기로 천천히 연주하며 맛을 내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소리내기도 잘하였다. 객석에서 관객의 반응도 더 좋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적인 것 보단 혼자서 조용히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정적인 악기를 다루고 싶어서, 평소에 대금 소리가 좋아서, 대중매체에서 대금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서 배우겠다는 학습자들도 있다.

전문 연주자가 연주하는 곡까지 배우고 싶기도 하고, 전공자의 수준 보다는 남들 앞에서 조금은 연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고 싶다고 하는 학습자들도 있다. 하지만 대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초보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싫증 내지 않고, 재미있게 대금을 배우고 중도에 포기 하지 않으며 중급, 고급 과정으로 처음

의도했던 결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2) 학습자의 평가

(가) 교육내용

대금을 배우는 초보자들의 성인학습자들은 휴대하기가 쉽고 이동이 간편하고 소리가 마음에 들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열정과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짐을 느끼고 다른 이들에게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대금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생각보다 소리가 잘 나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며 창피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소리가 나면서 만족감이 더 높아졌다고 했다. 특히 플라스틱 대금이어서인지 소리내기가 편했다고 한다.

음악이론공부는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 하였는데 대금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으니 지식이 쌓이는 것 같고 좋기도 하고 전문가인 강사가 알아서 원하는 데로 가르쳐 주었으면 했다.

둘째, 연주기법에서 악보는 대금을 하기 전에 다른 악기를 연주하여 본 경험이 없어서 악보 보는 것이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대금 단계가 높아지면 당연히 정간보를 보며 연주를 하여야 하고 초보단계부터 오선보와 정간보를 병행하여 배우면 좋겠다고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알려 주는 방법으로 따라 하겠다 하기도 하고 정간보를 배우게 되니 너무 어려워서 흥미를 잃어 버렸다고도 한다. 여전히 오선보와 정간보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운지법은 당연히 재미로 수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울명도 함께 하니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기도 했다. 복식호흡을 하면 소리내기가 좋은데 초보성인학습자들은 길게 호흡하여 소리내기 하는 것과 운지법이 안 된다고 했다. 복식호흡을 따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시김새의 13경우,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 하였지만 이걸 배워야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다. 먼저 배웠던 장식음이 나 부호들을 외우려고 하니까 숙달이 되면서 재미도 있고 소리도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 배울수록 많이 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선보 보기 보단 신기하고 새로

위 같이 병행하여 배우면 좋겠다고 한다.

(나) 교수-학습방법

쉬운 박자부터 배우고, 아는 음악을 배우니 박자 맞추기가 어렵지 않고, 또한 먼저 대금 연주를 듣고 구음에 따라 박자를 맞추니 좋고, 무릎에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박자 맞추기를 하고, 또한 귀가 후에는 녹음이나 동영상을 듣고 보면서 개인 연습을 하니 수업 나와서 하는 것처럼 재미도 있고 박자 맞추기에도 도움이 된다.

진도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차근차근 나가면서 본인이 하는 만큼 나가고 천천히 하면 좋겠다고 한다. 배우는 순서를 민요부터 배우는 것이 좋냐고 물으니 일반사람이 아는 음악이어서 좋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장소에 가서라도 한 곡정도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 여도 본인이 심취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면 좋겠다고 한다. 정서상 공감 가는 소리이나 악기를 통해 그 소리를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반복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다) 제재곡 선정

연주곡에 대하여는 잘 모르지만 들어서 좋은 음악으로 구성지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귀에 익숙한 민요를 배우고, 반주음악 CD가 있는 칠갑산 등을 배우니 평상시에도 흥얼거리져 생활이 즐겁고 활기차다고 하였다.

(라)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변경 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부록9>에 수록하였다. 수강생들의 최종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지도수준은 대체적으로 다양하였으며, ‘전공자 수준’ 4점, ‘고급 수준’ 3점, ‘중급’ 2점, ‘초급’ 1점으로 하여 점수화한 결과, 중급수준이었다.

변경된 프로그램 만족도는 변경된 내용인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악보보기, 운지법, 시김새, 박자 익히는 방법, 음악 배우는 순서, 이론 병행, 진도 등이며, 각 문항은 ‘매우 좋다’ 5점, ‘대체로 좋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좋지

않다’ 2점, ‘전혀 좋지 않다’ 1점을 주는 Likert 5단계 등위척도로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의 변경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는 4.19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중에서는 박자와 음악 선곡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악보 보기는 학교에서 음악교육을 받을 때 주로 오선보를 배우는 관계로 정간보를 보는 훈련이 부족하여 오선보와 정간보를 연계하여 연주하는 부분을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으며, 운지법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익숙한 방법이 다르므로 병행하여 지도할 경우 수강생의 각각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한다. 박자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므로 무릎장단이나 강사의 구음 등을 병행 하면 좀 더 쉽다고 한다. 음악선곡에 있어서 소리내기와 간단한 연습곡이 끝나면 민요나 가요를 배우는 것에 흥미를 가졌다. 자리에 일어서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소리가 만족스럽게 잘 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다. 쉬운 이론의 설명은 대금을 배우려면 알아야 하니까 병행해서 배워도 좋겠다고 한다. 진도는 나이가 들다보니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면서 천천히 세밀하게 지도하는 방법이 좋다고 한다. 프로그램 시행 후 보완점으로 지적된 것은 가르칠 때 강사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 수강생을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18> 수강생들의 변경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항목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악보 보기	오선보와 정간보 병행	3.83	0.75
운지법	계이름, 율명, 손가락 번호 병행	4.17	0.41
시김새	연습곡부터 한 두 개씩 배움	4.00	0.63
박자	악보, 무릎장단, 강사의 구음 등을 병행하여 익힘	4.50	0.55
음악선곡	초보 단계에서 민요와 가요를 배움	4.50	0.84
이론	음악에 관련된 이론 병행	4.00	0.63
진도	천천히 세밀하게 지도	4.33	0.52
전체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4.19	0.44

나. 전문교수자의 서면평가

최종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금 전문연주자이자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평가를 받아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교수-학습 이론 전문가가 아니므로 한계는 있지만 현장에서 대금연주 지도를 오래 해 온 실천가들로서 그들의 실천적 지식을 존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전문교수자의 서면평가 자료는 <부록 10>으로 첨부하였다.

(1) 교육내용

전문교수자들은 대체로 악기, 이론, 악보, 연주기법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먼저, 악기의 경우, 1차 프로그램 정악대금에서 2차 프로그램 산조대금 5관청으로 바꾸어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적절하였는지를 알아본 결과, 2차 수업에 적용되는 악기는 1차 수업 때 악기보다 관이 짧고, 크기도 작으며, 지공 간격이 짧아서 소리 내기가 좀 더 수월하니 적절하다고 하였다.

수업진행시 음악에 관련된 이론을 병행하였는데 적절한지 알아본 결과, 한국음악을 깊이는 아니더라도 이야기하는 수준의 이론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금은 실기이지만 이론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음악과 이론을 병행하면 음악적인 사고부분도 넓어지며 음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업 방법이라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음악을 연주 하는 것 보다는 그 음악의 이론을 알려주며 음악을 익히는 게 수강생들에게는 더 빨리 이해가 되므로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연주기법에서 소리내기는 1차 프로그램은 6주 소리내기, 2차 프로그램은 5주 소리내기를 하였는데 적절하였는지를 알아본 결과, 소리내기가 가장 중요한 수업이기에 아무래도 손가락도 잘 잡히고 하니 빠른 소리내기가 적절하다고 본다. 2차 수업에 적용되는 악기는 1차 프로그램 때 보다 관도 짧고 지공도 짧아서 좀 더 소리 내기가 수월하고,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의 소리내기는 2~3개월 걸리므로 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악보는 오선보와 정간보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전공생이 아닌 이상 오선보가 정간보보다 익숙하다. 하지만 국악기를 배우는데 오선보로만 연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오선보와 정간보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간보를 보고 익히기에는 무리가 있어 비전공자에게 익숙한 오선보와 정간보를 병행하며 수업을 진행하니 좀 더 이해를 빠르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쉬운 장식음, 부호들을 익히게 하였는데 적절한지 알아본 결과, 음악의 세부적인 요소인 장식음과 부호를 접하게 한 것은 성인학습자들에게도 쉬운 장식음과 부호를 익히게 한 것은 적절하다고 했다. 장식음 경우는 혼자 익혀서 오는 학습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배우러 오는 학습자들이 많다. 연필로 작게 악보에 표시해 두며 외우게 하며 익히는 게 효과적이다. 장식음과 부호를 익히지 않는다면 후에 다른 곡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2) 교수-학습방법

진도는 천천히 세밀하게 지도하였는데 적절하였는지를 알아본 결과, 더욱 천천히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성인학습자는 전공자가 아니므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성인 학습자는 한 곡을 제대로 배우려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3) 제재곡 구성

곡 선정면에서 초보 단계에 민요, 가요 등을 익히게 하였는데 적절하였는지를 알아본 결과, 가장 한국적이고 서민적인 민요와 대중적인 가요는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았다. 취미활동은 익숙한 것에서 시작하고 우선 알고 있는 노래는 악기로 연주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적절한 곡 선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성인학습자들이 원하는 곡 중에 난이도가 있는 곡을 선정하면 학습자 위치에서 목표가 생기기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하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 프로그램 수정

위와 같이 2차 적용 후 프로그램 평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자 계획하였다.

(1) 교육내용

첫째, 악기는 2차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산조대금 5관청을 본청으로 사용하였다. 소리내기가 쉬워져 차시가 더 앞 당겨졌고 이는 진도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제기한다.

둘째로, 악보는 1, 2차와 마찬가지로 오선보와 정간보를 동일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초보 성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율명과 계명을 함께 적어 주기도 하고 정간보 칸 옆에 율명과 계명을 함께 적어 주며 서로 연계성을 찾도록 하면서 수업 진행을 천천히, 여러번 반복하며 자세하게 설명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셋째, 최종안에서도 5지공을 사용하는 운지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산조대금이 정악대금보다 작고, 가늘어서 손가락의 지공 막는 법의 사용이 편해져 소리내기가 쉬워져 진도도 더 빨리 나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김새(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는 어렵지만, 대금을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배우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2차와 마찬가지로, 대금을 연주 할 때 장식음 등 시김새가 없으면 전통음악의 특징이 없으며 대금의 고유한 맛이 나질 않기 때문이다.

(2) 교수-학습방법

박자의 경우, 2차와 달리 연구자가 구음으로 박자 맞추는 것을 녹음하게 하고, 체재곡 들려 줄때는 연주하는 손가락 움직임의 중심으로 동영상을 찍게 하여 귀가 해서 어느 때든지 혼자서도 박자를 맞추며 연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매체(악보, DVD, CD, 반주음악)들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동기 유

발을 위해서 노력하며 수업에 흥미를 주고 또한 성인학습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전통음악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제재곡 구성

최종안에서는 2차 프로그램과는 달리 관심과 열의가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과정이 끝나면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의 즐거운 생활 2-1, 2-2에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어렸을 때 자주 부르고 놀았으며 반복적인 리듬과 단순한 선율 구조의 전래동요 꼭꼭 숨어라, 월어리 청청, 어깨동무(국립민속국악원, 2004)를 추가하여 구음으로도 흥얼거릴 수 있게 하였다. 민요는 2차에서와 똑같이 구성하였고, 소리대기가 쉬워지면서 가요로 칠갑산 외에 천년바위를 추가 구성할 수 있었다. 천년바위는 성인들이 좋아하는 가요이기도 하고, 조 구성 자체가 대금으로 연주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4) 수정된 프로그램 개요

위와 같은 2차 적용된 프로그램과 수정된 프로그램 계획을 개괄적으로 비교하면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2차 적용된 프로그램과 수정된 프로그램 계획 비교

차시	2차 프로그램	최종 프로그램
1차시	악기는 플라스틱 산조대금 준비	악기는 2차와 동일
2차시	산조 대금의 오관 본청 사용. 소리를 내기위한 왼손가락 2개, 오른손장지 4공 지공 막는 운지법 설명.	산조 대금의 오관 본청 사용. 소리를 내기위한 왼손가락 2개, 오른손장지 4공 지공 막는 운지법 설명.
3차시	지공을 왼손 식지 1공, 장지 2공 까지 막고, 오른손 장지 4공, 식지 3공, 무명지 5공을 막으니 지공이 쉽게 막아져 소리가 용이하게 남.	지공을 왼손 식지 1번, 장지 2공 까지 막고, 오른손 장지 4공, 식지 3공, 무명지 5공을 막으니 지공이 쉽게 막아져 소리가 용이하게 남. 평취 음역의 전체 음정을 소리내기

4차시	평취 음역의 전체 음정을 소리내기, 율명, 음계알기 (지공 전체를 막게 함).	저취 음정 전체 소리내기, 율명, 음계알기
5차시	저취 음정 전체 소리내기, 율명, 음계알기	평취, 저취, 역취 음정 소리 내기, 전체 율명, 음계 알기
6차시	평취, 저취, 역취 음정 소리 내기, 전체 율명, 음계 알기	정간보 읽는 법과 연습곡 1, 2번 진도 나가기
7차시	정간보 읽는법과 연습곡 1, 2번 진도 나가기	쉬운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 익히며 연습곡 3, 4번
8차시	쉬운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 익히며 연습곡 3, 4번	꼭꼭 숨어라, 월어리 청청
9차시	아리랑	어깨동무, 아리랑
10차시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
11차시	널리리아	널리리아
12차시	칠갑산	칠갑산, 천년바위
13차시	한오백년	한오백년
14차시	아리랑,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 널리리아, 칠갑산, 한오백년 전체 연습하고 나서 연주곡 연습	아리랑,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 널리리아, 칠갑산, 천년바위, 한오백년 전체 연습하고 나서 연주곡 연습
15차시	연주 및 감상	연주 및 감상


제5장 프로그램 최종안 개발

제1절 최종안 교수-학습 과정안

1차와 2차 프로그램 적용 과정을 거쳐 2차 수정 계획에 따라 최종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였다. 이 절에서는 최종 15차시 수업지도안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단원명	대금의 이해	차시	1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 대금의 종류를 안다. • 청성곡을 듣고 대금소리를 이해한다. 			
주요활동	학습자들과 서로 친해지기, 대금의 전반적 이해, 대금 연주곡 감상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친해지기 • 본시 안내 •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를 소개하며 인사한다. • 출석을 확인한다. • 학습자들 개별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며 대금을 배우러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 • 앞으로 15차시 수업 진행에 대하여 설명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강사가 먼저 대금독주곡 ‘청성곡’을 들려주며 대금의 소리를 이해시킨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부 - 대금 - 대금 독주곡 ‘청성곡’CD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이해 	<p>대금이란 무엇인가?</p> <p>대금(大笏) : 신라 삼죽의 하나. 쯤대라고도 한다. 삼죽은 대금(大笏), 중금(中笏), 소금(小笏)을 가리키며, 대금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황죽, 또는 쌍골죽(雙骨竹)으로 만드는 데, 살이 두껍고 단단하여 맑고 여무진 소리가 나는 쌍골죽을 더욱 즐겨 쓴다. 원래는</p>	15분	<p>대금</p> <p>→ 대금의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인 개관을 갖고 대금교육의 맥락을 파</p>

	<p>●악기 준비 방법</p>	<p>취공(吹孔) 1, 청공(淸孔) 1, 지공(指孔) 6, 칠성공(七星孔) 5가 있었으나, 현재는 칠성공의 제도는 일정치 않다. 저취(低吹)·평취(平吹)·역취(力吹)에 의하여 2옥타브 반에 이르는 넓은 음역을 가졌고, 부드러운 저취, 청아한 평취, 갈대청의 진동을 곁들여 장쾌한 역취 등 그 음빛깔의 변화가 다양하여 독주 악기로 애용된다.</p> <p>●종류별 대금 등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설명한다.</p>  <p>정악대금은 길이가 약80cm에 내경이 2cm가 넘는 굵고 긴 가로저이다. 산조대금은 약 70cm에 내경이 1.8cm정도 정악대금보다는 조금 작고 가늘다.</p> <p>첫 마디에 취구(吹口)가 있고 다음 마디에 청공(淸孔)이 있어 가부(葭葦)라고 하는 갈대 속 청(精)을 붙여 진동시킴으로서 맑은소리를 더욱 청청하게 울려 내게 하며 그 아래로 있는 여섯 지공(六指孔)을 왼손 검지, 장지, 무명지로는 마디를 구부려 세워 손끝으로 一, 二, 三공, 오른손 검지, 장지, 무명지로는 펴서 四, 五, 六공을 각각 율에 따라 여달아 소리를 낸다.</p> <p>여섯 음공 아래로 칠성공(七星孔)이라는 다섯 개의 불용공이 있었으나 그 수에는 제약이 없고 다만 음정과 체제 미장의 조화작용을 할뿐이다.</p> <p>운지법과, 소리내기, 율명 등은 정악대금과, 산조 대금이 동일하고 크기와 지공간격이 다르다.</p> <p>- 정악대금, 산조대금, 5관반대금(D key), 5관대금(E^b key)등</p> <p>●모두 대금이 준비 되지 않았으므로 플라스틱 대금 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p> <p>- 악기사들과 인터넷 구입처 등</p>	<p>악.</p> <p>→ 대금 종류, 구조 및 명칭, 연주자세, 호흡법, 입술의 모양과 위치, 소리 내기 등 기초적인 이론과 악기를 보여 주며 악기 연주.</p>
<p>표현 방법 탐색</p>	<p>●연주 자세 설명하기</p>	<p>●처음 소리내기를 할 때는 악기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소리내기를 해야 한다.</p> <p>●전통음악의 연주 자세는 일반적으로 방석이나 돛자리위에 앉아서 연주를 한다. 먼저 자연스럽게 앉아서 허리를 똑바로 편 다음, 머리는 약45도 정도로 좌로 돌리고 고개를 약간 숙인다. 시선은 전방 약</p>	<p>30분</p> <p>→의자에 앉아서 하기 때 문에 의자에 앉는 바른 자세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의 설명하기 	<p>15도 아래로 본 다음, 악기를 가볍게 쥐고 수평으로 든다. 연습을 하다 보면 팔에 힘이 빠져 악기가 쳐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수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 청의 역할과 쓰임새에 대해서 설명한다. - 채취시기 및 채취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 갈대청을 보여주며 붙이는 순서와 방법을 설명하고 실제로 대금에 붙여 보인다. - 붙여진 청소리가 어떻게 울리는 가 대금을 연주하여 들려준다. - 청가리개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p>→ 대금의 청은 갈대속에 붙어있는 얇은 막으로 음력 5월 5일 단오를 기준으로 1~2주 전후하여 채취하는 시기가 적당함을 설명.</p>
	창의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성곡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 독주곡 '청성곡'을 대금정악 인간문화제인 조창훈선생님의 연주곡을 CD로 들려주며 대금의 아름다운 소리를 느끼도록 한다. 	15분	
정리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과제 제시 ● 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준비 부탁하고 수업을 정리 한다. ● 악기가 준비 되면 소리내기 연습해오기 과제 제시 한다. ● 형성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대금을 이해하는가? 2. 대금의 종류를 알아서 각 악기들을 구별 할 수 있는가 ? 3. 청성곡을 듣고 대금의 소리를 이해 할 수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20분	<p>→악기가 준비 되면 소리내기 연습</p>

단원명	대금 소리내기	차시	2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 부는 방법, 소리내기, 호흡법 등을 안다. • 대금의 음역에 대해서 안다. • 12울명, 음정과 음계를 안다. 																																																											
주요활동		대금 부는 방법, 소리내기, 호흡법, 음역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분위기 조성 • 전시학습 확인 • 손가락 유연성 기르기 • 대금소리내기 • 분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대금이 준비 되었는지 확인한다. •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입을 벌려서 아~, 에~, 이~ 하고 소리를 내보며 입술 끝에 힘을 주어 입술이 퍼지게 한다. • 대금을 두 손으로 받치고 휘~ 하고 소리 내기를 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플라스틱 산조대금 -대금의 안공표 ->소리내기전의 바른 입술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조대금 5관청 안공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조대금 5관청 안공표 • 12울명 알기 	<p><산조대금 5관청 안공표></p> <p style="text-align: center;">○ ... 열기 ● ... 닫기</p>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원손┐ ┌오른손┐</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취구 청공 1공 2공 3공 4공 5공 6공 칠성공</p> <p>평취(중간소리)</p> <table style="margin: 0 auto;">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潢(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汰(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洵(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淋(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瀟(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able> <p>• 손잡는 방법 원 손 (1) 제1공: 식지</p>	○	○	○	○	○	○	○	○	○			1	2	3	4	5	6	潢(황)	●	●	●	●	●	○		汰(태)	●	●	●	●	○	○		洵(중)	●	●	○	●	○	○		淋(임)	●	○	○	○	●	○		瀟(남)	○	○	○	○	●	○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지법을 설명 • ->울명과 계이름을 연계하여 외워지도록 지도 ->지공을 손가락 번호로
		○	○	○	○	○	○	○	○	○																																																			
		1	2	3	4	5	6																																																						
潢(황)	●	●	●	●	●	○																																																							
汰(태)	●	●	●	●	○	○																																																							
洵(중)	●	●	○	●	○	○																																																							
淋(임)	●	○	○	○	●	○																																																							
瀟(남)	○	○	○	○	●	○																																																							

		<p>오른손</p> <p>(2) 제2공: 장지 (3) 제3공: 식지 (4) 제4공: 장지 (5) 제5공: 무명지 (6) 제6공: 열어 놓는다.</p> <p>() 안의 숫자는 대금을 배울 때 지공을 쉽게 기억 할 수 있도록 손가락을 번호로 붙여 보았다. 몇 번째 손가락 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몇 공을 열고 막아주세요 하면 쉽게 기억한다.</p> <p>• 12울명의 음정과 음계를 안다. - 12울명, 음정과 음계 전통음악도 서양음악과 마찬가지로 한 옥타브 내에 모두 12음정을 가지고 있으며 음과 음사이가 반음(半音)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음악에서는 주음(主音 : 으뜸음)또는 본청이라고 하며 황종(黃鐘)을 기본음으로 삼으며, 이 음은 서양음악의 내림 마 (E^b)이다. 대금 악보 즉 정간보에서는 음이름 앞에 인(인)이 붙으면 옥타브 아래 음이고 수(수)가 앞에 붙으면 한 옥타브 위음이 되고 (수) 두 개가 붙으면 두 옥타브 위음이 된다. - 전통 음악의 12울명과 오선보 <12울명></p> 	<p>설명.</p> <p>→대금도 반음이 있다는 것을 설명.</p>
표현 방법 탐색	<p>• 소리내기</p>	<p>• 대금을 두 손으로 바치고 휘~ 하고 소리 내기를 하여 소리가 나면 대금 연주하는 자세로 대금을 들고 다시 휘~ 하고 분다.</p> <p>• 부는 방법은 소리가 나는 원리는 취구(吹口)에 입김이 들어가 돌로 갈라져서, 반은 밖으로 나가고 반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공명(共鳴)이 되어 소리를 만들어 낸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일치시킨 다음, 아랫입술을 주름이 없이 펴고, 취구가 아랫입술 한 가운데 위치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가볍고 약하게 휘-하고 입김을 불어 넣는다. 초보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자기의 입술 위치 어디에 취구를 하면 소리가 잘 나는 지를 파악하여 방법을 찾는 것도 소리를 빨리 나게 할 수 있다. 대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까지에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p>	<p>30분</p> <p>→바른 입김 넣기와 바른 입술 모양 만들기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법 • 시범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내기에서는 평취음이 가장 쉽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먼저 양 입술에 힘을 주면서 양손으로 바르게 악기를 쥐고, 취구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휘~ 하고 소리를 낸다. 취구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불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대금 연주 할 때의 자세로 하고 소리 내기를 한다. 초보자들은 소리내기 연습을 많이 하면 현기증이 일어나므로 쉬어 가면서 소리내기를 한다. 반복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현기증도 사라진다.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휘~하고 입김을 내 뱉지 않기 때문이니 걱정 할 것은 없다. 먼저 평취음을 배우는 이유를 설명하고 소리 내면서 울명이 외워지도록 한다. • 호흡법은 복식호흡을 하도록 하는데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숨을 들이 쉴 때 코와 입으로 재빨리 숨을 들이 쉰 다음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천천히 가늘게 내 뱉으면서 소리를 내 쉬어 연습하도록 하고 몇 번이고 반복 연습을 하여 익숙해지도록 연습한다. • 대금으로 시범연주를 보여준다. - 시범 연주를 보여 주면서 음정을 알게 하기 위하여 천천히 들려주고 반복하여 들려준다. •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p>→ 평취음의 소리 내기의 유리한 점을 설명.</p> <p>→ 복식 호흡할 때 주의사항을 설명.</p> <p>→한글로 적어 놓은 울명과 게이름은 외워지면 지우도록 설명.</p>
창의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용석류 산조 중 진양조 감상 • 녹음하기 • 개별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으로 휘~ 하고 소리를 내면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잠시 쉬어 가는 시간으로 대금산조 진양조를 들려주며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게 한다. •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한다. • 구음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연주해 준 것을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p>15분</p> <p>→누구나 처음은 현기증이 나므로 꾸준한 연습 필요. →녹음, 동영상 촬영은 혼자 연습 할 수 있는 자료.</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및 과제 제시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함께 소리내기를 한다. • 녹음을 듣고 음정을 잊지 않고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 형성평가 1. 대금 부는 방법, 소리내기, 호흡법 등을 아는 가? 2. 대금의 음역에 대해서 아는가? 3.12울명, 음정과 음계를 아는가?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p>20분</p> <p>→음정을 기억 하는 것도 중요.</p>

단원명	평취음: 滹(남), 淋(임), 泚(중), 태(汰) = F , 황(潢) = E ^b	차시	3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음: 滹(남), 淋(임), 泚(중), 태(汰) = F , 황(潢) = E^b, 음을 안다. • 율명과 계이름을 안다.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음: 滹(남), 淋(임), 泚(중), 태(汰) = F , 황(潢) = E^b 소리내기, 율명, 계이름 연계하여 외우기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분위기 조성 • 손가락 유연성 기르기 • 대금소리내기 • 전시학습 확인 • 본시 안내 • 평취음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대금소리내기 • 지난 차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출석부 -대금 -대금 안공표 (율명과 계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음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평취음을 안다. - 대금의 평취음: 滹(남) = C, 淋(임) = B^b, 泚(중) = A^b, (汰) = F , 황(潢) = E^b, 음을 알고 소리를 낸다. - 滹(남) = c 음은 손가락을 다 열고, 淋(임) = B^b은 왼손 식지1공 막고(1공이라 칭), 泚(중) = A^b은 오른손 식지2공 막고(2공이라 칭), 장지4공 막고(4공이라 칭), (1,2,4공이라 칭), 태(汰)=F는 왼손 검지 1공, 장지 2공, 오른손 검지 3공, 장지4공까지 막고 (1,2,3,4공이라 칭), 황(潢)= E^b은 왼손 검지 1공, 장지 2공, 오른손 식지3공, 장지4공, 무명지5공까지 막고 (1,2,3,4,5공이라 칭), 음이 아래로 내려 갈수록 입김을 부드럽고 깊게 불면서 조심스럽게 소리를 낸다. 	15분	→ 평취음 (중간 단) 소리내기를 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지공을 열어 위 음 소리를 내고 나서 아래 음을 내도록 해야 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음 운지법 	<p><평취음 운지법></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潢(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汰(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泚(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淋(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滹(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1	2	3	4	5	6	潢(황)	●	●	●	●	●	○	汰(태)	●	●	●	●	○	○	泚(중)	●	●	○	●	○	○	淋(임)	●	○	○	○	○	○	滹(남)	○	○	○	○	●	○	30분	→ 복식 호흡은 음 하나 하나에 숨이 다할 때까지 길게 불면서
	1	2	3	4	5	6																																								
潢(황)	●	●	●	●	●	○																																								
汰(태)	●	●	●	●	○	○																																								
泚(중)	●	●	○	●	○	○																																								
淋(임)	●	○	○	○	○	○																																								
滹(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명과 게이름 알고 대금으로 붙어 보기 • 시범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 음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평취음: 漙(남) = C, 淋(임) = B^b, 泅(중) = A^b, 태(汰) = F, 황(潢) = E^b 음의 반복 연습을 하여 소리가 나게 하며 울명도 함께 익히게 한다. - 평취음을 들려주고 정확한 음 높이를 익히게 하면서 소리를 내며 울명도 함께 외워지게 한다. • 울명 게이름을 따라서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가 울명으로 남~ 임~ 중~ 태~ 황~ 하고 호흡이 다 할 때 까지 한음씩 소리 내도록 구음으로 불러주면 학습자들은 대금으로 따라서 연주 하고 나서 오선보를 보며 게이름으로 라~ 솔~ 미~ 레~ 도~ 구음으로 불러주면 학습자들이 마찬가지로 대금으로 연주 하게 한다. •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 대금으로 시범연주를 보여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연주를 보여주면서 음정을 알게 하기 위하여 천천히 들려주고 반복하여 들려준다. 	소리를 내도록 지도.	
	창의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조 중 중머리 감상 • 반복연습 • 녹음하기 • 개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을 많이 하다보면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잠시 쉬어 가는 시간으로 대금연주 음반으로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 중머리를 들려주며 쉬게 한다. • 소리내기가 어렵고, 손가락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천천히 반복 연습을 하게한다. • 구음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연주해 준 것을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 동영상 촬영은 호자 연습 할 수 있는 자료. → 그룹별 수업과 개인별 수업을 진행.
정리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과제 제시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같이 평취음을 연주한다. • 녹음에 맞추어 평취음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 형성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취음: 漙(남), 淋(임), 泅(중), 태(汰) = F, 황(潢) = E^b 을 아는가? 2. 게이름과 울명을 이해하였는가?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20분	→ 많은 반복 연습 요구.

단원명	저취음: 黃(황) = E ^b , 太(태) = F, 仲(중) = A ^b , 林(임) = B ^b , 南(남) = C	차시	4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취음: 黃(황) = E^b, 太(태) = F, 仲(중) = A^b, 林(임) = B^b, 南(남) = C 음을 안다. 바른자세와 운지법을 익힌다. 		
주요활동		저취음 전체를 연습, 대금 연주곡 감상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전개	도입 감각적 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지난 차시에 배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출석부 -대금 -대금 안공표 (울명과 계이름)
	기초기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의 저취음을 안다. 대금의 저취음 : 南(남)=C, 林(임)=B^b, 仲(중)=A^b, 太(태)=F, 黃(황)=E^b 음을 안다. 음이 아래로 내려 갈수록 입김을 부드럽고 깊게 불면서 조심스럽게 소리를 낸다. 저취음이 고르게 소리 나게 한다. 바른 자세와 운지법을 익힌다. 대금의 지공을 정확하게 막을 수 있도록 왼손, 오른손가락에 힘을 주지 말고 지공 위에 약 1cm 정도 간격으로 열고 운지를 하도록 연습 한다. 	15분	→대금의 지공 왼손, 오른손가락 바른 자세와 운지법은 정확하고, 손가락은 지공 위에 약 1cm 정도 떼어 운지를 하도록 지도.
표현방법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명과 계이름으로 붙여보기 시범 대금 연주 저취음 운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계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울명과 계이름을 구음에 맞춰서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먼저 강사가 울명으로 남~ 임~ 중~ 태~ 황~ 하고 호흡이 다 할 때 까지 한음씩 소리 내도록 구음으로 불러주면 학습자들은 대금으로 따라서 연주 하고 나서 오선보를 보며 계이름으로 라~ 솔~ 미~ 레~ 도~ 구음으로 불러주면 학습자들이 마찬가지로 대금으로 연주 하게 한다. 대금으로 저취음 전체 시범 연주를 보여준다. 	30분	→이해하면 지우기 →호흡법을 길게.

		<p>- 시범 연주를 보여주면서 음정을 알게 하기 위하여 천천히 들려주고 반복하여 들려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저취음(낮은음)></p>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黃(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太(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仲(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林(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南(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1	2	3	4	5	6	黃(황)	●	●	●	●	●	○	太(태)	●	●	●	●	○	○	仲(중)	●	●	○	●	○	○	林(임)	●	○	○	○	●	○	南(남)	○	○	○	○	●	○		<p>→같은 지공에서 옥타브 위·아래 음정 낼 때 입김 주의.</p>
	1	2	3	4	5	6																																								
黃(황)	●	●	●	●	●	○																																								
太(태)	●	●	●	●	○	○																																								
仲(중)	●	●	○	●	○	○																																								
林(임)	●	○	○	○	●	○																																								
南(남)	○	○	○	○	●	○																																								
	창의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조 중 중중머리 감상 • 대금연주 녹음하기 • 개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을 많이 하다보면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잠시 쉬어 가는 시간으로 대금연주 음반으로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 중중머리를 들려주며 쉬게 한다. •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한다. • 구음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연주해 준 것을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15분	<p>→녹음, 동영상 촬영은 혼자 연습 할 수 있는 자료.</p> <p>→그룹별 수업과 개인별 수업을 진행.</p>																																									
정리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과제 제시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같이 평취음, 저취음 전체를 연주한다. • 녹음에 맞추어 평취음, 저취음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 형성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취음과 저취음을 구별 할 수 있는가? 2. 계이름과 율명을 서로 연계하여 이해하였는가?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20분	<p>→많은 반복 연습 요구.</p>																																									

단원명	역취음 황(潢) = E ^b , 태(湫) = F	차시	5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수(弔)변이 두 개가 율명 앞에 붙으면 옥타브 윗음이라는 것을 안다. 대금의 역취음, 황(潢) = E^b, 태(湫) = F 음을 익힌다. 저취음, 평취음, 역취음 전체를 안다. 바른 자세와 운지법을 익힌다. 																							
주요활동		저취음, 평취음, 역취음 전체 연습, 대금 연주곡 감상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유의사항(-) 및 학습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분위기 조성 손가락 유연성 기르기 대금소리내기 전시학습 확인 본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평취, 저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지난 차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출석부 -대금 -대금 안공표 (율명과 게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취음 알기 입김세기 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潢) = E^b 음은 1,2,5 공을 막고, 태(湫) = F 음은 1,5공을 막아서 세계 입김을 불어 넣어야한다. 역취음은 운지법이 달라지므로 소리내기를 하면서 율명과 게이름 외우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서 익힌다. 역취음을 낼 때 입김을 세계 불기가 어려우므로 입술 끝에 힘을 주어 입술을 팽팽하게 만들고 입김을 입술 가운데로 모아서 세계 불면 쉽게 소리가 난다. 평취음, 저취음과 역취음을 들려주고 정확한 음 높이를 익히게 하고 소리를 내며 율명도 함께 외워지게 한다. 평취음, 저취음과 역취음의 입김 넣는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 불수 있도록 한다.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율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15분	→초보자들은 역취음의 입김을 세계 불기가 어려우므로 입술 끝에 힘을 주어 입술을 팽팽하게 만들고 입김을 입술 가운데로 모아서 세계 불면 쉽게 소리가 난다.																					
표현 방법	역취음 운지법	<역취음 (높은단) 운지법> <table style="margin-left: 40px;"> <tr> <td></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td> </tr> <tr> <td>潢(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湫(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1	2	3	4	5	6	潢(황)	●	●	○	○	●	○	湫(태)	●	○	○	○	●	○	30분	→ 평취음, 저취음, 역취음 구별
	1	2	3	4	5	6																			
潢(황)	●	●	○	○	●	○																			
湫(태)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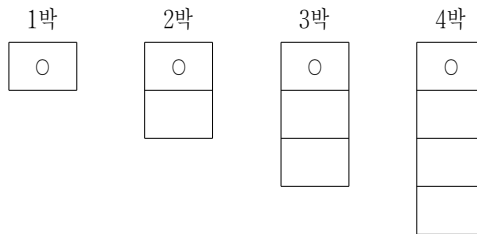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명과 게이름으로 불러보기 •시범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명과 게이름을 따라서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 먼저 강사가 울명으로 황~ 태~ 하고 호흡이 다 할 때 까지 한음씩 소리 내도록 구음으로 불러주면 학습자들은 대금으로 따라서 연주 하고 나서 오선보를 보며 게이름으로 도~ 레~ 구음으로 불러주면 학습자들이 마찬가지로 대금으로 연주 하게 한다. • 대금으로 평취음 전체 시범 연주를 보여준다. - 시범 연주를 보여주면서 음정을 알게 하기 위하여 천천히 들려주고 반복하여 들려준다. 	<p>→입김의 세기를 잘 조절하면서 반복 연습.</p> <p>→힘들다고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p>	
	창의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조 중 자진머리 감상 •대금연주 녹음하기 •개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을 많이 하다보면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잠시 쉬어 가는 시간으로 대금연주 음반으로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 자진머리를 들려주며 쉬게 한다.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한다. •구음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연주해 준 것을 녹음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p>15분</p> <p>→녹음, 동영상 촬영은 혼자 연습 할 수 있는 자료. →그룹별 수업과 개인별 수업을 진행</p>
정리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정리 •과제 제시 •형성평가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같이 평취음 전체를 연주한다. •녹음에 맞추어 평취음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형성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취음, 평취음, 역취음 전체를 구별하여 소리를 낼 수 있는가? 2. 게이름과 울명을 서로 연계하여 이해하였는가? •다음 차시 예고한다.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p>20분</p> <p>→많은 반복 연습 요구.</p>

단원명	정간보와 오선보의 연습곡 1, 2번	차시	6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간보와 오선보의 차이점을 안다. 연습곡을 익히면서 박자, 계이름, 율명을 익힌다. 		
주요활동		연습곡 악보 읽기 및 연주, 대금 연주곡 감상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분위기 조성 손가락 유연성 기르기 대금소리내기 전시학습 확인 본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평취, 저취, 역취까지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지난 차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대금 -대금 연습곡1, 2번 (정간보와 오선보)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간보 알기 악보 읽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간보의 뜻과 읽는 순서 익히기, 정간보 각 부분의 명칭을 익힌다. - 정간보의 뜻 정간보란 우물정(井)자 모양인데 여러 개의 음명을 적어 넣어 음정의 높고 낮음과 박자를 표시한 악보로, 한 칸[一井間]을 한 박으로 쳐서 음의 시가(時價)를 나타내는 세종대왕이 창안하신 우리나라 고유의 악보이다. 정간보의 세로 한 줄을 1 행(行), 또는 1 각(刻), 혹은 1 장단(長短)이라 부른다. 또 한 각에서 큰 구분을 하는 경우(굵은 줄로 나눈 경우)에는 대강(大綱)이라 부른다. - 악보 읽는 방법 정간보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 간다. 그리고 맨 오른쪽 줄에서 왼쪽으로 읽어간다. (옛날 신문, 고서 등과 읽는 방법이 같다.) 정간 안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 기보 방법 정간보는 1정간 1박이 기본이다. 그리고 1정간을 1/2, 1/3, 1/4, 1/6, 1/9, 1/12박의 시가로 나뉜다.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습곡의 속도 조절이 필요. →정간보 읽기와 오선보 읽기의 이해.

게 된다. 크게, 이분식 기보법과 삼분식 기보법으로 나뉜다. 이분식 기보법은 2박자 계열이고 삼분식 기보법은 3박자 계열이다.

한 정간에 한음이 있는 경우 온전한 한음이고 한 정간에 두음이 있는 경우 반박을 나뉘게 된다.



한 정간의 박자 세는 법

한 정간 안에 세로로 줄이 몇 칸이냐에 따라 나누는 박이 다르고 가로로 음이 복수로 있는 경우 나누는 박에서 다시 박을 나눈다. 한 정간을 4분 음표나 점 4분 음표냐에 따라 서양식으로 박자를 나누는 것이 달라지는데 흔히, 이분식은 4분 음표, 삼분식은 점4분음표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표기가 있는 경우는 전에 있는 박을 연장한다는 의미이고 삼각형(△)이 있는 경우는 쉼표를 의미한다. 그리고 쇠가를 변하게 하기 위하여 덧길, 반길이 부호가 있다. 덧(|)길이는 음을 1/2 늘이고 반(·) 길이는 음을 1/2로 줄인다.

정간보 2분식 기보법의 방법

① ②	1/2+1/2		① ②③	1/4+1/4+1/2	
① -②	3/4+1/4		①② -③	1/4+1/2+1/4	
①② -	1/4+3/4		①② ③④	1/4+1/4+1/4+1/4	

→정간보의 박자 나누는 방법을 설명.

→정간보와 오선보의 기보법을 기초부터 가르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정간보 3분식 기보법의 방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② 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3 +1/3</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 ② ③④</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3+ 1/6+1/6</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 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2/3+1/3</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 ②③ ④</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6+ 1/6+1/3</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② -</td> <td style="text-align: center;">1/3+2/3</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② ③ ④</td> <td style="text-align: center;">1/6+1/6+ 1/3+1/3</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② - 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1/6+1/2 +1/3</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② ③④ ⑤</td> <td style="text-align: center;">1/6+1/6+ 1/6+1/6+ 1/3</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② ③ -</td> <td style="text-align: center;">1/6+1/6 +2/3</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② ③ ④⑤</td> <td style="text-align: center;">1/6+1/6+ 1/3+1/6+ 1/6</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 -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5/6+1/6</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 ②③ ④⑤</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6+ 1/6+1/6+ 1/6</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② 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1/2+1/6 +1/3</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② ③④ ⑤⑥</td> <td style="text-align: center;">1/6+1/6+ 1/6+1/6+ 1/6+1/6</td> <td></td> </tr> </table>	① ② ③	1/3+1/3 +1/3		① ② ③④	1/3+1/3+ 1/6+1/6		① - ②	2/3+1/3		① ②③ ④	1/3+1/6+ 1/6+1/3		① ② -	1/3+2/3		①② ③ ④	1/6+1/6+ 1/3+1/3		①② - ③	1/6+1/2 +1/3		①② ③④ ⑤	1/6+1/6+ 1/6+1/6+ 1/3		①② ③ -	1/6+1/6 +2/3		①② ③ ④⑤	1/6+1/6+ 1/3+1/6+ 1/6		① - -②	5/6+1/6		① ②③ ④⑤	1/3+1/6+ 1/6+1/6+ 1/6		① -② ③	1/2+1/6 +1/3		①② ③④ ⑤⑥	1/6+1/6+ 1/6+1/6+ 1/6+1/6		
① ② ③	1/3+1/3 +1/3		① ② ③④	1/3+1/3+ 1/6+1/6																																									
① - ②	2/3+1/3		① ②③ ④	1/3+1/6+ 1/6+1/3																																									
① ② -	1/3+2/3		①② ③ ④	1/6+1/6+ 1/3+1/3																																									
①② - ③	1/6+1/2 +1/3		①② ③④ ⑤	1/6+1/6+ 1/6+1/6+ 1/3																																									
①② ③ -	1/6+1/6 +2/3		①② ③ ④⑤	1/6+1/6+ 1/3+1/6+ 1/6																																									
① - -②	5/6+1/6		① ②③ ④⑤	1/3+1/6+ 1/6+1/6+ 1/6																																									
① -② ③	1/2+1/6 +1/3		①② ③④ ⑤⑥	1/6+1/6+ 1/6+1/6+ 1/6+1/6																																									
표현 방법 탐색	<p>연습곡 1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대금 연주 • 박자 알기 <p>연습곡 2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대금 연주 • 박자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곡 1번을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계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 손바닥으로 무릎에 박자를 치면서 정간보의 울명으로 읽게 한다. • 오선보의 계이름도 울명 읽듯이 박자를 읽게 한다. •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한다. • 연습곡 2번을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계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 손바닥으로 무릎에 박자를 치면서 울명으로 읽게 한다. • 계이름도 울명 읽듯이 박자를 읽게 한다. •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한다. 	30분	<p>→많은 반복 연습 요구.</p> <p>→많은 반복 연습 요구.</p>																																									

	창의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위 감상 • 녹음하기 • 개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을 많이 하다보면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잠시 쉬어 가는 시간으로 대금연주 음반으로 시나위를 들려주며 쉬게 한다. •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 한다. • 구음으로 울명과 계이름으로 불러 주고, 대금으로 연주해 준 것을 녹음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15분	<p>→녹음, 동영상 촬영은 호자 연습 할 수 있는 자료.</p> <p>→그룹별 수업과 개인별 수업을 진행.</p>
정리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과제 제시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같이 연습곡 1, 2번 전체를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며 반복 연주한다. • 녹음에 맞추어 연습곡 1, 2번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며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 형성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간보 울명과 오선보의 계이름을 구별하여 읽을 수 있고 소리를 낼 있는가? 2. 연습곡 1, 2번을 연주 할 수 있는가?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20분	<p>→정간보, 오선보의 연계가 잘 되지 않으니 천천히 반복.</p>

단원명	연습곡 3~4번 및 부호와 악상기호	차시	7차시/15차시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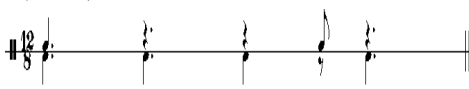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곡 3~4번을 할 수 있다. • 시김새: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를 안다. •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를 어떻게 연주되어지는가를 안다. 		
주요활동		연습곡 악보 읽기 및 연주, 시김새들을 익히고 나서 연주하기, 대금 연주곡 감상		
강의실 환경		강의실 -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분위기 조성 • 손가락 유연성 기르기 • 대금소리내기 • 전시학습 확인 • 본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 역취까지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지난 차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대금 -대금 연습곡 1, 2번 (정간보와 오선보)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김새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시김새: 장식음과 부호를 설명한다. - 장식음이란 어느 한 음정 옆에다 여러 가지 기호 (ㄴ, ㄹ, ㄱ, ㅁ) 등을 붙여 그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꾸밈음을 말한다. - 대금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손놀림이 아주 편리해지는데 이런 경우 대금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잡한 가락들을 한정된 정간보 위에 전부 기보(記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단한 부호와 장식음으로 대신하여 표기한다. 이러한 장식음과 부호는 오래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압기 되는 것이니 애써 외우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 - 장식음은 대금의 기본 5음인 중. 임. 남. 황. 태의 순서로 어느 음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음의 위 음과 아래 음을 말한다. 그리고 분음이란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가 붙은 바로 그 음을 말한다. - 부호란 장식음과 달리 음정 옆에 붙지 않고 정간안에 위치하고 있어 제 쇯가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음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음의 위와 아래음을 말한다.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김새들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제시하고 장식음을 사용하는 음악을 들려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도록 지도. →장식음을 연주할 때 손가락의 움직임 정확하게 지도.

표현 방법 탐색	연습곡 3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대금 연주 • 시김새 알기 • 악보 읽기 • 반복 연습 • 박자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곡 3번을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 시김새: 장식음과 부호를 설명하며 연주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 손바닥으로 무릎에 박자를 치면서 정간보의 울명으로 읽게 한다. • 오선보의 게이름도 울명 읽듯이 박자를 읽게 한다. •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한다. 	30분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연습곡 4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대금 연주 • 시김새 알기 • 악보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자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곡 4번을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 시김새: 장식음과 부호를 설명하며 연주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 손바닥으로 무릎에 박자를 치면서 울명으로 읽게 한다. • 게이름도 울명 읽듯이 박자를 읽게 한다. •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하게 한다. 	→울명과 게이름을 이해 하면 지우기.	
창의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산회상 중 상령산 감상 • 녹음하기 • 개별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을 많이 하다보면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잠시 쉬어 가는 시간으로 대금연주 음반으로 영산회상 중 상령산을 들려주며 쉬게 한다.(상령산은 장식음과 부호가 발달된 곡이다) •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 한다. • 구음으로 울명과 게이름으로 불러 주고, 대금으로 연주해 준 것을 녹음이나, 동영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15분	→녹음, 동영상 촬영은 혼자 연습 할 수 있는 자료. →그룹별 수업과 개인별 수업을 진행.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같이 연습곡 3, 4번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며 전체를 반복 연주한다. • 녹음에 맞추어 연습곡 3, 4번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며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20분	→많은 반복 연습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1. 시김새: 장식음, 부호 읽을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는가? 2. 연습곡 3, 4번을 연주할 수 있는가?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	--	--	--	--

단원명	꼭꼭 숨어라, 월어리 청청	차시	8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동요를 안다. • 자진모리를 안다. 		
주요활동		꼭꼭 숨어라, 월어리 청청 연주하기, 자진모리장단 쳐보기 및 감상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분위기 조성 • 손가락 유연성 기르기 • 대금소리내기 • 전시학습 확인 • 본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팽취, 저취, 역취까지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지난 차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대금 -꼭꼭 숨어라, 월어리청청 (정간보와 오선보). -장구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연주 • 시범 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꼭꼭숨어라를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 장구로 자진모리장단을 연주하여 주고 자진모리를 이해시킨다. 	30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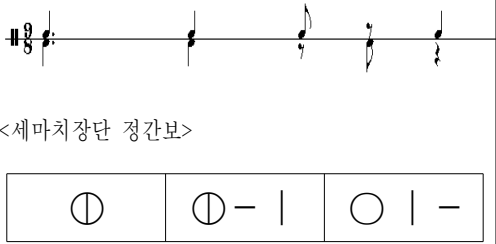
현 방 법 탐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 연습 • 악보 읽기 • 반복 연습 • 시범 연주 • 악보 읽기 • 반복 연습 	<p><자진모리></p>  <p><자진모리 정간보></p> <table border="1" data-bbox="493 473 953 550"> <tr> <td>⊙</td> <td>⊙</td> <td>⊙ - </td> <td>○ -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바닥으로 무릎에 자진모리장단을 치면서 정간보의 올명으로 읽게 한다. • 오선보의 게이름도 올명 읽듯이 한다. •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올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장구장단에 맞춰서 꼭꼭숨어라를 연주한다. •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한다. • 연습곡 월어리청청을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 손바닥으로 무릎에 박자를 치면서 올명으로 읽게 한다. • 게이름도 올명 읽듯이 박자를 치면서 읽게 한다. •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올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장구장단에 맞춰서 꼭꼭숨어라를 연주한다. •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하게 한다. 	⊙	⊙	⊙ -	○ -	<p>→올명과 게이름을 이해 하면서 지우기.</p> <p>→ 장단을 치면서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도</p> <p>→장단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p>
	⊙	⊙	⊙ -	○ -			
창 의 적 표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 감상 • 녹음하기 • 개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꼭꼭숨어라, 월어리청청을 들려주며 휴식을 취하고 관심을 갖게 한다. •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 한다. • 구음으로 올명과 게이름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시범 연주 장면을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p>15분</p> <p>→녹음과 동영상 촬영은 혼자 연습 할 때의 자료.</p> <p>→그룹별 수업과 개인별 수업을 진행</p>				

정리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과제 제시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같이 꼭꼭 숨어라, 월어리청청을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며 전체를 반복 연주한다. • 녹음에 맞추어 꼭꼭 숨어라, 월어리청청을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며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 형성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꼭꼭 숨어라, 월어리청청을 정간보와 오선보를 읽을 수 있는가? 2. 꼭꼭 숨어라, 월어리청청을 연주 할 수 있는가?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20분	→많은 반복 연습 요구.
----	-----	---	--	-----	---------------

단원명	어깨동무, 아리랑	차시	9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어깨동무, 아리랑의 계이름과 율명을 읽을 수 있다. 자진모리장단, 세마치장단으로 무릎장단을 칠 수 있다. 어깨동무, 아리랑을 대금으로 연주할 수 있다.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동무, 아리랑의 음악적 특징 파악하며 감상하기. 어깨동무, 아리랑을 연주하기.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및 유의사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분위기 조성 손가락 유연성 기르기 대금소리내기 전시학습 확인 본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평취, 저취, 역취까지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지난 차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대금 -어깨동무, 아리랑 오선보, 정간보 -어깨동무,아리랑CD -장구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제곡 개요 설명 민요 의미 알기 경기민요의 특징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깨동무, 아리랑에 관하여 설명한다. - 어깨동무는 경상북도 대구지방의 소꿉놀이 노래인 중아 중아를 각색한 노래이다. - 아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널리 불려 지게 된 이유의 하나는 곡이 현대적이고, 부르기 쉽고, 거기에 곁들여 일정(日政) 치하에서 민족적인 감정과 울분을 쉽게 엮어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요에 관하여 설명한다. 민요는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는 소박한 노래를 말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으로 삶을 영위해 왔으며 밭갈이나 김매기와 같이 노동을 할 때나 죽음 앞에서의 상여소리와 같이 슬픈 마음을 위로 할 때에도 생활의 일부로 노래를 불렀다. 경기민요의 특징을 설명하고 각 지방마다 민요를 설명한다. - 서울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불리는 민요로서 서도, 남도민요에 견주어 대체로 맑고 깨끗하며 경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요의 설명은 간단하게 하여 내용 설명이 길지 않게 하기. → 각 지방민요의 차이점.

		<p>쾌하고 분명하다. 남도민요에 비교 할 때 한 글자에 음이 많이 붙어 말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독특하고 선율의 굴곡이 유연하면서 다채롭게 진행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리랑은 경기민요로서 장단은 세마치장단으로 되어있다. •음조직은 솔, 라, 도, 레, 미의 5음 음계로 구성되었다. •시김새: 장식음과 악상기호들을 설명한다.(ㄱ, ㄷ, ㄹ, ㄴ) 	
표현 방법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명과 게이름으로 불러보기 •자진모리장단연주하기 •시범 연주 •세마치장단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명과 게이름으로 어깨동무를 노래 불러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가 정간보를 보며 울명으로 중~루 중~루 어깨동무를 한 소절씩 불러주고 학습자들에게 따라 불러 보게 하고 나서 오선보를 보며 게이름으로 미~ 루 미~ 루 하고 마찬가지로 불러보게 한다.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장구로 자진모리장단을 시범 연주하여 들려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간에 배웠던 자진모리장단을 가르쳐주며 무릎장단을 치게 한다.(장구가 개인적으로 없으므로 무릎을 손바닥으로 쳐보게 한다) •대금으로 어깨동무를 강사가 시범 연주를 보여준다. •대금으로 어깨동무를 반복 연주하게 한다. •울명과 게이름으로 아리랑을 노래 불러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가 정간보를 보며 울명으로 임~ 남 임~ 남 아리랑을 한 소절씩 불러주고 학습자들에게 따라 불러 보게 하고 나서 오선보를 보며 게이름으로 솔~ 라 솔~ 라 하고 마찬가지로 불러보게 한다.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장구로 세마치장단을 시범 연주하여 들려준다. • 세마치장단을 가르쳐주며 무릎장단을 치게 한다.(장구가 개인적으로 없으므로 무릎을 손바닥으로 쳐보게 한다) <p><세마치장단 오선보></p>	<p>30분</p> <p>→노래를 부르며 무릎장단 치기는 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자진모리와 세마치장단에 정확하게 리듬을 맞추게 한다.</p> <p>→복식호흡법의 필요성을 강조.</p>

		 <p><세마치장단 정간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연주 • 반복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으로 아리랑을 강사가 시범 연주를 보여준다. • 대금으로 장식음을 사용하면서 아리랑을 반복 연주하게 한다. • 연주할 때 손가락 움직임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천천히 시범 연주를 보여주며 반복 연습하도록 한다. 		
	<p>창의적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동무, 아리랑 감상 • 장구장단 맞추기 • 녹음 하기 • 개별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을 많이 하다보면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잠시 쉬어 가는 시간으로 대금연주 CD로 어깨동무, 아리랑을 들려주며 학습자의 소리와 비교하게 한다. • 강사의 장구 장단에 어깨동무와 아리랑을 연주하게 한다. •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 한다. • 구음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연주해 준 것을 녹음이나, 동영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도록 한다.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15분	<p>→녹음과 동영상 촬영은 혼자 연습 할 때의 강사.</p> <p>→그룹별 수업과 개인별 수업을 진행</p>
정리	<p>내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과제 제시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같이 장구장단에 맞춰 어깨동무, 아리랑을 연주한다. • 녹음에 맞추어 어깨동무와 아리랑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 형성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어깨동무와 아리랑의 계이름과 율명을 읽을 수 있는가? 2. 자진모리장단과 세마치장단으로 무릎장단을 칠 수 있는가? 3. 어깨동무와 아리랑을 대금으로 연주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20분	<p>→많은 반복 연습 요구.</p>

단원명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	차시	10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다. 		
주요활동		도라지, 밀양아리랑 연주하기, 세마치장단 쳐보기 및 감상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분위기 조성 손가락 유연성 기르기 전시학습 확인 본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평취, 저취, 역취까지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지난 차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대금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정간보와 오선보). -장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곡 이해 시김새 이해 짧은 음 혀치기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라지타령은 경기민요이며 세마치장단으로 되어있다. 음조식은 솔, 라, 도, 레, 미의 5음 음계로 이루어졌다. 밀양아리랑은 경상도 민요이며 세마치장단으로 되어있다. 시김새: 장식음과 부호, 악상기호들을 설명한다. (ㄴ, ㄹ, ㄷ, ㄹ) 짧고 같은 음의 반복 시 혀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한다. 모든 음에서 혀치기를 한 호흡에 2번씩 하도록 한다. 혀치기 되지 않으면 한 호흡에 한 번씩 다시 연습을 하고 한 호흡에 2번씩 하도록 한다.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되는 음이 많아 혀치기는 연습이 더 많이 요구 →민요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혀치기가 뚜렷하게 되지 않으면 음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사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유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 방법 탐색 시범 대금 연주 악보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습곡 도라지타령을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정간보의 울명과 오선보의 계이름을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계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장단 • 장단 연습 • 악보 읽기 • 반복 연습 • 장단에 맞춰 연주하기 • 시범 대금 연주 • 장단 연습 • 악보 읽기 • 반복 연습 • 장단에 맞춰 연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구로 세마치장단을 연주하여 주고 세마치장단을 이해시킨다. • 민요의 맛을 살리기 위해 장식음과 삼분박을 설명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손바닥으로 무릎에 세마치장단을 치면서 정간보의 울명으로 읽게 한다. • 오선보의 게이름도 울명 읽듯이 박자를 치면서 읽게 한다. •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장구반주의 세마치장단에 맞춰서 도라지를 연주한다. •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한다. • 연습곡 밀양아리랑을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 손바닥으로 무릎에 박자를 치면서 울명으로 읽게 한다. • 게이름도 울명 읽듯이 박자를 치면서 읽게 한다. •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장구반주의 세마치장단에 맞춰서 밀양아리랑을 연주한다. •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하게 한다. 	<p>→ 장구장단과 함께하는 민요의 흥겨움을 느끼게 해준다.</p> <p>→ 짧은 박에서 혀치기 하기를 반복 연습하기.</p>
<p>창의적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 감상 • 대금연주 녹음하기 • 대금 연주 녹음하기 • 개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라지, 밀양아리랑을 들려주어 휴식을 취하며 좋은 소리 내기에 노력하도록 한다. •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 한다. • 구음으로 울명과 게이름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시범 연주 장면을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p>15분</p> <p>→ 녹음과 동영상을 촬영은 혼자 연습 할 때의 강사</p> <p>→ 그룹별 수업과 개인별 수업을 진행</p>

정 리	내 면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정리 • 과제 제시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같이 도라지, 밀양아리랑을 정간보와 오선보를 번갈아 보며 전체를 반복 연주한다. • 녹음에 맞추어 도라지, 밀양아리랑을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며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 형성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라지, 밀양아리랑을 정간보와 오선보를 읽을 수 있는가? 2. 도라지, 밀양아리랑을 연주 할 수 있는가?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20분	<p>→대금과 친하게 지내다보면 소리가 들린다. →많은 반복 연습 요구.</p>
--------	-------------	--	--	-----	--

단원명	닐리리아	차시	11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취음 청황중 소리를 선율에서 낼 수 있다.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닐리리아를 연주할 수 있다. 		
주요활동		닐리리아 연주하기, 세마치장단 쳐보기 및 감상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분위기 조성 •손가락 유연성 기르기 •소리내기 •전시학습 확인 •본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평취, 저취, 역취까지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지난 차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대금 -닐리리아 (정간보와 오선보). -장구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곡 설명 •역취음 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닐리리아는 일제 강점기때 대중가요처럼 불렸지만 가사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를 풍자하는 민요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경기민요이며 굿거리장단으로 되어있다. •음조식은 솔, 라, 도, 레, 미의 5음 음계로 이루어졌다. •시김새: 장식음과 악상기호들을 설명한다.(ㄴ, ㄹ, ㄷ, ㄹ, ㄷ) •역취음 청황중 소리내기는 입김을 세계 불어 넣어 선율에서 음의 흐름이 잘 되도록 반복 연습해서 소리 내게 한다. •음의 흐름이 잘되지 않은 부분은 부분 연습을 한다. •같은 음의 반복 시 혀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한다. •모든 음에서 혀치기를 한 호흡에 2번씩 하도록 한다. •혀치기 되지 않으면 한 호흡에 한 번씩 다시 연습을 하고 한 호흡에 2번씩 하도록 한다.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취음 청황중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입술 양 끝 쪽에 힘을 주어 입술을 팽팽하게 하고 입김을 가운데로 모아 세계 분다.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여러 번 반복을 한 후에 닐리리아를 연주하게 한다.

표현 방법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대금 연 • 악보 읽기 • 시범 장단 • 장단 연습 • 악보 읽기 • 반복 연습 • 장단에 맞춰서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곡 넬리리아를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 시김새: 장식음과 부호, 악상기호들을 설명한다. (ㄴ, ㄹ, ㄷ, ㅁ) • 정간보의 울명과 오선보의 게이름을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 장구로 굿거리장단을 연주하여 주고 굿거리장단을 이해시킨다. • 손바닥으로 무릎에 굿거리장단을 치면서 정간보의 울명으로 읽게 한다. • 민요의 맛을 살리기 위해 장식음과 삼분 박을 설명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오선보의 게이름도 울명 읽듯이 박자를 읽게 한다. •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장구반주의 굿거리장단에 맞춰서 넬리리아를 연주한다. •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한다. <p><굿거리장단 오선보></p> <p style="text-align: center;">굿거리장단</p>  <p><굿거리장단 정간보></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 - i</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 i</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 - i	○ -	○ - i	○ -	30분 → 굿거리장단의 더러러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 - i	○ -	○ - i	○ -				
창의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 감상 • 녹음하기 • 개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넬리리아를 들려주어 휴식을 취하며 좋은 소리 내기에 노력하도록 한다. •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한다. • 역취음 청황중 소리내기는 선율에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한다. • 구음으로 울명과 게이름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시범 연주 장면을 녹음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15분 → 녹음과 동영상을 촬영은 혼자 연습할 때의 자료. → 그룹별 수업과 개인별 수업을 진행.				

정리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과제 제시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같이 널리리야를 정간보와 오선보를 번갈아 보며 전체를 반복 연주한다. • 녹음에 맞추어 널리리야를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며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 형성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널리리야를 정간보와 오선보를 읽을 수 있는가? 2. 널리리야를 연주 할 수 있는가? 3. 역취음 청황중 소리내기는 선율에서 연결 지어 소리가 나는가?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20분	→많은 반복 연습 요구.
----	-----	---	--	-----	---------------

단원명	칠갑산, 천년바위	차시	12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가요 칠갑산, 천년바위를 반주음악 CD를 들으며 연주할 수 있다. 		
주요활동		칠갑산, 천년바위 연주하기, 시김새: 장식음, 악상기호 표현하기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분위기 조성 손가락 유연성 기르기 전시학습 확인 본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평취, 저취, 역취까지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지난 차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대금 -칠갑산, 천년바위 정간보, 오선보, -반주음악CD
	기초기능과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김새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이면서 대금으로 연주하면 국악적인 맛을 낼 수 있는 대중가요 칠갑산과 천년바위를 설명한다. 시김새: 장식음과 악상기호들을 설명한다.(ㄴ, ㄹ, ㄷ, ㄱ) 가요 칠갑산 반주음악을 CD로 먼저 들어 본다. 반주음악을 듣고 전주와 간주의 마디수를 알게 하고 어디부분에서 2절이 들어오는가를 마디수를 알려준다. 가요 천년바위 반주음악을 CD로 먼저 들어 본다. 반주음악을 듣고 전주와 간주의 마디수를 알게 하고 어디부분에서 2절이 들어오는가를 마디수를 알려준다. 	15분
표현방법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 대금 연주 시김새 표현하기 악보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습곡 칠갑산을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시김새: 장식음과 부호, 악상기호들을 손가락 움직임을 천천히 보여준다.(ㄴ, ㄹ, ㄷ, ㄱ) 정간보의 울명과 오선보의 게이름을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30분	→시김새의 아름다움을 알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자 알기 ●반복 연습 ●반주음악에 연주 ●시범 대금 연주 ●시김새 표현하기 ●박자 알기 ●악보 읽기 ●반복 연습 ●반주음악에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바닥으로 무릎에 한 박자씩 치면서 정간보의 울명으로 읽게 한다. ●오선보의 게이름도 울명 읽듯이 박자를 읽게 한다.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반주음악에 맞춰서 칠갑산을 연주한다.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한다. ●연습곡 천년바위를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시김새: 장식음과 부호, 악상기호들을 손가락의 움직임을 천천히 보여준다.(ㄴ, ㄹ, ㄷ, ㄹ) ●정간보의 울명과 오선보의 게이름을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울명과 게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손바닥으로 무릎에 한 박자씩 치면서 정간보의 울명으로 읽게 한다. ●오선보의 게이름도 울명 읽듯이 박자를 읽게 한다.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반주음악에 맞춰서 천년바위를 연주한다.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한다. 	<p>지도한다.</p> <p>→반주음악의 활용을 설명한다.</p> <p>→장식음 활용을 잘하기.</p>
창의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곡 감상 ●녹음하기 ●개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갑산, 천년바위를 반주음악에 맞춰서 강사가 들려주어 휴식을 취하며 좋은 소리 내기에 노력하도록 한다.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한다. ●시김새: 장식음과 악상기호들은 손가락에 힘을 주지 말고 연주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ㄴ, ㄹ, ㄷ, ㄹ) ●구음으로 울명과 게이름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시범 연주 장면을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반주음악 개별적으로 보내준다. 	<p>15분</p> <p>→녹음과 동영상을 촬영은 혼자 연습 할 때의 자료</p> <p>→그룹별 수업과 개별 수업 진행</p>

정 리	내 면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과제 제시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같이 반주음악에 맞추어 칠갑산, 천년바위를 정간보와 오선보를 번갈아 보며 전체 반복 연주한다. • 반주음악에 맞추어 칠갑산, 천년바위를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며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 형성평가 1. 칠갑산, 천년바위 정간보와 오선보를 읽을 수 있는가? 2. 칠갑산, 천년바위를 연주 할 수 있는가? 3. 시김새들을 잘 할 수 있는가?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20분	→많은 반복 연습 요구.
--------	-------------	---	---	-----	---------------

단원명	한오백년	차시	13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한오백년을 연주할 수 있다. 		
주요활동		한오백년 연주하기, 시김새: 장식음, 악상기호 표현하기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
전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핑취, 저취, 역취까지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지난 차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대금 한오백 정간보, 오선보, 장구 CD
	기초기능과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오백년은 강원도 민요로서 동부민요조는 강원도 동해안, 함경도, 경상도 지역의 민요에 나타는 음악적 특징으로 이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인 메나리의 이름을 빌어 메나리토리라고도 한다. 장단은 중머리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조직은 미, 라, 도의 주요음과 솔, 레의 경과적인 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재곡에서 시김새: 장식음과 악상기호들을 설명한다.(ㄱ, ㄴ, ㄷ) 산조대금 5관 본청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남도민요 보다는 좀 더 맞대기가 쉽다고 설명한다. 	15분	→ 수업 진행의 양이 많아 지다 보니 대금을 바르게 들고 연주가 힘들어진다. →장식음 활용을 잘하기.
표현방법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 연주 시범 장단 악보 읽기 장단 연습 악보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곡 한오백년을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정간보의 율명과 오선보의 계이름을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시김새: 장식음과 부호, 악상기호들을 설명한다.(ㄱ, ㄴ, ㄷ)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율명과 계이름을 연필로 적게 한다. 손바닥으로 무릎에 한 박자씩 치면서 정간보의 율명으로 읽게 한다. 오선보의 계이름도 율명 읽듯이 박자를 읽게 한다. 	30분	→ 팔이 아파서 대금을 수평으로 들고 있기가 힘들어 팔이 절반 내려오는 데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중머리를 장구장단에 맞춰서 한오백년을 연주한다. •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한다. <p><중머리 오선보></p> <p><중모리></p>  <p><중머리 정간보></p> <table border="1" data-bbox="473 840 967 917"> <tr> <td>⊙</td><td></td><td> </td><td>○</td><td> </td><td>·</td><td> </td><td>○</td><td>○</td><td> </td><td>○</td><td></td> </tr> </table>	⊙			○		·		○	○		○			
⊙			○		·		○	○		○						
창의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 감상 • 녹음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오백년을 들려주어 휴식을 취하며 좋은 소리 내기에 노력하도록 한다. •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한다. • 시김새: 장식음과 악상기호들은 손가락에 힘을 주지 말고 연주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ㄴ, ㄹ, ㄷ, ㄹ) • 구음으로 율명과 게이름으로 불러 준 것과, 대금으로 시범 연주 장면을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음과 동영상을 촬영은 혼자 연습 할 때의 자료 →그룹별 수업과 개별 수업 진행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과제 제시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구장단에 맞춰 한오백년을 정간보와 오선보를 번갈아 보며 전체 반복 연주한다. • 녹음이나 동영상을 보고 한오백년을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며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 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오백년을 정간보와 오선보를 읽을 수 있는가? 2. 한오백년을 연주 할 수 있는가? 3. 시김새들을 잘 할 수 있는가?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반복 연습 요구. 												

단원명	연주회 준비	차시	14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가요 칠갑산, 천년바위를 반주음악 CD를 들으며 연주할 수 있다. 		
주요활동		칠갑산, 천년바위 연주하기, 시김새: 장식음, 악상기호 표현하기		
강의실 환경		강의실- 오디오, TV, DVD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배분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분위기 조성 손가락 유연하게 하기 전시학습 확인 본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평취, 저취, 역취까지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지난 차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부 -대금 -칠갑산, 천년바위 정간보, 오선보, -반주음악CD
	기초기능과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김새 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이면서 대금으로 연주하면 국악적인 맛을 낼 수 있는 대중가요 칠갑산과 천년바위를 설명한다. 시김새: 장식음과 악상기호들을 설명한다.(ㄴ, ㄹ, ㄷ, ㄱ) 가요 칠갑산 반주음악을 CD로 먼저 들어 본다. 반주음악을 듣고 전주와 간주의 마디수를 알게 하고 어디부분에서 2절이 들어오는가 마디수를 알려준다. 가요 천년바위 반주음악을 CD로 먼저 들어 본다. 반주음악을 듣고 전주와 간주의 마디수를 알게 하고 어디부분에서 2절이 들어오는 마디수를 알려준다. 	15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 대금 연주 악보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습곡 칠갑산을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시김새: 장식음과 부호, 악상기호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ㄴ, ㄹ, ㄷ, ㄱ)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율명과 계이름을 연필로 적은 것들을 외워졌는지 확인한다. 	30분	→장식음 활용을 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자 알기 • 반복 연습 • 시범 연주 • 악보 읽기 • 박자 알기 • 반복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의 율명과 오선보의 계이름을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 손바닥으로 무릎에 한 박자씩 치면서 정간보의 율명으로 읽게 한다. • 오선보의 계이름도 율명 읽듯이 박자를 읽게 한다. •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반주음악에 맞춰서 칠갑산을 연주한다. •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한다. • 연습곡 천년바위를 강사가 대금으로 들려준다. • 시김새: 장식음과 부호, 악상기호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ㄴ, ㄹ, ㄷ, ㄱ) • 정간보는 간 옆에, 오선보는 오선 아래에 각각 율명과 계이름을 연필로 적은 것들을 외워졌는지 확인한다. • 정간보의 율명과 오선보의 계이름을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 손바닥으로 무릎에 한 박자씩 치면서 정간보의 율명으로 읽게 한다. • 오선보의 계이름도 율명 읽듯이 박자를 읽게 한다. • 다 같이 정간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다 같이 오선보를 보면서 대금으로 반복 연주하게 한다. • 반주음악에 맞춰서 천년바위를 연주한다. • 이해가 가지 않고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반복 연습을 한다. 		<p>→장식음 활용을 잘하기.</p>
<p>창의적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곡 감상 • 녹음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주음악을 들려주어 휴식을 취하며 좋은 소리 내기에 노력하도록 한다. • 소리내기가 어려우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게 한다. • 시김새: 장식음과 악상기호들은 손가락에 힘을 주지 말고 연주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ㄴ, ㄹ, ㄷ, ㄱ) • 구음으로 율명과 계이름으로 불러 준 것과, 2곡을 연달아서 대금으로 시범 연주 장면을 녹음이 	<p>15분</p>	<p>→녹음과 동영상 촬영은 혼자 연습 할 때의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 지도 	<p>나,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을 개인적으로 연습 할 수 있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학습자는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그룹별 수업과 개별수업 진행.
정리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정리 • 과제 제시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같이 반주음악에 맞추어 칠갑산, 천년바위를 정간보와 오선보를 번갈아 보며 전체 반복 연주한다. • 반주음악에 맞추어 칠갑산, 천년바위를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며 연습 해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 형성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칠갑산, 천년바위 정간보와 오선보를 읽을 수 있는가? 2. 칠갑산, 천년바위를 반주음악에 맞춰서 연주 할 수 있는가? 3. 시김새들을 잘 할 수 있는가? • 다음 차시 예고한다. •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한다. 	20분	→많은 반복 연습 요구.

단원명	연주회	차시	15차시/15차시
-----	-----	----	-----------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무대에서 칠갑산, 천년바위를 반주음악에 맞추어 연주한다. 		
주요활동		무대에서 연주, 칠갑산, 천년바위 연주하기, 시김새: 장식음, 악상기호 표현하기		
강의실 환경		연주장- 마이크, 오디오, 보면대, 의자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사항 (->)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분위기 조성 • 손가락 유연하게 하기 • 소리내기 • 전시학습 확인 • 분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의상을 나누어 준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팽취, 저취, 역취까지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지난 차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대금으로 연주하게 한다. • 이번 차시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부 - 대금 - 칠갑산, 천년바위 정간보, 오선보 - 반주음악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허설 • 자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허설 준비를 한다. • 자리를 미리 정한 순서에 맞게 줄을 서서 무대에 들어 갈 때 악보와 악기를 어느 손에 들고, 걸어갈 때의 바른 자세, 의자에 앉았을 때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다. • 무대 자리배치를 확인 하고 앉는다. • 연주는 의자에 앉아서 하므로 무대 자리배치를 확인하고, 옆 사람과의 알맞은 간격을 유지 하도록 한다. • 보면대의 높이는 본인의 얼굴이 보이도록 하고, 마이크는 대금을 들고 연주할 때 취구 쪽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여 대금 소리가 객석에서 잘 들리도록 한다. 	15분	→모든 연주에는 실제 연주 장소에서 실제 연주처럼 리허설 필요.
전개	표현 방법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주음악 몇 마디에 대금을 다 같이 올려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 연주가 끝나면 다 같이 천천히 악기를 내리고 동시에 인사하고, 일어서서 연주하러 들어올 때처럼 바른 자세를 하고 반대로 나가면 된다. • 리허설이 끝나면 간단한 식사와 휴식을 취한다. 	30분	→ 연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장을 하고 의상을 갈아입는다. •연주 시작 시간이 되면 프로그램 순서를 기다린다. •차례가 돌아오면 리허설 하는 순서대로 무대에 입장 한다. •무대 자리배치를 확인하고, 옆 사람과의 알맞은 간격을 유지 하도록 한다. •보면대의 높이는 본인의 얼굴이 보이도록 하고, 마이크는 대금을 들고 연주할 때 취구 쪽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여 대금 소리가 객석에서 잘 들리도록 한다. 		이 많지 않으므로 음악의 시작과 끝마무리 설명.
창의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주 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장하면 대금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바람소리가 많이 나므로 평소 때와 같이 편한 마음으로 연주한다. (연습은 연주처럼, 연주는 연습처럼 하라는 말이 있다) •반주음악 몇 마디에 대금을 다 같이 올려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연주가 끝나면 천천히 악기를 내리고, 동시에 인사하고, 일어서서 연주하러 들어 올 때처럼 바른 자세를 하고 반대로 나가면 된다. 	15분	→긴장하지 말고 연주하기를 당부한다.
정리 내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상 갈아입기 •한 학기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장실에 들어가서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의상을 갈아입고 다른 팀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음 차례에 다른 팀 연주가 있으므로 조용히 분장실을 비워준다. •간단한 뒤풀이를 하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연주회의 소감과 한 학기 동안 대금을 배우면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강사에게 바라는 점 등의 요구사항을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 하며 공유하고 자신을 성찰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20분	→마무리를 잘하고 대금을 더 배울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를 남긴다.

제2절 프로그램 적용 결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차에 걸쳐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대금교육에 관해 교수자도 학습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수자로서의 연구자는 성인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흥미를 유지하고 대금교육 프로그램에 몰입하면서 대금의 맛을 향유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순환적으로 적용하고 평가하고 다시 계획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금 전문 연주자로서 익숙했던 틀들을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 교수자가 이 틀을 벗어나면서 참여한 성인학습자들 중 많은 수가 점점 대금의 맛을 향유하고 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결과를 크게 교수자의 변화와 학습자의 변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실험연구의 과정은 학습자의 변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것은 교수자의 실천적 지식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1. 교수자의 변화

먼저 교수자는 성인학습자들의 흥미 유지와 몰입, 그리고 대금의 향유를 위해서는 전공자들이 당연히 했던 틀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실행과정에서 그 효과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전공자들과는 달리 성인학습자들은 이전의 음악교육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할 때에만 그들이 최대한 대금연주에 몰입하여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먼저, 악기의 경우 전공자들이 모두 1000년 동안 활용된 대금인 정악대금을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사용하였지만, 정악대금은 악기가 길고 커서 소리 내기와 운지법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고, 대신 상대적으로 짧고 작은 산조대금을 선택하였다. 이미 손가락이 굳은 성인들이 하기에 적절하며, 산조대금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정악대금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론의 경우에도 이 연구 이전에는 전공자와 마찬가지로, 곡에 나와 있는 것을

처음에는 주입식으로 가르쳤지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해본 결과 쉬운 이론부터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악보의 경우도 이전에는 처음부터 전공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정간보를 제시하였지만 오선보와 정간보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성인학습자들의 경험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학습자 혼자서도 다양한 악보를 활용하여 연습해 볼 수 있게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을 촉진하였다. 이는 장식음이나 부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최대한 그들 개인의 수준과 경험에 맞게 지도해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수자가 그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요컨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전과 달리 동요나 가요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성인학습자의 흥미와 몰입, 향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전통음악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좀 더 포괄적으로 제재곡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다양한 곡 구성을 통해 학습자들이 대금연주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정악대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나 정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포괄적 음악성’에 근거한 교수법에서도 주장하듯이 음악성을 계발하는 데에 전통음악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유형들을 활용하여 실지로 학습자들의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역시 새롭게 하게 된 것이다.

2. 학습자의 변화

대금을 배우는 초보 성인학습자들은 대체로 ‘우리 것’에 대한 관심과 소리가 좋아 대금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성인학습자들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참여에 미온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인학습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후에도 혼자 연습하고 좀 더 높은 단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성인학습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대금연주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경험의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가령, 정악대금에서 플라스틱 산조대금으로 불게 되면서 대금 소리내기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단계가 올라가면 전통 정악대금인 “쌍골죽 대금”을 사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동요나 민요, 대중가요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연주하는 등 음악을 향유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전래동요, 민요, 가요를 반주음악과 함께 하니 재미있고 집에서 연습하기 위하여 직장에서의 할 일을 빨리 끝내고 퇴근을 하여 연습한다. 아리랑이나 한오백년을 연습하면 가족이 옆에 와서 계이름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칠갑산과, 천년바위를 반주음악 함께 연습을 하고 있으면 가족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는 대금을 연주한다.(40대, 남)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처음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교수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후의 지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을 위해 어려운 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또한 깨달았다. 가령, 전문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음악이론공부는 대금을 연주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부분은 배워야 한다는 점, 오선보는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정간보 보기는 생소하고, 울명으로 외워야하니 어렵게 느껴지지만 다음단계를 위해서라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인식하였다. 마찬가지로 소리내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천천히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해야 한다는 점, 지속적으로 교수자의 대금연주 수행을 동영상을 찍어 운지하는 모습을 보고 연습하면 잊어버린 부분을 다시 찾아 연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습의 결과 전통음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실지로 대금연주를 하는 성인학습자들 중에는 서양악기를 연주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이 없지 않은데 이들은 스스로의 연주경험에 토대를 두어 우리 전통음악의 독특한 가치를 아래와 같이 비교하기도 하였다.

우리악기는 수저로 밥을 떠먹는 느낌으로 음악이 만들어 지면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면서 어우러지니까 좋다. 서양악기는 비트가 정확하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인데 우리악기는 장식음이나, 시김새에 따라 박자가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니 그런 점이 재미가 있다.(40대, 남)

아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성인학습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외에도 지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을 위해 연습을 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배우자에게도 대금이나 전통악기연주를 권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즉, 대금연주에 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는 다른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활에서 달라진 점은 하루에 30분 정도 연습을 하려고 진도 나갔던 부분을 2번씩 연습한다. 소리가 나고 하니까 재미가 있어 더욱더 연습하고 싶어진다. 직장에서 중요하지 않는 일이면 야근을 포기하거나 일과 시간에 빨리 하고 제시간에 퇴근하여 연습한다. 수업시간에 했던 녹음을 듣고 악기 연주와, 구음 녹음을 듣고 연습한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직장 모임에도 중요한 일 아니면 참석 하러 가지 않고 대금 배우러 온다.(40대, 남)

제6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요약

이 연구는 전문연주자를 위한 입시 준비 대금 입문 프로그램과 달리 학습자들의 음악적 경험에 기초하여 음악적 향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금 입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금 입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금 입문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고, 이를 연구자가 직접 적용하여 그 효과와 의미를 성찰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실행연구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설계 연구로서 1단계는 문헌고찰, 2단계 성인학습자의 요구조사, 3단계 1차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프로그램 적용 연구로, 1단계 1차 프로그램 적용, 2단계 2차 프로그램 적용, 그리고 3차 최종 프로그램을 산출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기획·설계 연구에서는, 1단계 문헌고찰을 통해 대금 입문 프로그램의 평생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인문주의적,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와 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인간소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음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음악은 악기를 통하여 독주 또는 합주로 연주되고, 연주된 곡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들려짐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이복선, 2003). 또한, 음악교육철학과 음악교수법 등을 고찰하여 프로그램의 목표와 원리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음악교육철학으로는 경험의 재구성이라는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에 근거하여 경험의 연속성과 상호작용성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이전 음악적 경험과의 연속선상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적 경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악교수법으로는 특정한 장르와 유형의 음악만을 고집하지 않고 대중가요, 민요, 전통음악 등 포괄적 음악성에 근거한 접근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대금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대금 교육 현황 및 대

금 교육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대금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추세이고 그에 따른 지도안 구안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금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성인학습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은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도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연구로서 성인을 위한 연구는 적었다. 게다가 대부분 전문연주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를 위한 입문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단계로 진행한 요구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주곡 및 이론, 연주법 등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에 있어서는 전공자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급의 연주곡들을 연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에 있어서도 정간보만 활용하자는 의견이 오선보와 정간보를 혼용하자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이는 대금 연주곡 중 산조나 정악곡이 모두 정간보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하나 현대 음악들은 모두 오선보로 작곡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선보와 정간보를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제재곡 구성으로 볼 때 동요나 민요, 대중가요, 가곡, 영화음악 등 귀에 익숙한 곡에서 시작하여 전통음악으로 나가는 순서를 학습자들은 요구하였다. 음악이론공부와 연주를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는 정간보나 12율명, 장식음이나 시김새 부호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해야 이후 악보를 읽고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지어 보면, 연구결과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조금 늦게 하더라도 세밀하게 지도하는 것을 보다 더 선호하며, 세밀한 지도와 더불어 반복 연습을 요구하는 것 역시 높았는데 이 역시 성인학습자들이 전문연주자와 달리 연습할 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암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들은 소리내기와 호흡법을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대금이 관악기라고 하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대금연주의 기초인 소리내기와 호흡법에 대한 지속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요구조사의 결과에 비추어 3단계로 제1차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적용을 실험연구를 통해 실시하여 그 효과와 의미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수정하는 나선형적 과정을 거쳤다. 먼저 1차 적용에서는 앞서 설계

된 프로그램을 성인학습자 13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소리가 쉽게 낼 수 있고 악기 값이 저렴한 플라스틱 정악대금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악보는 정간보와 조금 더 익숙한 오선보를 동시에 제시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제재곡 구성에서 기본적인 연습곡을 하고 익숙한 민요 아리랑, 도라지 타령, 밀양아리랑, 진도 아리랑으로 곡구성을 하였다. 연주법과 관련하여, 성인학습자들은 정간보 악보 보는 것을 어렵게 느끼지만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하니 점점 좋아졌다. 그러나 소리내기와 운지법에서는 왼손손가락 식지1공, 장지2공, 무명지3공까지 지공 막는데 어려움이 많아 대금을 배우는데 있어서 흥미를 잃기도 하여 결석을 하기도 하였다. 소리내기가 되면 기본적인 연습곡으로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이해하게 하였는데 숙지가 잘 안되면 울명 옆에 연필로 쓰도록 하여 이해하게 하였다. 초보자들에게 무리가 없도록 간단한 장식음을 사용하였다. 교수법 상으로는, 소리내기에 더 많은 연습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과 배우고자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에게 소리는 미숙하더라도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진도를 나가면서 반복, 그룹별, 개별수업을 진행하여,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였다. 이처럼, 1차 프로그램 실행 결과, 정악대금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성인학습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성찰과 학습자의 평가 하에, 2차 프로그램에서는 악기 사용을 산조 5관청 본청으로 바꾸었고 제재곡 구성 역시 좀 더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대중가요를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차 적용에서는 동일한 기관에서 새로 모집한 15명의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악기를 바꾸면서 악기가 작고 지공을 5개 사용하니 소리내기가 훨씬 수월하였다. 연주곡 구성에서도, 전문연주자들의 서면 평가에서도 산조대금 사용이 성인학습자들에게 대금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제재곡 역시 1차의 민요에 널리리야, 한오백년, 전통음악의 맛이 나는 가요 칠갑산으로 바꾸었더니 호응도도 좋아졌다. 연주법과 관련해서는, 악보는 1차와 같게 정간보, 오선보를 동시에 제시하였고, 소리내기와 운지법에서는 악기가 바뀌어 왼손손가락으로 식지1공, 장지2공을 막고 오른손손가락 식지로 3공을 막으니 지공 막기가 편해서 소리내기가 쉬웠다. 교수-학습 방법상으로도 악기의 특성 때문에 1차보다는 소리내기를 더 잘하여 진도를 빨리 나

갈 수 있었고 학습자 스스로가 수업 후 자발적인 연습시간을 많이 가졌다.

위와 같은 2차 적용에 따라 최종안에서는, 악기는 2차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소리내기, 운지법, 장식음 및 부호등도 같게 제시 하였고 연습곡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다만 제재곡 구성에서 소리내기가 수월해진 점을 고려하여 연습곡으로 전래동요와 가요를 더 추가하여 학습자들이 대금으로 익숙한 곡들을 더 많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15차시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완성하였다.

대금 입문 프로그램을 기획·설계하고 그 결과물을 실지로 2차에 걸쳐서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수자는 기존의 전문연주자가 되고자 입시 준비를 하는 입문 프로그램과 달리 초보자에게도 음악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신체적 조건과 이전 음악경험을 중시하여 악기를 선택하고 다양한 제재곡 구성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음악을 즐기면서 더 높은 단계로의 성장을 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입시를 위해서 대금에 입문할 때에는 학습자가 대금 연주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입시에 포함되는 곡들을 연주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결과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입문 프로그램이 학습자들이 전통악기를 직접 체험하고 이에 대한 수준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음악의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성인학습자들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참여에 미온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인학습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후에도 혼자 연습하고 좀 더 높은 단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성인학습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대금연주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경험의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들은 특히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동요나 민요, 대중가요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연주하는 등 음악을 향유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처음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교수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후의 지속적인 경

험의 재구성을 위해 어려운 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또한 깨달았다. 결과적으로 성인학습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외에도 지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을 위해 연습을 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배우자에게도 대금이나 전통 악기연주를 권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즉, 대금연주에 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는 다른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제언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금 입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전 음악적 경험에 대한 존중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얻게 된 평생교육에 대한 함의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대금을 포함한 전통음악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확대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확인하고 추후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평생교육에 대한 함의로는, 첫째, 대금 입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요구조사를 수행하고, 프로그램을 실지로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직업능력 개발 등의 기능주의적 측면 못지않게 인문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금 입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그 연령대가 다양하였으나 실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성인들은 40대 안정적 직장을 가진 남성로 말 그대로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자 대금 입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사회에서의 생애단계로 볼 때 일정 정도 삶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녀교육에 덜 관여하는 40대 남성들이 이러한 여가로서의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통음악교육이긴 하지만 이들이 전문연주자와 마찬가지로 정악 등을 처음부터 접하기보다는 전래동요, 민요, 가요 등 성인학습자의 일상적 경험과 연계된

곡 구성에 흥미를 느끼고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점은 소위 전통음악에 있어서의 고전(classics)라고 할 수 있는 연주곡보다는 자신들의 일상적 경험과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통음악의 전문가 세계에서 인정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수준에서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평생교육에 대한 함의는 실지로 대금 입문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대중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동시에 전통음악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전통음악을 좀 더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40대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전통음악에 참여하고 저소득, 저학력자의 참여 자체가 저조한 것은 생존에 쫓겨 취미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 가능하며, 이는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건을 사회적으로 마련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공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음악교육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대금 입문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대중화, 대금교육기관의 확대, 대금곡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대금연주곡의 구성과 학습속도, 활용 악보 및 연주 기법, 달성 가능한 목표수준 제시와 연습방법 등의 구체적인 교수법에 이르기까지 전문연주자를 위한 프로그램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금 입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대금 입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대로 실행하여 대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금연주자와 전문교수자들이 전문가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악보를 전통음악의 악보인 정간보와 세계의 악보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오선보를 같이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타당하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하게 되면 악보 읽기에서 혼동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두 악보 모두 읽을 수 있을 때 전통음악인 정악과 현대 음악 모두를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다만, 대금의 운지법, 정간보, 부호 등의 사용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의

경우 같은 율명을 사용하지만 실제 음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오선보 상으로는 다른 음으로 표현된다. 정간보와 오선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정간보의 율명과 음정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같은 음정에 같은 율명을 쓰는 방안을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금 입문 프로그램개발과 적용 연구로서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의의와 한계를 지닌다. 먼저, 이 연구는 전문연주자가 아니라 여가를 위한 성인학습자들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전통음악교육으로 대금 입문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전통음악을 다수의 성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까지의 전통음악 관련 연구들이 주로 학교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연구는 학교 밖 성인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여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로 이 연구는 입시준비를 위한 예비전공자들의 입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입시나 직업 등 도구적 목적을 지니지 않은 성인학습자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여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도구적인 목적을 지니지 않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으로도 수정하여 활용될 수 있다. 즉, 입시준비를 위한 입문이 아니라면 성인학습자가 아니더라도 음악자체를 향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금을 배우고자 하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입문 프로그램으로도 적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체재곡 구성시 대중가요보다는 전래동요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프로그램 설계에 그치지 않고 이를 대금전문연주자이자 교수자인 연구자가 직접 2회에 걸친 실행과정에서 반성과 수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적용과정은 연구자 자신의 실천적 지식에 근거한 반성과 학습자들의 평가에 대한 경청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연구과정은 ‘연구자로서의 교사’와 마찬가지로 ‘연구자로서의 교수자’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적용과정이 실행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교수자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연구결과가 나오리라는 일반화를 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적용은 연구자가 아닌 제3

의 교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비교 검증하여 프로그램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음악의 향유라는 정서적 측면을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제3의 전문교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전문교수자인 연구자가 실험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적용·평가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종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구자 외의 전문연주자이자 교수자들에게 서면으로 평가를 받아 활용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특정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참여자로 삼아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기관의 특성상 20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에게 적합하며 15차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2차시 혹은 24차시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기초하되 제재곡 구성에 있어서 좀 더 다양성과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역량과 지면의 한계상 실험연구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는 못하였으며 실험연구의 과정에서의 연구자의 반성, 그리고 학습자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정리되었다. 차후 다른 연구를 통해 이런 점을 극복하여 풍부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험연구가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립민속국악원 (2004). **국악교육의 이론과 실기**.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08). **개정판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 권두승 (1995). **평생교육론**. 경기도: 교육과학사.
- 김귀진 (2002). 평생교육으로서의 전통음악교육 활성화 방안-용인시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동위 (1996).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14, 5-31.
- 김셋별 (2008). 중학교 특기적성 교육에서 대금 지도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성철 (2011). 국악의 생활화를 위한 단계별 대금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4·5·6 학년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윤조 (2008). 중·고교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대금 지도법 연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서, 김신일, 한승희, 강대중 (2009). **평생교육개론**. 경기도: 교육과학사.
- 김주형 (2004). 외국성인학습자를 위한 가야금 교수법: 기초학습단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지용 (2002). 전통음악의 기악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중학교에서 대금지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미출판 교육대학원.
- 김진영 (1999). 성인 피아노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서울시 종로구와 강남구 소재 음악학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진화 (2001).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경기도: 교육과학사.
- 김현영 (2009). 비전공 성인 피아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따른 수업 관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화선 (2002). 예술경영 측면에서 본 전통음악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화수 (1996). 평생교육으로서의 사회 음악교육 진흥의 필요성과 현장분석 연구: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 남경호 (2007). 판소리 入聞을 위한 短歌 지도 연구: 「古往今來」를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대한민국예술원편찬위원회 (1985). **한국음악사전**. 서울: 대한민국예술원.
- 박범훈 (1992). **국악기의 이해**.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박현주 (2005). 현행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전통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배석영, 박성희, 박경호, 황치석 (2007). **평생교육개론**. 경기: 양서원.
- 변미혜, 한윤이, 김희라 (2008). **국악 용어 편수 자료집 I**. 서울: 민속원.
- 성경희 (1988). **심미적 음악교육의 본질**.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송민영 (2004). 평생학습 차원의 전통 음악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인식과 요구 분석. 아주대학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송선명 (1998). 초등학생을 위한 대금의 효율적인 학습방안 연구: 악기 개량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서한범 (1996). **국악통론**. 서울: 태림출판사.
- 오진경 (2010). 노인 국악교육 지도방안 연구: 민요. 장구교실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유효정 (2008). 생활과 음악 관련 내용 지도 방안 연구: 전통음악 감상활동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이경언 (2003). 유학의 조화사상이 한국 전통음악교육에 미친 영향. 단국대학교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2010). 초등학교 국악기악 지도방안 연구: 산조대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이복선 (2003). 성인 전통음악교육에 대한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이생강 (2003). **이생강의 민속악 대금교본**. 서울: 솔과학.
- 이소진 (2011). 예술계고등학교의 대금실기 지도 방안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이용숙, 김영현, 이혁구,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08).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이용숙 외 5인 공저 (2008).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이용일 (1989). **음악교육학개설**. 서울: 현대음악출판부.
- 이은미 (2008). 산조대금의 단계별 학습지도 방안 연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4). 한국 전래의 다문화적 음악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고려대학교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 이홍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임미경, 현경실, 조순이, 이에스더 (2010). **음악교수법**. 서울: 학지사.
- 장사훈 (1984). **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출판사.
- 장효전 (2005). 대학평생교육원의 음악교육 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전래동요 [傳來童謠]. 네이버 백과사전. 2012년 3월 10일에 검색하였음.
- 정재훈 (2012). 대금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3~6학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진 호 (1981). **예기집설(禮記集說)**. 서울: 경문사; 조남권, 김종수 공역 (2000). **역주악기**. 서울: 민속원.
- 조성래 (1996). **대금정악**. 서울: 도서출판 한소리.
- 조성래 (1999). **알기 쉬운 대금교본**. 서울: 도서출판 한소리.
- 조성래 (2005). **단소 기초편 단소교본**. 서울: 도서출판 한소리.
- 조성래 (2006). **초보자를 위한 단소교본**. 서울: 도서출판 한소리.
- 조성래 (2007). **초보자를 위한 대금교본**. 서울: 도서출판 한소리.
- 조흥기 (2004). **코다이 음악교육**. 서울: (주)세광음악출판사.
- 채광자 (2011). 성인학습자 대상 대금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연구. **교과교육연구**, 32(2), 67-90.
- 최윤복 (2002). 대금을 통한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

- 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진 (2006). 전국 4년제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의 음악교육 운영 실태. 성신 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한홍섭 (2000). **한국의 음악사상**. 서울: 민속원.
- 허화병, 김관희 (1995). **단소 민요곡집**.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홍은주 (2007). 평생교육 국악프로그램의 현황분석. **한국전통음악학**, 제8호, 333-372.
- 홍은주 (2008). 평생교육 국악프로그램 내용 분석 연구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중심으로. **한국전통음악학**, 제9호, 207-233.
- Abeles, H., Hoffer, C., & Klotman, R. (1984).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음악교육의 기초). 방금주 역(1990), 서울: 삼호출판사.
New York: Schirmer Books. 방금주(역) (1990).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삼호출판사.
- Coffman, D. D. (2002). 'Adult education'. In R. Colwell and C. Richardson(eds) *The New Handbook of Research of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lias, J. L., & Merrian, S. (1980).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Adult Education*. Florida: Krieger Publishing Company.
- Hinkle, L. B. (1988). 'The meaning of choral experience to Adult membership of the German singing societies comprising the United Singers Federation of Pennsylvania'.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87.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8 (2568A)
- Joseph, M., & Kristine, F. (1990) *The Enjoyment of Music: An Introduction to Perceptive Listening*. New York: W.W. Norton & Company, 신금선(역) (1997). **음악의 즐거움(上) 6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Kemmis, S., & Mctaggart, R. (2000).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pp. 507-606). London: Sage Publications

- Knowles, M. S. (1980) *The Modern Practices of Adult Education : From Pedagogy to andragogy* (2nd ed.). New York: Cambridge Books.
- Long, H. B. (1983). *Adult learning: Research and Practice*. Cambridge: The Adult Education Company.
- Noffke, S. (1989). *The social context of action research: A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08 756.
- Orff, K. (1978). *The Schulwerk, Vol.3: Carl Orff/Documentation, His life and Works*(칼 오르프 · 슐베르크). 김영전 역 (2006). 서울: 도서출판 음악세계.
- The Tanglewood Declaration (1967). http://en.wikipedia.org/wiki/Tanglewood_Symposium#The_Tanglewood_Declaration. 2012년 3월 14일 검색하였음.
- Reason, P., & Bradbury, H. (2001). Inquiry and participation in search of a world worthy of human aspiration. In P. Reason, & H. Bradbury (Eds.), *Handbook of action research: Participative inquiry and practice* (PP. 1-14). London: Sage Publications.
- Rothwell, W. J & Cookson, P. S.(1997). *Beyond Instruction: Comprehensive Program Planning for Business and Education*. Jossey-Bass Inc., Publishers.
- Sharan B., & Merriam Rosemary S., & Caffarella, Lisa M. Baumgartner(2007).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3/E*. John Wiley & Sons, Inc. 기영화, 홍성화, 조윤정, 김선주 공역 (2009). **성인학습론 3판**.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Schon, D.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Inc.
- Susan, H. (2006). *Music Psychology in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고선미(역) (2011). **음악교육 심리학**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 Willoughby, D. (1970). Institutes for Music in Contemporary Education: Their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Undergraduate Music Curricula. *Doctoral Dissertation, Eastman School of Music of University of Rochester*.
- Willoughby, D. (1971). *Comprehensive Musicianship and Undergraduate Music*

Curricula(CMP6). Washington, D. C.: Contemporary Music Project/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부록 1> 설문지

본 설문지는 대금(大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한 조사지로서 현재 음악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참여 실태와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금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해 보다 질 높고 만족스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밝혀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 7. 5.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채 광 자 올림

다음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 ② 여자 ()

2. 귀하의 나이는?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세 이상 ()

3. 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이하 () ② 대졸(전문대포함) () ④ 대학원이상 ()

4. 귀하의 월 평균 총 수입은?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

5. 귀하의 직업은?

- ① 가정주부() ② 경영-관리직 () ③ 사무직 ()
- ④ 상업 () ⑤ 전문직 () ⑥ 노무직 ()
- ⑦ 학생 () ⑧ 기술직 () ⑨ 종교인 ()
- ⑩ 기타 ()

다음은 음악교육 유/무와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6. 학교 졸업후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6-1. 만약 있으시다면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①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문화복지시설 ()
- ② 백화점 문화센터 등 기업체산하 시설 ()
- ③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 ()
- ④ 사설학원 ()
- ⑤ 초·중·고 방과 후 활동 ()
- ⑥ 개인레슨 ()
- ⑦ 기타 (구체적으로:)

6-2.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분야의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① 노래 () ② 악기연주 () ③ 작곡 또는 편곡 ()
- ④ 음악 감상 () ⑤ 기타 ()

6-3. 혹시 악기 연주의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6-4. 만약 악기를 배워본 경험이 있다면 악기를 이름을 써주십시오.

()

10. 전통음악에 흥미를 느끼니까?

- ① 흥미를 느낀다. () ② 보통이다 () ③ 흥미를 못 느낀다. ()

10-1.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해하기 어렵다 () ② 느리고 재미없다 () ③ 유행에 뒤떨어진다. ()

11. 평소에 전통음악을 자주 감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1-1. 만약 전통음악을 감상하신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음반() ② 라디오() ③ TV () ④ 연주회() ⑤ 기타()

12. 전통 악기를 직접 연주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2-1. 만약 연주해본 경험이 있다면 악기를 이름을 써주십시오.

()

다음은 대금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 대금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
- ②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
- ③ 연주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

- ④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
- ⑤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

14. 대금 지도를 어느 수준까지 받기를 원하십니까?

- ① 초급 : 쉬운 악보를 보고 연주 (동요, 가곡, 가요, 국악가요, 민요 등)
- ② 중급 : 소곡, 어려운 운지, 스케일을 연주 (간단한 시김새가 사용되어진 악보)
- ③ 고급 : 약간 어려운 연주곡들을 연주 (다양한 시김새가 사용되어진 악보)
- ④ 전공자 수준까지 (전통음악과 퓨전음악 등)

15. 어떤 악보로 배우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까?

- ① 오선보 ()
- ② 정간보 ()

15-1 어떤 순서로 악보를 활용하는 것이 배우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처음에는 오선보를 활용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정간보를 활용한다. ()
- ② 처음에는 오선보와 정간보를 함께 활용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정간보만 활용한다. ()
- ③ 오선보만 활용한다. ()
- ④ 정간보만 활용한다. ()
- ⑤ 기타 ()

16 운지법을 어떤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쉽습니까?

- ① 계이름 ()
- ② 율명 ()
- ③ 손가락 번호 ()
- ④ 기타 ()

16-1. 시김새, 장식음, 부호 등을 언제 배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리가 나면 바로 연습곡부터 ()
- ② 쉬운 시김새부터 한 곡에 한두 개 정도씩 배운다. ()
- ③ 정악을 배울 때부터 시김새를 배운다. ()
- ④ 기타 ()

16-2. 박자는 어떻게 익히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악보를 보고 구음으로 부르며 익힌다. ()
- ② 무릎장단을 치면서 구음으로 부르며 익힌다. ()
- ③ 강사의 구음을 따라 연주하며 익힌다. ()

④ 기타 ()

17. 대금으로 어떤 곡을 배우고 연주하고 싶으십니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① 민요 ② 산조 ③ 가요 ④ 동요 ⑤ 국악가요 ⑥ 정악
()

17-1. 아래 보기 중 곡 연주를 배우는 순서로는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요, 민요, 대중가요, 가곡, 영화음악 등에서 시작한 후 소리내기가 익숙해지면 전통음악을 배운다. ()
② 악보 보기와 소리내기가 가능하면 바로 전통음악을 배운다. ()
③ 기타. ()

18. 대금을 배우면서 음악 이론공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② 병행되어야 한다. ()
③ 병행되지 않아도 된다. () ④ 별로 상관없다 ()
⑤ 잘 모르겠다. ()

19-1.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9-2. 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 배우면서 진도는 어느 정도로 나가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진도를 조금 늦게 나가더라도 세밀하게 지도한다.
② 악보를 읽어 간다는 생각으로 진도를 빨리 나가되 반복을 여러 번 한다.
③ 진도를 빨리 나가면서 반복하며 간단한 기교도 배운다.
④ 기타 ()

21. 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많은 연습을 한다. ()
② 수업 시간에는 잘 참여하며, 수업 이외의 시간에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한다. ()
③ 수업 시간에는 잘 참여하지만,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연습을 거의 못한다. ()

- ④ 수업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참석하는 편이다 ()
- ⑤ 수업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편이다 ()

21-1. 수업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일 때문에 () ② 흥미가 떨어져서 () ③ 기타 (구체적으로:)

22. 현재 어느 정도까지 연주가 가능합니까?

- ① 거의 할 수 없다 ()
- ② 쉬운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다 ()
- ③ 소곡, 어려운 운지, 스케일을 연주할 수 있다 ()
- ④ 약간 어려운 연주곡들을 연주할 수 있다 ()

22-1. 강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취하였다 () ② 보통이다 () ③ 아니다 ()

22-2. 강사가 요구하는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에 비해 너무 어려운 수준이었다. ()
- ② 본인에 비해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다. ()
- ③ 무난한 수준이었다. ()
- ④ 본인에 비해 약간 쉬운 수준이었다. ()
- ⑤ 본인에 비해 매우 쉬운 수준이었다. ()

22-3. 강사의 요구수준과 상관없이 본인이 목표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23. 레슨을 받으면서 본인이 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자세 () ② 소리내기 () ③ 호흡법 ()
- ④ 주법 () ⑤ 리듬 () ⑥ 박자 ()
- ⑦ 기타 ()

24. 대금을 배우면서 바람직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악보 읽기 등 음악 이론에 대한 지식이 넓어졌다 ()
- ②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다 ()
- ③ 생활에 즐거움이 생겼다 ()
- ④ 음악적 감각이 높아지고 정서가 안정되었다 ()
- ⑤ 악기를 다루는 능력과 자신감이 높아졌다 ()
- ⑥ 일상을 벗어나 동호인과의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
- ⑦ 잘 모르겠다. ()

24-1. 앞의 보기 내용 이외에 대금을 배우면서 바람직한 변화가 더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시오.

()

25. 앞으로 효과적인 성인 대금연주 교육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대금의 이해

1. 대금의 구조와 종류

대금이라는 악기는 한국의 국악기중 가야금, 거문고등과 함께 많이 알려지고 자주 연주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악기이다.

대금은 신라 삼죽¹⁶⁾ 중에서 가장 굵고 긴 가로로 부는 관악기로서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서 합주는 물론 독주 악기로도 많이 연주된다. 대금의 취법은 3종으로 구분되는데 아래 음역의 소리들은 부드럽고 순하게 김을 넣는 저취(低吹), 중간음역은 보통 세기로 내는 평취(平吹), 높은 음역은 강하게 김을 넣는 역취(力吹)법 등이 있다. 특히 대금이라는 악기는 낮은 음역의 음빛깔과 높은 음역의 음빛깔이 전혀 다른 악기처럼 들리는 것이 장점이며 비교적 정해진 음률을 지니고 있어 조율(調律)의 기준이 되는 장점이 있다(서한범, 1996).

(1) 대금의 구조

대금은 쌍골죽¹⁷⁾ 밑동쪽으로 만드는 것이 제격이어서 가장 좋으나 대용으로는 여러 해 묵은 황죽¹⁸⁾으로도 자르니 길이가 약80센티미터에 내경이 2센티미터가 넘는 굵고 긴 가로저이다.

첫 마디에 취구(吹口)가 있고 다음 마디에 청공(淸孔)이 있어 가부(葭葦)라고 하는 갈대 속 청(精)을 붙여 진동시킴으로서 맑은소리를 더욱 청청하게 울려 내게 하며 그 아래로 있는 여섯 지공(六指孔)을 왼손 검지, 장지, 무명지로는 마디를 구부려 세워 손끝으로 一, 二, 三공, 오른손 검지, 장지, 무명지로는 펴서 四, 五, 六공을 각각 울에 따라 여닫아 저취, 평취, 역취¹⁹⁾로서 발음하니 이의 청아하고 투명한 음색은 대금 고유의 특성으로 자랑 삼아 독주 악기로도 이름 높은 바이다.

16) 저(箏), 생황, 필률의 세 관악기를 이르는 말. ≡삼죽적

17) 마디의 양쪽에 홈이 패고, 살이 두껍고 단단한 대나무. 쌍골죽을 쓰는 이유는 살이 두껍고, 단단하여 그 소리가 좋기 때문이다.

18) 대나무 숲 숲을 이룬대 = 왕대

19) 대금 중금 당적 단소등 관악기 연주법의 한 가지. 저취는 김을 약하게 넣어불고, 평취는 보통김으로 불고, 역취는 김을 세게 넣어 부는 방법임. 저취와 평취, 평취와 역취는 대개 한 옥타브 관계를 가지고 있음. 『악학궤범』, 권1, 25b~27a, 십이울배속호

여섯 음공 아래로 칠성공(七星孔)이라는 다섯 개의 불용공이 있었으나 그 수에는 제약이 없고 다만 음정과 체제 미장의 조화작용을 할 뿐이다(김기수, 이상용(2001)).

(2) 대금의 종류

대금(大笏)은 일명 ‘젓대’ 라고도 한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대금은, 전래 악기인 정악대금과 산조 대금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 새로 작곡된 창작곡, 노래반주 및 무용 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Key)를 다르게 하여 새로 제작한 대금도 있다.

① 정악대금

정악대금은 정악의 연주에 주로 사용되지만, 독주곡, 무용 반주곡, 창작곡 등의 연주에 폭넓게 활용되는 관악기이다.

② 산조대금(시나위²⁰) 젓대)

산조를 비롯하여 시나위, 민요반주, 무용반주, 창작곡 등의 연주에 사용되는 산조대금은 정악대금보다 관(管)의 길이가 짧고, 산조나 시나위 및 민요 반주 등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③ 새로 만든 대금

조(Key)가 다른 음악을 편리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관의 길이를 달리하여 제작된 새 대금은 A관, B관, C[#]관, D관, E^b관, F관, G관 등이 있으며, 그 연주법은 전래 대금과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여러 종류가 모두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박범훈, 1992).

20) 전라도 지방 무악(巫樂)의 한 가지. 장단은 산조와 같고, 향피리, 대금, 해금, 장고로 편성되며 불협화음(不協和音)을 내는 듯하면서도 조화(調和)를 이루는 데서 묘미가 있음.



그림. 대금의 종류

2. 연주 자세와 부는 방법 익히기 및 소리내기

(1) 올바른 자세

전통음악은 일반적으로 방석이나 돛자리위에 앉아서 연주를 한다. 먼저 자연스럽게 앉아서 허리를 똑바로 편 다음, 머리는 약45도 정도로 좌로 돌리고 고개를 약간 숙인다. 시선은 전방 약15도 아래로 본 다음, 악기를 가볍게 쥐고 수평으로 든다.

연습을 하다 보면 팔에 힘이 빠져 악기가 쳐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수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습을 오래 하다 보면 허리가 저절로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좋지 않은 자세이며 자세가 흐트러지면 음악이 아무리 훌륭해도 보기에 좋지 않으며, 특히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자세가 바르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2) 부는 방법 및 소리내기

소리가 나는 원리는 취구(吹口)²¹⁾에 입김이 들어가 둘로 갈라져서, 반은 밖으로 나가고 반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공명(共鳴)이 되어 소리를 만들어 낸다. 먼저 옆에서 보아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일치시킨 다음, 아랫입술을 주름이 없이 펴고, 취구가 아랫입술 한 가운데 위치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가볍고 약하게 휘-하고 입김을 불어 넣는다. 초보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도 소리를 빨리 날수 있다. 대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까지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조성래, 1999).

소리내기에서는 평취음이 가장 쉽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먼저 양 입술에 힘을 주면서 양손으로 바르게 악기를 쥐고, 취구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휘- 하고 소리를 낸다. 취구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불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대금 연주 할 때의 자세로 하고 소리 내기를 한다.

(3) 호흡법

호흡은 복식호흡을 하도록 하는데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숨을 들이 쉴 때 코와 입으로 재 빨리 숨을 들이 쉰 다음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천천히 가늘게 내 뿔으면서 소리를 내쉬어 연습하도록 하고 몇 번 이고 반복 연습을 하여 익숙해지도록 연습한다. (조성래, 1999)

3. 대금의 음역

21) 대금이나 단소등의 관악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구멍

(1) 대금 주요 7음의 오선보 및 율명

林 備 無 黃 太 姑 仲 林 南 無 潢 汰 澍 沖 淋 滂 濼 潢 汰

(2) 12율명, 음정과 음계

전통음악도 서양음악과 마찬가지로 한 옥타브 내에 모두 12음정을 가지고 있으며 음과 음사이가 반음(半音)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음악에서는 주음(主音 : 으뜸음)을 황종(黃鐘)으로 삼으며, 이 음은 서양음악의 내림 마(E^b)이다.

<전통 음악의 12율명과 오선보>

황 종 내 려 태 주 협 중 고 선 중 유 빈 임 중 이 칩 남 려 무 역 응 중

(3) 저취음

저취 - 임(林), 남(備), 무(無), 황(黃), 태(太), 고(故), 중(仲) = 아랫단(저취)

<저취의 오선보, 율명>

林 備 無 黃 太 姑 仲 林

(4) 평취음

평취 - 임(林), 남(南), 무(無), 황(潢), 태(汰), 고(澍), 중(沖) = 중간단(평취)

<평취의 오선보, 율명>



林 南 無 潢 汰 澁 泚 淋

(5) 역취음

역취 - 임(淋), 남(漚), 무(濩), 황(潢), 태(汰) = 높은단(역취)

<역취의 오선보, 율명>



淋 漚 濩 潢 汰

4. 운지법

(1) 정악 대금의 운지법
정악 대금의 음정과 운지법

		「 왼 손 」			「 오른손 」					
		○	○	○	○	○	○	○ ○		
		취 구	청 공	1공	2공	3공	4공	5공	6공	칠성공
				1	2	3	4	5	6	
.....	倝(임)	●	●	●	●	●	●	
저	備(남)	●	●	●	●	●	○	
	無(무)	●	●	●	●	○	●	
	黃(황)	●	●	●	○	○	●	
	太(태)	●	●	○	○	○	●	
취	姑(고)	●	○	○	○	○	●	
.....	仲(중)	○	●	●	○	○	●	
평	林(임)	○	●	●	●	●	●	
	南(남)	●	●	●	●	●	○	
	無(무)	●	●	●	●	○	●	
	潢(황)	●	●	●	○	○	●	
	汰(태)	●	●	○	○	○	●	
취	澍(고)	●	○	○	○	○	●	
.....	沖(중)	○	○	○	○	○	●	
역	淋(임)	●	●	●	○	○	●	
	漙(남)	●	●	○	○	○	●	
	無(무)	●	○	○	○	○	●	
취	潢(황)	○	○	○	●	●	●	
.....	汰(태)	●	●	○	●	●	●	

손잡는 방법

왼손	제1공: 식지
	제2공: 장지
	제3공: 무명지
오른손	제4공: 식지
	제5공: 장지
	제6공: 무명지

(2) 산조대금의 운지법

산조대금 5관청 안공표

○ ... 열기
● ... 닫기



저취(낮은소리)

	1	2	3	4	5	6
黃(황)	●	●	●	●	●	○
太(태)	●	●	●	●	○	○
仲(중)	●	●	○	●	○	○
林(임)	●	○	○	○	●	○
南(남)	○	○	○	○	●	○

평취(중간소리)

	1	2	3	4	5	6
潢(황)	●	●	●	●	●	○
汰(태)	●	●	●	●	○	○
洵(중)	●	●	○	●	○	○
淋(임)	●	○	○	○	●	○
瀟(남)	○	○	○	○	●	○

역취(높은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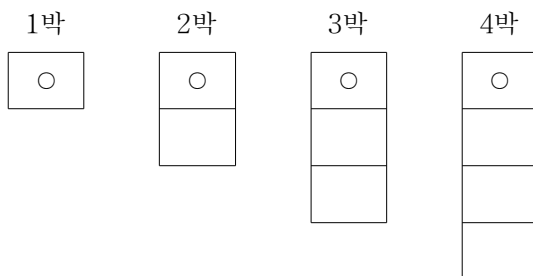
	1	2	3	4	5	6
潢(황)	●	●	○	○	●	○
汰(태)	●	○	○	○	●	○

손잡는 방법

- 왼 손 (1) 제1공: 식지
 (2) 제2공: 장지
- 오른손 (3) 제3공: 식지
 (4) 제4공: 장지
 (5) 제5공: 무명지
 (6) 제6공: 열어 놓는다.

5. 정간보

정간보란 우물정(井)자 모양인데 여러 개의 음명을 적어 넣어 음정의 높고 낮음과 박자를 표시한 악보로, 한 칸 [一井間] 을 한 박으로 쳐서 음의 시가(時價)를 나타내는 세종대왕이 창안하신 우리나라 고유의 악보이다.



<그림3>한 정간의 박자 세는 법

정간보의 세로 한 줄을 1 행(行), 또는 1 각(刻), 혹은 1 장단(長短)이라 부른다. 또 한 각에서 큰 구분을 하는 경우(굵은 줄로 나눈 경우)에는 대강(大綱)이라 부른다.

(1) 악보 읽는 방법

정간보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 간다. 그리고 맨 오른쪽 줄에서 왼쪽으로 읽어간다. (옛날 신문, 고서 등과 읽는 방법이 같다.) 정간 안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2) 기보 방법

정간보는 1정간 1박이 기본이다. 그리고 1정간을 1/2, 1/3, 1/4, 1/6, 1/9, 1/12박의 시가²²⁾로 나뉘게 된다. 크게, 이분식 기보법과 삼분식 기보법으로 나뉜다. 이분식 기보법은 2박자 계열이고 삼분식 기보법은 3박자 계열이다.

한 정간에 한음이 있는 경우 온전한 한음이고 한 정간에 두음이 있는 경우 반박

22) 음표 또는 쉼표로 나타내는 길이

을 나뉘가진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한 정간 안에 세로로 줄이 몇 칸이냐에 따라 나누는 박이 다르고 가로로 음이 복수로 있는 경우 나눈 박에서 다시 박을 나눈다. 한 정간을 4분 음표나 점 4분 음표나에 따라 서양식으로 박자를 나누는 것이 달라지는데 흔히, 이분식은 4분 음표 삼분식은 점4분음표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표기가 있는 경우는 전에 있는 박을 연장한다는 의미이고 삼각형(△)이 있는 경우는 쉼표를 의미한다. 그리고 쇠가를 변하게 하기 위하여 덧길이, 반길이 부호가 있다. 덧(|)길이는 음을 1/2 늘이고 반(·) 길이는 음을 1/2로 줄인다(조성래, 2006).

정간보 2분식 기보법의 방법(국립민속국악원장, 2004).

① ②	1/2+1/2		① ②③	1/2+1/4+1/4	
① -②	3/4+1/4		①② -③	1/4+1/2+1/4	
①② -	1/4+3/4		①② ③④	1/4+1/4+1/4+1/4	

정간보 3분식 기보법의 방법

① ② ③	1/3+1/3+1/3		① ② ③ ④	1/3+1/3+1/6+1/6	
① - ②	2/3+1/3		① ② ③ ④	1/3+1/6+1/6+1/3	
① ② -	1/3+2/3		① ② ③ ④	1/6+1/6+1/3+1/3	
①② - ③	1/6+1/2+1/3		① ② ③ ④ ⑤	1/6+1/6+1/6+1/6+1/3	
①② ③ -	1/6+1/6+2/3		① ② ③ ④ ⑤	1/6+1/6+1/3+1/6+1/6	
① - -②	5/6+1/6		① ② ③ ④ ⑤	1/3+1/6+1/6+1/6+1/6	
① -② ③	1/2+1/6+1/3		① ② ③ ④ ⑤ ⑥	1/6+1/6+1/6+1/6+1/6	

6. 장식음과 부호 및 악상기호

장식음이란 어느 한 음정 옆에다 여러 가지 기호(ㄴ, ㄹ, ㄷ, ㄹ) 등을 붙여 그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꾸밈음을 말한다.

대금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손놀림이 아주 편리해지는데 이런 경우 대금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잡한 가락들을 한정된 정간보 위에 전부 기보(記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단한 부호와 장식음으로 대신하여 표기한다.

이러한 장식음과 부호는 오래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 되는 것이니 애써 외우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조성래, 1999).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에서 한음 아래 음, 두음 아래 음 또는 한음 위 음, 두음 위음이란 대금의 기본 5음인 중, 임, 남, 황, 태의 순서로 어느 음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음의 위 음과 아래 음을 말한다. 그리고 본음이란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가 붙은 바로 그 음을 말한다(국립민속국악원, 2004).

부호란 장식음과 달리 음정 옆에 붙지 않고 정간안에 위치하고 있어 제 시가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음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음의 위와 아래음을 말한다(조성래2005).

장식부호(음을 꾸며주는 부호)

ㄸ	본음보다 하나 위음을 먼저내고 본음을 내는 표	林 ㄸ	→	無林 - -
ㄹ	두음 위음을 먼저내고 본음을 내는 표	潢 ㄹ	→	泫潢 - -
ㄺ	본음보다 하나 아래음을 먼저 내고 본음을 내는 표	汰 ㄺ	→	潢汰 - -
ㄻ	두음 아래음을 먼저내고 본음을 내는 표	潢 ㄻ	→	林潢 - -
ㄼ	본음, 한음 위음, 본음을 속히 굴러내는 표	林 ㄼ	→	林無林 - -
ㄽ	본음, 한음 아래음, 본음을 속히 굴러내는 표	林 ㄽ	→	林仲林 - -
ㄾ	본음, 한음 위음, 본음을 같은 길이로 내는 표	潢 ㄾ		潢汰潢 汰潢 汰
ㄿ	본음, 한음 아래음, 본음을 같은 길이로 내는 표	汰 ㄿ		汰潢 潢汰 汰
ㅀ	한음 아래음, 본음, 한음 아래음을 내되 본음을 길게 내고 앞뒤의 음들은 짧게 내는 표	無 ㅀ	→	林無 - -林
ㅁ	한음 아래음, 한음 위음을 짧게 내고 본음을 내는 표	林 ㅁ	→	仲無林 - -
ㅂ	두음 아래음, 한음 위음을 짧게 내고 본음을 내는 표	林 ㅂ	→	林汰潢 - -
ㅃ	본음, 한음 아래음, 한음 위음을 짧게 내고 본음을 길게 내는 표	淋 ㅃ	→	淋仲淋無 - -

① 악기부호(울명을 생략해서 적은 부호)

ㄱ	한음 아래음을 길이만큼 내는 표
ㅋ	두음 아래음을 길이만큼 내는 표
ㄴ	한음 위음을 길이만큼 내는 표
ㄷ	두음 위음을 길이만큼 내는 표
ㄹ	한음 위음과 본음을 같은 길이로 내는 표
ㅍ	한음 위음과 두음 위음을 같은 길이로 내는 표
ㅑ	한음 아래음과 두음 아래음을 같은 길이로 내는 표
ㅓ	한음 위음, 본음, 한음 아래음을 같은 길이로 내는 표
ㅕ	두음 위음, 한음 위음, 본음을 같은 길이로 내는 표
ㅗ	한음 위음, 두음 위음, 한음 위음, 본음, 두음 위음을 같은 길이로 내는 표
ㅛ	한음 위음, 본음, 한음 아래음, 본음을 같은 길이로 내는 표
ㅜ	한음 아래음, 본음, 한음 위음, 본음을 같은 길이로 내는 표

汰	→	汰
ㄱ	→	潢
潢	→	潢
ㅋ	→	林
潢	→	潢
ㄴ	→	汰
潢	→	潢
ㄷ	→	沖
沖	→	沖
ㄹ	→	淋沖
仲	→	仲
ㅍ	→	林無
無	→	無
ㅑ	→	林仲
潢	→	潢
ㅓ	→	汰潢無
仲	→	仲
ㄴ	→	無林仲
沖	→	沖
ㅗ	→	淋無淋 沖無
ㅛ	→	潢
ㅜ	→	潢
ㅜ	→	汰潢無潢
ㅜ	→	潢
ㅜ	→	潢
ㅜ	→	無潢太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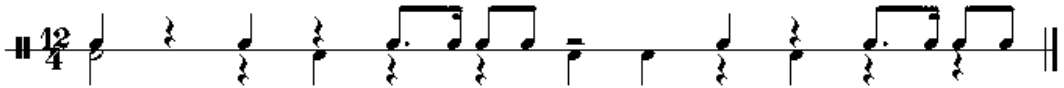
연주 기법상 표현부호

	덧길이표	본음의 길이에서 반 길이를 보태라는 표	
·	반길이표	본음의 길이에서 반 길이를 줄이라는 표	
△	쉽표	시가만큼 쉬라는 표	
<	숨표	숨을 짧게 쉬라는 표	
▼	끓는표	음을 짧게 끓으라는 표	
ㄱ	흘림표	음을 흘려 내리라는 표	
ㄴ	미는표	음을 밀어 올리라는 표	
ㄷ	떠는표	음을 떨어주라는 표	
ㄹ	풀어 내리는표	음을 풀어 내리는 표	
ㄺ	늘임표	본래의 시가보다 두배(ㄺ) 내지 세배(ㄻ)로 늘이라는 표	
ㄻ	반복표	ㄻ 표시가 있는 곳에서 ㄴ 표시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라는 표	
ㄿ	내림표	반음 내리고자 할 때 음을 아래에 붙이는 표	
-	이음줄	앞의 음을 잇대어 부는 표	

7. 장단

(1) 중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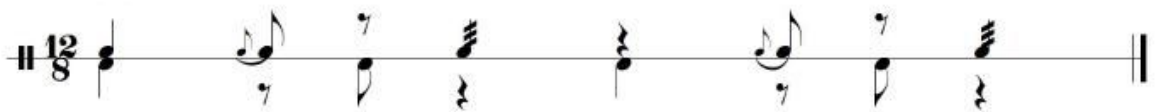
판소리나 민요, 산조 등에 쓰이는 중간 속도 즉, 보통 빠르기로 된 장단으로 12박으로 되어 있다. 중모리의 ‘중’은 중간 속도라는 뜻이고 ‘모리’는 문다는 뜻을 갖고 있다. 민속악에서는 곡의 속도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하며, 산조에서는 곡명으로 가리키기도 한다.(변미혜, 2008)



(2) 굿거리

경기도 농악에 쓰이는 쇠가락의 하나 느린 12/8 박자로 삼현육각이나 경기도 민요에서 쓰이는 것과 같다.

굿거리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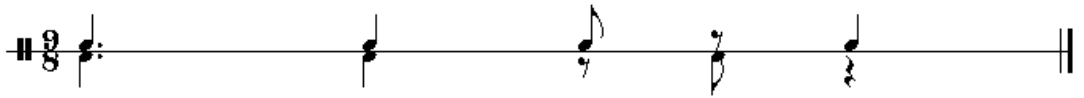
(3) 자진모리

판소리나 민요, 산조 등에 사용되는 장단의 하나. 조금 빠른 3소박4박 장단으로 되어있다. 자진모리의 ‘자진’은 빠른 속도라는 뜻이고 ‘모리’는 문다는 뜻이므로 자진모리는 보통보다 빠르게 모는 장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속악에서는 곡의 속도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하며, 산조에서는 곡명으로 가리키기도 한다.(변미혜, 2008)



(4) 세마치

경기민요에 사용되는 3소박3박으로 된 장단. 이때 세마치는 3박을 의미하는데 4장단이 한 주기를 이룬다. ‘아리랑’ ‘도라지’ 등과 같은 곡에 사용된다.(변미혜, 2008)



<부록 3> 1차 프로그램 학습자 면담 질문지

1차

1. 어떤 동기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셨는지요?
2. 대금을 어느 정도까지 실력을 갖추었으면 하는지요?
3. 대금하시기전에 다른 악기를 연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2차

1. 대금을 배우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평상시에 연습하실 수는 있으십니까?
3. 대금을 배우면서 보람은?
4. 연습을 하신다면 주로 어디서 연습하십니까?
5. 연습은 주로 언제하십니까?
6. 연습하는데 장애 요소는?
7. 바라는 점은?

3차

1. 어느 정도까지 배우고 싶으세요?
2. 배우는 순서를 민요부터 배워서 어떠세요?
3. 오선보랑 정간보를 같이 병행하는데 어떻습니까?
4. 진도는 어느 정도?
5. 시김새 장식음을 같이 병행하면 좋겠어요?

<부록 4> 1차 수정된 15차시 세부 본시 학습과정안

학습제재	대금에 대한 이해
------	-----------

1. 개관

대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전통음악에 관한 설명과 DVD 감상을 통하여 전통음악의 이해를 돕는다.

2. 학습 목표

- 대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 전통음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DVD를 보면서 전통음악을 이해한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이 수업의 목적은 성인 학습자들이 앞으로 대금을 연주하기에 앞서 대금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인 개관을 갖고 대금의 맥락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각각의 내용을 각 차시에 주제별로 자세히 다루게 되므로 본 차시에서는 전체적인 대금에 대한 악기 설명과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민요 등을 대금으로 들려주고 매체들을 이용하여 전통음악에 관한 것과, 대금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대금의 유래, 종류 등 기초적인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지도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대금에 대한 이해	차시	1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대금 유래, 구조 및 명칭, 연주자세, 호흡법, 소리내보기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대금의 개요		
학습 목표	• 대금의 구조, 종류 등 대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학습 자료	교 사	다양한 종류의 대금, 연주 DVD	
	학습자	악기 소지자는 개인 소지 악기를 준비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를 소개하며 인사한다. • 출석을 확인한다. • 학습자들 개별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며 대금을 배우러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 • 앞으로 15차시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및 대금을 배우는 목적 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 종류별 대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악기 소리를 들려주면서 각 악기의 다른 점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악대금, 산조대금, 5관반대금(D key), 5관대금(E^b key) 등 • 주요 장르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음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DVD를 보면서 전통음악의 이해를 돕는다. 국악 관현악곡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스틱 대금 구입 방법 등을 알려준다. • 수업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p> 전통음악의 이해와 관심		

1. 개관

대금의 음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운지법과 연주시 바른 자세 등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연습한다.

2. 학습 목표

- 대금 부는 방법, 소리내기, 호흡법 등을 안다.
- 대금의 음역에 대해서 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전 학기에는 플라스틱 정악대금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학습자가 성인이다 보니 손가락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소리내기도 힘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산조대금의 오관 분청으로 수업을 바꾸어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 대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후, 복식호흡과 대금 음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운지법과 연주시 바른 자세를 설명하고 연습하도록 지도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대금 소리내기	차시	2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대금 부는 방법, 소리내기, 호흡법, 대금 음역, 율명	호흡법과 소리내기, 바른 자세 등을 연습한다.	
학습 주제	대금 부는 방법, 소리내기, 호흡법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 부는 방법, 소리내기, 호흡법 등을 안다. • 대금의 음역에 대해서 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CD, DVD, 대금의 안공표	
	학습자	플라스틱 대금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묻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대금의 구조를 파악한다(명칭, 구조)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 내는 방법, 호흡법, 손가락 잡는 법, 지공 이름과 번호를 알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연주자세 <p>전통음악은 일반적으로 방석이나 돗자리위에 앉아서 연주를 한다. 먼저 자연스럽게 앉아서 허리를 똑바로 편 다음, 머리는 약45도 정도로 좌로 돌리고 고개를 약간 숙인다. 시선은 전방 약15도 아래로 본 다음, 악기를 가볍게 쥐고 수평으로 든다. 연습을 하다 보면 팔에 힘이 빠져 악기가 쳐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수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연습을 오래 하다보면 허리가 저절로 구부러지기도 하고, 몸이 뒤로 젖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자세이며 자세가 흐트러지면 음악이 아무리 훌륭해도 보기에 좋지 않으며, 특히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자세가 바르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p> - 부는 방법 및 소리내기 <p>소리가 나는 원리는 취구(吹口)에 입김이 들어가 돌로 갈라져서, 반은 밖으로 나가고 반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공명(共鳴)이 되어 소리를 만들어 낸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일치시킨 다음, 아랫입술을 주름이 없이 펴고, 취구가 아랫입술 한 가운데 위치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가볍고 약하게 휘-하고 입김을 불어 넣는다. 초보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자기의 입술 위치 어디에 오면 소리가 잘 나는 지를 파악하여 방법을 찾는 것도 소리를 빨리 나게 할 수 있다. 대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까지에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p> <p>소리내기에서는 평취음이 가장 쉽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먼저 양 입술에 힘을 주면서 양손으로 바르게 악기를 쥐고, 취구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휘- 하고 소리를 낸다. 취구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불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대금 연주 할 때의 자세로 하고 소리 내기를 한다.</p> <p>초보자들은 소리내기 연습을 많이 하면 현기증이 일어나므로 쉬어 가면서 소리내기를 한다. 반복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현기증도 사라진다.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휘-하고 입김을 내 뱉지 않기 때문이니 걱정 할 것은 없다. 먼저 평취음을 배우는 이유를 설명하고 소리 내면서 율명이 외워지도록 하고 간단한 이론 정도를 설명한다.</p> 	60분

- 호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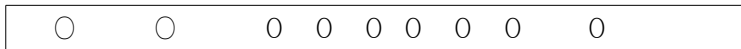
호흡은 복식호흡을 하도록 하는데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숨을 들이 쉴 때 코와 입으로 재 빨리 숨을 들이 쉰 다음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천천히 가늘게 내 뱉으면서 소리를 내쉬어 연습하도록 하고 몇 번이고 반복 연습을 하여 익숙해지도록 연습한다.

- 지공 이름과 번호 익히기

<산조대금 5관청 안공표>

○ ... 열기
● ... 닫기

「왼손」 「오른손」



전개

취구 청공 1공 2공 3공 4공 5공 6공 칠성공

저취(낮은소리)


		1	2	3	4	5	6
黃(황)	●	●	●	●	●	○	○
太(태)	●	●	●	●	○	○	○
仲(중)	●	●	○	●	○	○	○
林(임)	●	○	○	○	●	○	○
南(남)	○	○	○	○	●	○	○

평취(중간소리)

		1	2	3	4	5	6
潢(황)	●	●	●	●	●	○	○
汰(태)	●	●	●	●	○	○	○
洵(중)	●	●	○	●	○	○	○
淋(임)	●	○	○	○	●	○	○
瀟(남)	○	○	○	○	●	○	○

역취(높은소리)

		1	2	3	4	5	6
潢(황)	●	●	○	○	●	○	○
汰(태)	●	○	○	○	●	○	○

전개	<p>- 손잡는 방법</p> <p>왼 손 (1) 제1공: 식지 (2) 제2공: 장지</p> <p>오른손 (3) 제3공: 식지 (4) 제4공: 장지 (5) 제5공: 무명지 (6) 제6공: 열어 놓는다</p> <p>()안의 숫자는 대금을 배울 때 지공을 쉽게 기억 할 수 있도록 손가락을 번호로 붙여 보았다. 몇 번째 손가락 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몇 공을 열고 막아주세요 하면 쉽게 기억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 소리내기를 한다. • 대금의 음역을 안다. • 12울명의 음정과 음계를 안다. <p>- 12울명, 음정과 음계</p> <p>전통음악도 서양음악과 마찬가지로 한 옥타브 내에 모두 12음정을 가지고 있으며 음과 음 사이가 반음(半音)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음악에서는 주음(主音 : 으뜸음)을 황종(黃鐘)으로 삼으며, 이 음은 서양음악의 내림마(E\flat)이다.</p> <p>대금 악보 즉 정간보에서는 음이름 앞에 인(イ)이 붙으면 옥타브 아래 음이고 수(叟)가 앞에 붙으면 한 옥타브 위음이 되고 (ㄷ) 두 개가 붙으면 두 옥타브 위음이 된다.</p> <p>- 전통 음악의 12울명과 오선보</p> <p><12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장르 감상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전 음역 소리를 들려주며 음의 높낮이를 구별해서 다음 시간에 잊지 않도록 한다. • 평취 소리를 집에서 연습하도록 한다. 	20분
평가	평가내용 대금 소리내기와 호흡법	

1. 개관

본 차시에는 평취음(중간단) 漚(남)=C, 淋(임)=B^b, 泚(중)=A^b 를 소리내기 한다.

2. 학습 목표

- 평취음을 익힌다.
- 손가락 늘이기를 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평취음(중간단) 漚(남) = C, 淋(임) = B^b, 泚(중) = A^b 음까지 연습하는데 있어서 소리가 잘 나지 않으면 漚(남) = C, 淋(임) = B^b, 泚(중) = A^b, 연습을 하는 중간에 다시 지공을 열어 위음 소리를 내고 나서 아래 음을 내도록 해야 한다.

복식호흡은 되지 않지만 하도록 노력하면서 음 하나 하나에 숨이 다할 때까지 길게 불면서 소리를 내도록 지도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평취음 漚(남), 淋(임), 泚(중)	차시	3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평취음, 율명	평취음 漚(남), 淋(임), 泚(중) 연습,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漚, 淋, 泚 운지법 및 소리내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음을 익힌다. • 손가락 늘이기를 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CD,	
	학습자	대금, 대금 안공표, 파일에 악보 끼워오기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소리내기를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평취음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평취음 중에서 漚(남) = C, 淋(임) = B^b, 泚(중) = A^b 음을 알고 소리를 낸다. - 漚(남) = c 음은 손가락을 다 열고, 淋(임) = B^b은 왼손가락 식지1공 막고(1공이라 칭), 泚(중) = A^b은 오른손 식지2공 막고(2공이라 칭), 장지4공 막고(4공이라 칭), (1,2,4공)이라 칭한다. - 성인 학습자들은 손가락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공, 2공, 오른손 장지로 4공을 막으니 쉽게 소리가 난다. • 평취 3음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평취음 중에서 漚(남) = C, 淋(임) = B^b, 泚(중) = A^b 3음의 소리 반복 연습을 하여 소리가 나게 하면서 울명도 함께 익히게 한다. •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 3음을 들려주고 정확한 음 높이를 익히게 하면서 소리를 내며 울명도 함께 외워지게 한다. - 다소 지루하고 힘이 드니 대금 독주곡들을 들려준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 수업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p> <p>평취음 漚, 淋, 泚 운지법 및 소리내기</p>	

학습제재평취음(중간단) 태(汰)=F, 황(潢)= E^b**1. 개관**

본 차시에는 평취음(중간단) 태(汰) = F , 황(潢) = E^b 를 익힌다.

2. 학습 목표

- 대금의 평취음, 태(汰)=F, 황(潢)= E^b 음을 익힌다.
- 평취음 전체를 안다.
- 바른 자세와 운지법을 익힌다.

3. 학습상의 유의점

대금의 지공 왼손, 오른손 바른 자세와 운지법을 정확하게 하며 손가락은 지공 위에 약 1cm 정도 떨어지게 운지를 하도록 지도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태(汰) = F , 황(潢) = E ^b	차시	4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평취음, 운지법, 바른 자세	평취음 전체를 연습,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汰, 潢 평취음 소리내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평취음, 태(汰)=F, 황(潢)= E^b 음을 익힌다. • 평취음 전체를 안다. • 바른 자세와 운지법을 익힌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DVD, CD	
	학습자	대금, 악보 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대금의 평취음을 구분해서 들려준다.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의 평취음을 안다. 태(汰)=F는 왼손손가락 검지 1공, 장지 2공, 오른손손가락 검지 3공, 장지4공까지 막고 (1,2,3,4공이라 칭). 황(潢)=E^p은 왼손가락 검지 1공, 장지 2공, 오른손가락 식지3공, 장지4공, 무명지5공까지 막고 (1,2,3,4,5공이라 칭), 음이 아래로 내려 갈수록 입김을 부드럽고 깊게 불면서 조심스럽게 소리를 낸다. 평취음이 고르게 소리 나게 한다. 바른 자세와 운지법을 익힌다. 대금의 지공 왼손, 오른손 바른 자세와 운지법을 정확하게 하며 손가락은 지공 위에 약 1cm 정도 간격으로 운지를 하도록 연습 한다. <p><평취음 운지법></p> <table border="0" style="margin-left: 40px;">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潢(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汰(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洵(중)</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淋(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漚(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潢(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汰(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장르 감상 힘이 드니까 DVD로 연주 음악을 보여주며 휴식을 취하며 관심을 갖게 한다. 			1	2	3	4	5	6	潢(황)	●	●	●	●	●	○		汰(태)	●	●	●	●	○	○		洵(중)	●	●	○	●	○	○		淋(임)	●	○	○	○	○	○		漚(남)	○	○	○	○	●	○		潢(황)	●	●	○	○	●	○		汰(태)	●	○	○	○	●	○		60분
		1	2	3	4	5	6																																																											
潢(황)	●	●	●	●	●	○																																																												
汰(태)	●	●	●	●	○	○																																																												
洵(중)	●	●	○	●	○	○																																																												
淋(임)	●	○	○	○	○	○																																																												
漚(남)	○	○	○	○	●	○																																																												
潢(황)	●	●	○	○	●	○																																																												
汰(태)	●	○	○	○	●	○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수업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p> <p>평취음 소리내기와 바른 지공법</p>																																																																	

1. 개관

본 차시에는 저취음 중(仲) = A^b, 고(姑) = G, 태(太) = F, 황(黃) = E^b, 무(無) = D^b, 남(南) = C, 임(林) = B^b 음을 익힌다.

2. 학습 목표

- 대금의 저취음을 익힌다.
- 평취음과 저취음의 입김의 세기를 구별한다.

3. 학습상의 유의점

평취음 소리를 내고 나면 입김 넣는 방법이나 입술 모양 등이 익숙해져 있으므로 저취음 소리를 낼 시에는 입김을 부드럽게 불어 넣어 낮은 소리를 내 보도록 하여야 한다. 입김의 세기에 따라 평취음과 저취음의 구별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강사가 소리를 구별하여 들려주고 연습하도록 하는데 초보자들은 음의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많은 반복 연습을 하도록 지도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저취음	차시	5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저취음, 평취음과 저취음과의 차이	저취음을 연습,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저취음(낮은단) 소리내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저취음을 익힌다. • 평취음과 저취음의 입김의 세기를 구별한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DVD, CD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 했던 대금의 평취음 소리내기를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저취음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의 저취음 黃(황)=E^b, 太(태) =F, 仲(중) = A^b, 林(임)= B^b, 南(남)= C 음을 안다. - 저취음이 고르게 소리 나게 한다. • 저취음의 운지법을 익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취음은 평취음과 운지법이 같으며 단지 입김을 부드럽고 깊게 불어 넣어 소리를 내야한다. <p>저취(아래소리)</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1</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2</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3</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4</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5</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6</td> </tr> <tr> <td>黃(황)</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太(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仲(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林(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南(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취음과 저취음을 들려주고 정확한 음 높이를 익히게 하면서 소리를 내며 율명과 계이름을 함께 외워지게 한다. - 민요를 들려주며 평취와 저취 소리가 구별되어지게 한다, 		1	2	3	4	5	6	黃(황)	●	●	●	●	●	○	太(태)	●	●	●	●	○	○	仲(중)	●	●	○	●	○	○	林(임)	●	○	○	○	●	○	南(남)	○	○	○	○	●	○	60분
	1	2	3	4	5	6																																						
黃(황)	●	●	●	●	●	○																																						
太(태)	●	●	●	●	○	○																																						
仲(중)	●	●	○	●	○	○																																						
林(임)	●	○	○	○	●	○																																						
南(남)	○	○	○	○	●	○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 수업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p> <hr/> <p>저취음 소리내기</p>																																											

학습제재

역취음 황(潢) = E^b, 태(汰) = F

1. 개관

본 차시에는 역취음 황(潢) = E^b, 태(汰) = F 음을 익힌다.

2. 학습 목표

- 삼수(弇)변이 두 개가 율명 앞에 붙으면 옥타브 윗음이라는 것을 안다.
- 역취음 전체를 익힌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초보자들은 역취음을 낼 때 입김을 세게 불기가 어려우므로 입술 끝에 힘을 주어 입술을 팽팽하게 만들고 입김을 입술 가운데로 모아서 세게 불면 쉽게 소리가 난다. 평취음, 저취음, 역취음 구별이 쉽지는 않으나 입김의 세기를 잘 조절하면서 반복 연습을 하고 힘들다고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취음에서는 운지법이 달라지므로 소리를 내면 운지법 외우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서 익힌다. 평취음, 저취음과 역취음을 들려주고 정확한 음 높이를 익히게 하고 소리를 내며 율명도 함께 외워지게 한다. 소리 내기 과정은 지루하고 흥미를 잃기 쉽다. 음악을 감상하면서 열의와 관심이 식지 않도록 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역취음	차시	6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역취음, 운지법	역취음을 연습,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평취, 저취음을 내면서 역취음 소리내기		
학습 목표	• 삼수(弇)변이 두 개가 율명 앞에 붙으면 옥타브 윗음이라는 것을 안다. • 역취음 전체를 익힌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DVD, CD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평취, 저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전 시간에 연습했던 대금의 평취음, 저취음 소리내기를 확인한다.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의 역취음을 안다. 역취음은 음에 삼수(3)번이 2개 붙어서 옥타브 윗음을 나타낸다. •역취음의 소리가 나게 한다. •역취음의 운지법을 안다. <p>역취 운지법</p> <table style="margin-left: 40px;"> <tr> <td></td> <td></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td> </tr> <tr> <td>潢(황)</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湫(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 			1	2	3	4	5	6	潢(황)	●	●	○	○	●	○		湫(태)	●	○	○	○	●	○		60분
		1	2	3	4	5	6																			
潢(황)	●	●	○	○	●	○																				
湫(태)	●	○	○	○	●	○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수업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20분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p> <hr/> <p>역취음 내기</p>																									

학습제재	연습곡 1~2번
-------------	----------

1. 개관

본 차시에는 정간보에 대하여 배우고, 악보를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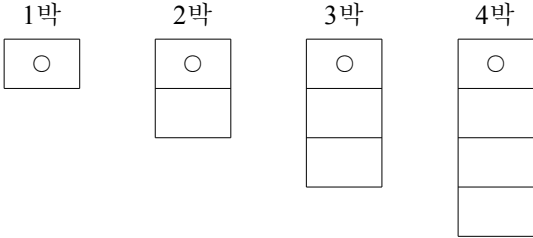
2. 학습 목표

- 정간보에 대해서 안다.
- 정간보 읽는 방법을 안다.
- 정간보의 기보 방법을 안다.
- 정간보와 오선보의 차이점을 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정간보와 오선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한다.

학습제재	연습곡 1~2번	차시	7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정간보, 기보방법		악보 읽기, 연습곡 1~2번 연습
학습 주제	정간보 읽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에 대해서 안다. • 정간보 읽는 방법을 안다. • 정간보의 기보 방법을 안다. • 정간보와 오선보의 차이점을 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연습곡 1~2번 정간보와 오선보, DVD, CD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대금의 평취음, 저취음 소리내기를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p>● 정간보의 뜻과 읽는 순서 익히기, 정간보 각 부분의 명칭을 익힌다.</p> <p>- 정간보의 뜻 정간보란 우물정(井)자 모양인데 여러 개의 음명을 적어 넣어 음정의 높고 낮음과 박자를 표시한 악보로, 한 칸[一井間]을 한 박으로 쳐서 음의 시가(時價)를 나타내는 세종대왕이 창안하신 우리나라 고유의 악보이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1박 2박 3박 4박</p>  </div> <p style="text-align: center;">한 정간의 박자 세는 법</p> <p>정간보의 세로 한 줄을 1 행(行), 또는 1 각(刻), 혹은 1 장단(長短)이라 부른다. 또 한 각에서 큰 구분을 하는 경우(굵은 줄로 나눈 경우)에는 대강(大綱)이라 부른다.</p> <p>- 악보 읽는 방법 정간보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 간다. 그리고 맨 오른쪽 줄에서 왼쪽으로 읽어간다. (옛날 신문, 고서 등과 읽는 방법이 같다.) 정간 안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p> <p>- 기보 방법 정간보는 1정간 1박이 기본이다. 그리고 1정간을 1/2, 1/3, 1/4, 1/6, 1/9, 1/12박의 시가²³⁾로 나뉘게 된다. 크게, 이분식 기보법과 삼분식 기보법으로 나뉜다. 이분식 기보법은 2박자 계열이고 삼분식 기보법은 3박자 계열이다. 한 정간에 한음이 있는 경우 온전한 한음이고 한 정간에 두음이 있는 경우 반박을 나뉘가진다.</p>	60분
----	---	-----

23) 음표 또는 쉼표로 나타내는 길이















24) 국립민속국악원장(2004). 국악교육의 이론과 실기, 국립민속국악원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한 정간 안에 세로로 줄이 몇 칸이냐에 따라 나누는 박이 다르고 가로로 음이 복수로 있는 경우 나누는 박에서 다시 박을 나눈다. 한 정간을 4분 음표나 점 4분 음표나에 따라 서양식으로 박자를 나누는 것이 달라지는데 흔히, 이분식은 4분 음표 삼분식은 점4분음표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표기가 있는 경우는 전에 있는 박을 연장한다는 의미이고 삼각형(△)이 있는 경우는 쉼표를 의미한다. 그리고 쇠가를 변하게 하기 위하여 덧길이, 반길이가 부호가 있다. 덧(|)길이는 음을 1/2 늘이고 반(·) 길이는 음을 1/2로 줄인다.

<표2-1> 정간보 2분식 기보법의 방법²⁴⁾

① ②	1/2+1/2		① ②③	1/4+1/4+1/2	
① -②	3/4+1/4		①② -③	1/4+1/2+1/4	
①② -	1/4+3/4		①② ③④	1/4+1/4+1/4+1/4	

정간보 3분식 기보법의 방법

① ② ③	1/3+1/3+1/3		① ② ③ ④	1/3+1/3+1/6+1/6	
① - ②	2/3+1/3		① ② ③ ④	1/3+1/6+1/6+1/3	
① ② -	1/3+2/3		① ② ③ ④	1/6+1/6+1/3+1/3	
①② - ③	1/6+1/2+1/3		① ② ③ ④ ⑤	1/6+1/6+1/6+1/6+1/3	
①② ③ -	1/6+1/6+2/3		① ② ③ ④ ⑤	1/6+1/6+1/3+1/6+1/6	
① - -②	5/6+1/6		① ② ③ ④ ⑤	1/3+1/6+1/6+1/6+1/6	
① -② ③	1/2+1/6+1/3		① ② ③ ④ ⑤ ⑥	1/6+1/6+1/6+1/6+1/6	

전개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습곡을 통해서 정간보와 오선보를 이해한다. •연습곡을 연습하면서 음의 높낮이, 박자, 음악적 이론들을 익힌다. •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보를 보면서 강사가 연습곡을 들려주고 수업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20분
평가	평가내용	
	정간보와 오선보 보기	

학습제재**연습곡 3~4번,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1. 개관**

본 차시에는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 등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실제로 연주에 적용한다.

2. 학습 목표

- 시김새: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를 안다
-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를 어떻게 연주되어지는가를 안다.
-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는 어떻게 연주되어야 손가락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를 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제시하고 대금의 특징을 설명하며 시김새들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장식음을 사용하는 음악을 들려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도록 지도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연습곡 3~4번,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		차시	8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장식음, 부호, 악상기호		부호를 익히고 나서 연주하기, 대금 연주곡 감상	
학습 주제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 익히고 연습곡 3~4번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김새: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를 안다 •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를 어떻게 연주되어지는가를 안다. • 장식음, 부호 및 악상기호는 어떻게 연주되어야 손가락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를 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연습곡3~4 정간보와 오선보, DVD, CD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핑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전 시간에 연습했던 대금의 연습곡 소리내기를 반복 연습한다.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설명한다. 장식음이란 어느 한 음정 옆에다 여러 가지 기호(ㄴ, ㄹ, ㄷ, ㄹ) 등을 붙여 그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꾸밈음을 말한다. 대금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손놀림이 아주 편리해지는데 이런 경우 대금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잡한 가락들을 한정된 정간보 위에 전부 기보(記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단한 부호와 장식음으로 대신하여 표기한다. 이러한 장식음과 부호는 오래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 되는 것이니 애써 외우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에서 한음 아래 음, 두음 아래 음 또는 한음 위 음, 두음 위음이란 대금의 기본 5음인 중.임. 남. 황. 태의 순서로 어느 음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음의 위 음과 아래 음을 말한다. 그리고 본음이란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가 붙은 바로 그 음을 말한다. 부호란 장식음과 달리 음정옆에 붙지 않고 정간안에 위치하고 있어 제 잇가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음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음의 위와 아래음을 말한다. •구음으로 악보를 읽으면서 장식음, 부호들을 익히고 난 뒤 악기로 연주해 본다. •연습곡 반복해서 익히기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 악상기호를 정확히 들려준다, •장식음이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차시 예시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20분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p> <p>장식음 및 부호</p>	

1. 개관

본 차시에는 정간보와 오선보 보는 법을 재확인하고, 아리랑의 선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실제로 연주에 적용한다.

2. 학습 목표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정간보와 오선보를 번갈아 악보를 보면서 아리랑의 세마치장단을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면서 노래 부르게 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산만해 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박자를 정확하게 리듬을 맞추게 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아리랑		차시	9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세마치장단, 민요		세마치장단 익히기, 아리랑 연주하기	
학습 주제	민요와 세마치장단에 대해 익히고 아리랑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아리랑 정간보와 오선보, DVD, CD		
	학습자	대금, 녹음기,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전 시간에 연습했던 대금의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이해하고 있는지 연습곡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먼저 강사가 아리랑을 들려준다. •아리랑의 전체적 선율의 특징과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다. 민요는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는 소박한 노래를 말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으로 삶을 영위해 왔으며 밭갈이나 김매기와 같이 노동을 할 때나 죽음 앞에서의 상여소리와 같이 슬픈 마음을 위로 할 때에도 생활의 일부로 노래를 불러왔다. 아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널리 불려 지게 된 이유의 하나는 곡이 현대적이고, 부르기 쉽고, 거기에 곁들여 일정(日政) 치하에서 민족적인 감정과 울분을 쉽게 엮어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음계는 솔, 라, 도, 레, 미의 5음 음계로 이루어져 있다. •부호의 의미와 개념을 설명한다. •정간보의 율명, 오선보로 읽어 보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아리랑을 들려주며 따라 하게 한다. •세마치장단을 안다.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리랑을 녹음이나 동영상을 녹화하게 하여 집에 돌아가서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악보를 보면서 강사가 아리랑을 들려주고 수업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20분
평가	평가내용	
	아리랑 연주하기	

1. 개관

본 차시에는 정간보와 오선보 보는 법을 재확인하고, 도라지와 밀양아리랑의 선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실제로 연주에 적용한다.

2. 학습 목표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도라지, 밀양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성인학습자이다 보니 손가락도 빨리 움직이지 않고 악보 보기, 소리내기, 장식음, 헛치기까지 연주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주 접하게 되는 민요라서 접근하기가 편하다. 자주 들어 왔던 곡이다 보니 진도를 나가면서 천천히 반복을 한다. 특히 반복되는 음이 많아 헛치는 연습이 더 많이 요구된다. 민요곡은 가사가 있기 때문에 헛치기가 뚜렷하게 되지 않으면 음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사 전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밀양아리랑의 짧고 같은 음의 반복 헛치기는 박이 짧으므로 헛치기를 빨리 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도라지, 밀양아리랑		차시	10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헛치기, 장식음, 삼분박		도라지, 밀양아리랑 연주하기	
학습 주제	헛치기에 대해 익히고 도라지, 밀양아리랑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도라지, 밀양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도라지 정간보와 오선보, 밀양아리랑 정간보와 오선보, DVD, CD		
	학습자	대금, 녹음기,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 했던 아리랑을 통해서 정간보, 오선보 보는 방법 등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라지, 밀양아리랑의 전체적 선율의 특징과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다. • 짧고 같은 음의 반복시 혀치기를 잘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한다. • 정간보의 율명과 오선보의 계이름을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라지, 밀양아리랑 불러 주면서 녹음이나 동영상을 녹화하게 하여 집에 돌아가서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라지와 밀양아리랑을 연습하고 수업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20분
평가	평가내용	
	혀치기, 장식음, 부호	

1. 개관

본 차시에는 정간보와 오선보 보는 법을 재확인하고, 닐리리야의 선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실제로 연주에 적용한다.

2. 학습 목표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닐리리야를 연주할 수 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황종의 한 옥타브 위음인 청황종 음이 이번차시 곡인 닐리리야에서 사용된다. 청황종은 역취음이므로 아랫배에 힘을 주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입술 양 끝 쪽에 힘을 주어 입술을 팽팽하게 하고 입김을 가운데로 모아 세게 분다. 소리가 잘 나지 않으므로 여러 번 반복을 한 후에 닐리리야를 연주하게 한다. 또한 음의 길이가 짧고 높은음에서 혀치기는 쉽게 되지 않는다. 여러 번 반복 연습을 많이 해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대금을 불지 않고 있을 때에도 ‘루’하고 혀로 연습을 하면 더 빨리 혀치기가 될 수가 있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닐리리야		차시	11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역취음 청황종, 혀치기		닐리리야 연주하기	
학습 주제	역취음 청황종과 혀치기를 연습하고 아리랑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닐리리야를 연주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닐리리야 정간보와 오선보, 음악 CD		
	학습자	대금, 녹음기, 악보파일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분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도라지, 밀양아리랑 통해서 정간보, 오선보 보는 방법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가 닐리리야를 들려준다. • 역취음 청황종 소리내기를 반복 연습해서 소리 나게 한다. • 닐리리야의 전체적 선율의 특징과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다. • 같은 음의 반복시 헛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한다. • 정간보의 율명과 오선보의 계이름을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 닐리리야를 들려주며 따라 하게 한다. • 주요 장르 감상 및 소리내기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은 분들을 개별적으로 다시 지도한다. • 닐리리야를 불러 주면서 녹음이나 동영상을 녹화하게 하여 집에 돌아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닐리리야를 연결해서 연습하고 난 후 수업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 예고. •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20분
평가	평가내용	
	청황종 소리내기	

1. 개관

칠갑산은 전통음악적인 맛이 나는 가요로서 대금으로 연주하기에 아주 좋은 곡이며, 장식음과 부호들을 연습하기에 적절한 곡이다.

2. 학습 목표

- 정간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가요 칠갑산을 연주할 수 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박자가 긴 음이 나오므로 입김을 고르게 넣고, 복식호흡을 하여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한다. 차시가 지날수록 곡이 많아지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대금을 들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소리를 내고 음악이 되게 하려면 많은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칠갑산	차시	12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복식호흡, 정간보 보는 법	칠갑산 연주하기	
학습 주제	칠갑산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가요 칠갑산을 연주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칠갑산 정간보와 오선보, 반주음악 CD, DVD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녹음기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도라지, 밀양아리랑 통해서 정간보 보는 방법 등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가 칠갑산을 들려준다. ● 반주음악 CD를 들려주며 관심을 갖게 한다. ● 칠갑산의 전체적 선율의 특징과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다. ● 반주음악에 맞추어 전주를 듣고 어느 부분에서 대금이 들어오는지를 마디수를 알려주고 연습한다. ● 장식음, 부호들을 잘 살려서 멋있게 연주하여 본다. ● 복식 호흡을 하여 호흡을 길게 하는 연습을 한다. ● 정간보의 울명과 오선보의 게이름을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 4마디씩 칠갑산을 들려주며 따라 하게 한다. ● 주요 장르 감상 국악가요 연주장면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잠시 쉬게 한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은 분들을 개별적으로 다시 지도한다. ● 칠갑산을 불러 주면서 녹음이나 동영상을 녹화하게 하여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반주음악을 각자 메일에 보내주며 연습하도록 한다.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아, 칠갑산을 연결하여 연습한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악기를 들고 있는 연습을 한다. ● 수업 내용 정리 및 다음 차시에고. ●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20분
평가	평가내용	
	칠갑산 연주하기	

1. 개관

산조대금 5관청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남도민요 보단 좀 더 맛내기가 쉬운 강원도 민요의 한오백년을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2. 학습 목표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한오백년을 연주할 수 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수업이 진행될수록 양이 많아지다 보니 대금을 바르게 들고 연주가 힘들어진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팔이 아파서 대금을 수평으로 들고 있기가 힘들어 팔이 절반 내려오는 데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많은 연습을 해야 대금을 들고 연주를 잘할 수 있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한오백년	차시	13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중모리장단	한오백년 연주하기	
학습 주제	중모리장단에 대해 익히고 한오백년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간보와 오선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있다. • 한오백년을 연주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한오백년 정간보와 오선보, CD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녹음기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칠갑산을 통해서 정간보, 오선보 보는 방법 등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가 한오백년을 들려준다. • 한오백년의 전체적 선율의 특징과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다. 강원도 민요의 특색은 탄식조에 의한 메나리조의 표현으로 그 음계는 미, 솔, 라, 도, 레의 5음으로 “솔”은 경과 음으로 쓰이고 “레”는 “도”로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한 장단씩 한오백년을 들려주며 따라 하게 한다. • 중모리 장단을 안다. <p data-bbox="385 900 477 929"><중모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음의 반복시 허치기, 장식음 등 시김새를 잘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며 각자 개인적으로 손가락을 잡아 연주하여 보게 한다. • 정간보의 울명과 오선보의 계이름으로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 주요 장르 감상 한오백년을 CD로 감상하면서 학습 의욕을 고취 시킨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은 분들을 개별적으로 다시 지도한다.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칠갑산, 한오백년을 연결하여 불러 주면서 녹음이나 동영상을 찍게 하여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칠갑산, 한오백년을 연결하여 2번씩 연습하고 수업 내용 정리 및 연주회 준비. •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20분
평가	평가내용	
	한오백년 연주하기	

1. 개관

본 차시에는 연주회 준비도 하고 수업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것보다 한 학기 동안에 배웠던 곡들을 반복 연습을 통해 부족한 면들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2. 학습 목표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한오백년을 2번씩 반복하여 연주할 수 있다.
- 세마치장단과 중모리장단에 맞추어 연주 할 수 있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연주를 위하여 처음 곡부터 끝 곡까지 내리지 말고 연주하는 습관이 되도록 지도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연주회 준비		차시	14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세마치장단, 중모리장단		배운 곡들을 연주하기	
학습 주제	세마치장단과 중모리장단을 익히고 배운 곡들을 연주하기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한오백년을 2번씩 반복하여 연주할 수 있다. • 세마치장단과 중모리장단에 맞추어 연주 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 사	장구, 의상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녹음기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갑 한오백년을 통해서 정간보, 시김새 보는 방법 등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강사가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한오백년을 연결하여 들려준다. ● 장구장단에 맞추어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한오백년을 연결하여 연주한다. ● 칠갑산은 민요와의 음악적 흐름이 달라서 따로 연습한다. ● 정간보의 율명과 오선보의 계이름으로 읽어 보게 하며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 같은 음의 반복시 허치기, 장식음, 부호를 잘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한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가 잘 나지 않은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시 지도한다.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한오백년을 2회씩 각 곡들을 연결하여 불러 주면서 녹음이나 동영상을 찍게 하여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내용 정리 및 연주회 준비 ● 개인적인 연습 과제 제시. 	20분
평가	평가내용	
	배웠던 곡 전체 연주	

1. 개관

경기민요는 정악대금으로 연주가 용이하지만 1차 때의 남도민요인 진도아리랑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널리리야, 칠갑산, 한오백년으로 곡을 바꾸었다. 널리리야에서 역취음인 청황종의 소리를 연습하게 하여 대금으로 연주가 가능하고 재미있게 대금을 볼 수 있는 대중가요 칠갑산을 반주음악 CD에 맞추어 연주 할 수 있도록 해서 성인학습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보다 재미있게 대금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였으며 칠갑산은 연주 할 때 제외 했다. 민요와의 음악 흐름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오백년의 애절한 민요의 맛을 내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소리내기도 잘하였다.

2. 학습 목표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한오백년을 2번씩 연주한다.
- 장단에 맞추어 연주한다.

3. 학습상의 유의점

전곡을 2번씩 받고 메기고 연주를 하면서 바른 자세, 힘들다고 연주 중간에 악기 내리지 않으며, 소리가 나지 않고 틀렸다고 당황하지 않고 연주를 하여야 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제재	연주 및 감상		차시	15차시/15차시
영역	이해		활동	
	-		연주회	
학습 주제	연주회 준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한오백년 전곡을 2번씩 연주한다. • 장단에 맞추어 연주한다. 			
학습 자료	교 사	대금, 장구		
	학습자	대금, 악보파일, 의상		

단계	교수-학습 활동 과정	시간 배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손가락 사이에 대금을 끼우고 손가락 늘이기를 하여 손가락의 유연성을 기르게 한다. • 평취, 저취음, 역취음을 대금으로 소리내기를 연습한다. • 전 시간에 연습했던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아, 칠갑산 한오백년을 통해서 정간보, 시김새 보는 방법 등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이번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2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허설을 할 때에는 실제 연주 할 때 앉는 자리순서를 정하고 자리배치를 하여 앉아서 한다. • 연주는 의자에 앉아서 하므로 무대 자리배치를 확인하고, 옆 사람과의 알맞은 간격을 유지 하도록 한다. • 자리를 정한 순서에 맞게 줄을 서서 무대에 들어가며 악보와 악기를 바르게 들고 가는 자세와 걸어 들어가는 바른 자세, 의자에 앉았을 때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행한다. • 보면대의 높이는 본인의 얼굴이 보이도록 하고, 마이크는 대금을 들고 연주할 때 취구 쪽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여 대금 소리가 객석에서 잘 들리도록 한다. • 긴장하면 대금 소리가 나지 않고 바람소리가 많이 나므로 평소 때와 같이 편한 마음으로 연주한다. (연습은 연주처럼, 연주는 연습처럼 하라는 말이 있다) • 장단의 신호에 맞추어 악기를 들고, 세마치장단과 중머리장단에 맞추어 다 같이 연주한다. • 연주가 끝나면 천천히 악기를 내리고, 동시에 인사하고, 일어서서 연주하러 들어올 때처럼 바른 자세를 하고 반대로 나가면 된다. • 분장실에 들어가서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의상을 갈아입고 다른 팀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6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례에 다른 팀 연주가 있으므로 조용히 분장실을 비워준다. • 간단한 뒤풀이를 하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연주회의 소감과 한 학기 동안 대금을 배우면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강사에게 바라는 점 등의 요구사항을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 하며 공유하고 자신을 성찰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20분
평가	평가내용	
	연주 및 감상	

<부록 5> 2차 프로그램 학습자 면담 질문지

1차

1. 어떤 동기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셨는지요?
2. 대금을 어느 정도까지 실력을 갖추었으면 하는지요?
3. 대금하시기전에 다른 악기를 연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2차

1. 대금을 배우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평상시에 연습하실 수는 있으십니까?
3. 대금을 배우면서 보람은?
4. 연습을 하신다면 주로 어디서 연습하십니까?
5. 연습은 주로 언제하십니까?
6. 연습하는데 장애 요소는?
7. 바라는 점은?

3차

1. 장식음이나 부호들을 배우시는데 어떠세요?
2. 박자 맞출 때 구음으로 해주거나 들려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3. 배우시는데 있어서 재미와 울명은 어떠세요?
4. 이 단계가 끝나면 정간보와 오선보를 병행할 텐데 배우는 순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5. 이론적인 것을 병행하니까 어떠세요?
6. 진도는 어떻습니까?
7. 어느 정도까지 배우고 싶으세요?

<부록 6> 1차 프로그램 일지

차시 : 1차시	날짜: 2010년 3월 8일
교육내용	대금에 대한 이해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대금 소리가 너무 좋아서 소리만이라도 내고 싶다는 학습자들의 바람이 강함
실행 내용	수업 첫 날이라 악기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 대금의 종류와 각 악기마다의 특성, 음높이, 쓰이는 음악을 설명하고 음악을 연주하여 들려주고 악기마다의 다른 점을 알려주었다.
성찰 및 평가	자기 발전과 국악에 대한 관심으로 기본적인 소리만이라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인다.

차시 : 2차시	날짜: 2010년 3월 15일
교육내용	호흡법을 익히면서 평취음 중(泮), 고(澗), 태(汰) 3음 소리 내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잘 나고 호흡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실행 내용	먼저 대금을 두 손으로 바치고 소리내기를 시도하다 소리가 어느 정도 나면 실제 대금 연주하는 자세를 하고 운지법을 가르치며, 지공을 막게 하고, 율명과 계이름을 연계지어 설명하고, 그 음계들을 외우게 하였다. 한번 입김을 넣을 때 한음에 호흡이 다 할 때까지 불게 하여 호흡을 늘이며, 복식호흡 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설명하였다.
성찰 및 평가	일상생활에서 휘~ 하고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워 자주 쉬어 가면서 소리 내기를 한다. 복식호흡 하도록 하지만 소리내기에도 힘들어 가슴으로 호흡하면서 길게 소리를 못 내고 악기를 내려놓고 쉬는다. 음악을 감상하게 하니 듣기는 좋은데 직접해보니 어려워한다. 강의실이 좌식이 아니고 입식이이다 보니 의자에 앉아 허리를 똑바로 세워야하는데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자세가 바르지 못하게 된다. 전통음악은 의자보다는 돛자리 위나 방석에 앉아 연습하는 게 바람직 한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 어쩔 수 없다.

차시 : 3차시	날짜: 2010년 3월 22일
교육내용	황(潢)의 운지법 및 소리내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다 열고, 1공 막고, 2공 막고, 3공 막아서 황(潢)음의 소리 잘 내기.
실행 내용	황(潢)음을 내기까지는 지공을 다 열고 소리가 나면, 1공을 막아 소리내기를 하여 호흡을 다 할 때까지 불고, 다시 2공막아 소리내기를 하여 호흡을 다 할 때까지 불고, 3공막기를 하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 연습을 실행. 소리가 나지 않으면 다시 위음을 열고 소리를 내서 다시 막기를 하고 소리를 낸다.
성찰 및 평가	누구나 빨리 소리내기를 위하여 급하게 지공을 막는 연습을 한다. 급하게 하다 보면 소리는 나지 않고 바람 소리만 나며 지공은 원활하게 막아지지 않고 황(潢)의 지공은 더 더욱 막기도 어렵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 황(潢)의 지공이 막아 지면 취구가 틀어지고 취구를 바르게 하면 지공이 막아 지지 않아 힘이 든다. 천천히 지공을 막으며 입김을 넣는 자세가 필요하며 빠른 시간에 언른 하기 보다는 연습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므로 열의를 가지고 연습해야 한다.

차시 : 4차시	날짜: 2010년 3월 29일
교육내용	평취음 무(無) = D b, 남(南) = C, 임(林) = B b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평취음을 순차적으로 소리내기가 가능해지기를 바람.
실행 내용	왼손으로 지공을 다 열고, 1공, 2공, 3공 막고, 오른손으로 4공, 5공, 6공을 막으면서 음이 점점 낮아지도록 입김을 부드럽게 넣어야 음정이 제대로 난다.
성찰 및 평가	평취음 중에서 아래음 즉 오른손으로 막는 지공은 입김을 조금 더 부드럽게 넣어야 소리가 난다. 입김을 조절해서 넣는 방법이 필요한데 언른 소리내기에 마음이 바빠 입김의 강약이 조절되지 않아 마음먹은 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 1~5공까지 막는 남(南) 음정 소리내기가 어려운데 남(南) 음정이 잘 나지 않고 성인학습자들은 손가락의 유연성이 떨어져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차시 : 5차시	날짜: 2010년 4월 5일
교육내용	저취(낮은단) 소리내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평취음과 저취음이 구별되어 소리내기 하는 것
실행 내용	평취음 소리 내기를 복습하고, 저취 소리 내기를 한다. 저취음은 평취음과 똑 같은 지공에서 호흡을 부드럽게 하여 입김을 넣는데 평취음 입김 넣는 것과 저취음 입김 넣는 방법을 구별하여 대금을 불어야 한다.
성찰 및 평가	옥타브 위음 표기는 율명 앞에 삼수변(ㄷ), 옥타브 아래음 표기는 사람인변(ㄹ)을 붙여서 표기한다. 초보성인학습자들 음의 독보력이 떨어져 율명을 얼른 구별하기가 어려워 설명을 다시 하면 이해한다. 오선보는 음을 정확하게 읽지 못해도 그 음정의 높고 낮음은 구별할 수 있는데 율명으로 이루어진 정간보는 그음만 보고는 바로 읽기가 어렵다. 하나씩 천천히 가르쳐야겠다.

차시 : 6차시	날짜: 2010년 4월 12일
교육내용	저취음(낮은단) 소리내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대금을 불면 소리가 저절로 낮으면 하는 바람
실행 내용	저취(낮은단) 소리내기를 한주 더 하기
성찰 및 평가	대금은 저취음 소리내기가 평취음이나, 역취음보다 어렵다. 그래서 저취음 소리내기를 한주 더하여 소리내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의 구별이 평취음과 저취음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을 내면서 그 음이 맞는지 몰라 어려움이 많고 지공을 하나씩 막으면 음정도 따라서 음이 내려가야 하는데 호흡 조절과 취구 조절이 안 되어 음정이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저취를 내고 있는데 평취 소리가 나기도 한다. 음악을 감상하면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언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한다. 대금의 아름다운 소리는 스스로의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차시 : 7차시	날짜: 2010년 4월 19일
교육내용	역취음(높은단) 소리내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입김의 세기 조절 가능
실행 내용	평취와 저취가 소리가 나면 역취소리 내기 지공을 정확하게 막으며 손가락은 지공위에 약 1cm 정도 열고 막기를 하면서 호흡이 다 할 때까지 불기
성찰 및 평가	대금에서는 역취음 소리내기가 조금은 더 쉽다. 평취, 저취를 먼저 냈기 때문에 입김을 모아 세계 불면 소리가 나는데 성인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소리를 세계 불어야 소리가 나는지 가늠이 안 된다. 요령이 터득 되지 않고 세계만 부니까 현기증이 나서 대금을 불지 못 한다. 역취음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대금의 부는 재미를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금음정의 소리내기를 전체적으로 많은 반복연습이 필요하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흥미도 잃기 쉬운데 쉬는 시간을 주면서 대금 연주곡을 들려주니 힘들어서 감상하면서 책상에 엎드린 학습자도 있다.

차시 : 8차시	날짜: 2010년 4월 26일
교육내용	정간보와 연습곡 1~2번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정간보와 오선보의 차이에 대한 이해하기
실행 내용	악보 읽는 방법과 연습곡을 통해서 정간보를 이해한다.
성찰 및 평가	우리 악보 정간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악보 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당연히 오선보로 수업하는 줄 알았고 오선보는 어느 정도 볼 줄 아는데 정간보는 생소하고 습관이 안 되어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오선보를 잘 읽고 대금으로 바로 연주가 가능한 학습자는 드물다. 단지 익숙할 뿐 인 것 같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정간보를 보아 왔었다면 어렵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차시 : 9차시	날짜: 2010년 5월 3 일
교육내용	연습곡 3~ 4번 장식음 및 부호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음계에 게이름과 울명 적기, 장식음 및 부호 이해하기
실행 내용	게이름과 울명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간단한 장식음 및 부호 이해 하면서 대금 불기
성찰 및 평가	게이름을 이해 못하는 학습자에게는 게이름을 한글로 적게 하고 울명도 한글로 적게 하여 서로 연계성을 갖게 하는 법을 알려 주었더니 어려워한다. 간단한 장식음 및 부호를 제시하였더니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다고도 한다. 지식이 쌓이는 것 같아 좋기도 하고, 오히려 어려워서 흥미가 떨어 질려한다는 반응 등 여러 가지가 나왔다. 초보단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배우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 질 수 있다.

차시 : 10차시	날짜: 2010년 5월 10일
교육내용	연습곡 3~4번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장식음과 부호 이해하기
실행 내용	간단한 장식음과 부호를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으며 장식음, 부호들을 익히고 난 뒤 악기로 연주해 본다. 처음에는 한자 옆에 한글로 울명을 적어 이해를 한다. (연필로 적는다. 잘 되면 지울 수 있도록)
성찰 및 평가	장식음, 부호등은 우리 악기를 배우는데 꼭 필요하다. 특히 대금이나 단소등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알아야 악기를 연주 할 수가 있다. 오래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되나 초보자들은 어려워한다. 쉬운 장식음이나 부호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진다.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잘되어 빨리 할 수가 있다.

차시 : 11차시	날짜: 2010년 5월17일
교육내용	아리랑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노래는 늘 듣고 불렀던 곡인데 친숙한데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기
실행 내용	세마치장단과 점4분 음표의 삼분박을 알며, 개념을 이해하고 장식음과 삼분박을 알며 아리랑 연주하기
성찰 및 평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아리랑은 저취, 평취가 주음을 이루고 있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노래도 알고 어느 한부분이 소리가 나지 않아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세마치장단과 점 4분음표의 읽는 방법 등이 새롭게 제시 되었는데 세마치장단이라고 인식은 못 하여도 신체가 알고 반응 하였다. 무릎장단을 치면서 노래 부르게 하니 즐겁게 노래 부르고 대금으로 연주하기도 연습곡 할 때 보다 더 적극성을 보이고 열의를 가졌다. 우리나라 아리랑을 중국에서 먼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했다고 한다. 우리가 더 열심히 부르고 아껴서 우리 것으로 되찾아 와야겠다. 늘 부르고 익숙한 곡이어서 대체로 재미있어 하고 적극성을 보였다.

차시 : 12차시	날짜: 2010년 5월 24일
교육내용	도라지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혀치기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
실행 내용	도라지를 연습하면서 혀치기를 하였다. 노래곡은 가사가 있어서 혀치기가 잘되어야 하는데 3번씩 연결해야하는 혀치기가 잘되지 않아서 많은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성찰 및 평가	도라지는 반복 되는 음이 많아 혀치기가 많이 요구 되어 지는 곡이다. 숨을 쉬거나 음을 끊어서 소리를 내면 혀치기는 할 수 없다. 초보자들은 호흡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두박 가면 숨을 쉬게 된다. 음을 연결 하면서 ‘루’하고 혀를 쳐야한다. 길게 호흡하는 연습을 하여야 호흡이 길어진다. 아는 노래이다 보니 무리는 없는데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차시 : 13차시	날짜: 2010년 5월 31일
교육내용	밀양아리랑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요성하는 방법과 장식음의 손가락 유연하게 하는 방법.
실행 내용	밀양아리랑의 장식음 이해가 되지 않아 올명 옆에다 한글로 작게 써놓으며 아름다운 소리 내며 이해하기, 부호, 짧은 혀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성찰 및 평가	짧은 박의 혀치기가 빨리 안 되고 민요곡으로서 장식음과 부호를 보면서 연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식음 부분이 나오면 음악이 늦어지거나 소리가 나지 않기도 한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유연하지 못하니까 손가락 늘이기도 하고, 손가락을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짧은 박에서의 혀치기는 빠르게 하다보면 음을 ‘툭’ 하고 끊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혀치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한다. 학습자 본인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많은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소리가 잘 나면서, 박자도 잘 맞출 수 있다.

차시 : 14차시	날짜: 2010년 6월 7일
교육내용	진도아리랑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남도민요의 맛이 나게 한다.
실행 내용	다음 주 발표회 때 리허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서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을 무대에서 직접 연주하는 순서대로 연습 2번씩 연습.
성찰 및 평가	정악대금으로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을 연주하기에는 초보자들은 무리 인 듯하다. 남도민요의 맛을 내는 꺾는음, 떠는음 등 악기 자체도 둔하고 무거워서 주음 소리만 낸다. 초보성인학습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랐고 힘들었다. 다음 2차에는 악기도 바꾸고, 곡 선정도 다시 해야겠다.

차시 : 15차시	날짜: 2010년 6월 14일
교육내용	연주 및 감상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떨지 않고 연주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
실행 내용	<p>연주는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연주 홀에서 그동안 수업이 진행되었던 곡들을 중심으로 음악 과목 수업 수강생들만 발표회를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다. 2010년 6월 14일 월요일 점심시간 전으로 평일 점심 시간전이어서 참석 가능 하신 분들만 연주회 참석했고 연주곡목은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으로 각각 2번씩 연주했고 대금 반에서는 총 7명이 연주에 참여하였다. 음악 과목 수업들만 연주회를 했으며 참석할 수 있는 수강생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인원 점검은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에서 미리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p> <p>대금반 의상은 개량한복으로 빌려서 입혔고 장구 장단은 본 연구자가 반주를 했다.</p>
성찰 및 평가	<p>수업 차시가 마무리 되었어도 연주회를 앞두고 본 연구자 사무실에서 주중에 다 같이 모여 연습하러 와 지도를 2번 정도 더 했다.</p> <p>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인 것 같다. 평상시 때는 잘 나던 소리도 무대에 올라서면 소리가 잘 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보여 진다는 것에 기쁨도 있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찌나하는 걱정과 긴장감이 사회적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이라도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 인 것 같다. 조금이라도 소리가 잘 나게 하려고 평상시 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해오시고 연주 당일에는 일찍 만나 연습을 하고 리허설 준비를 하였다.</p> <p>전공으로 하는 수험생들은 진학이라는 뚜렷한 목표 의식과는 달리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대금으로 한곡 정도만이라도 들을 만하게 연주하겠다는 처음 의지와는 달리 소리내기도 쉽지 않고 평상시에는 일상에 쫓기다 보면 한 번도 연습 못하고 그냥 올 때도 있다. 일주일에 한번 오는 수업 시간에 악기를 꺼내 보면 수업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악대금으로 남도 민요인 진도 아리랑을 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15주 동안 매주에 한번 오는 수업 시간에 소리내기도 버거운데 남도민요의 특징인 떠는음, 꺾는음 등을 소화해서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학습자는 많은 연습을 하여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인학습자들은 그렇지가 못한다.</p>

<부록 7> 2차 프로그램 일지

차시 : 1차시	날짜: 2010년 8월 30일
교육내용	대금이란 무엇인가?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대금 소리가 너무 좋아서 소리만이라도 내고 싶다는 학습자들의 바람이 강함
실행 내용	수업 첫 날이라 악기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 대금의 종류와 각 악기마다의 특성을 설명과 함께 연주도 들려주었다.
성찰 및 평가	<p>대금 소리가 너무 좋아서 더 나아가 먹기 전에 배워야겠다는 열의가 대단하고 시간이 가는 것에 아쉬워함.</p> <p>빨리 악기를 마련하여 소리를 내 보고 싶다는 조급함과 설렘이 교차하며 적극성을 보임.</p> <p>성인학습자들은 신체적으로 손가락 유연성이 떨어지고 호흡면에서도 청소년에 비해 관악기인 대금이 버거워 산조대금 오관 본청으로 바뀌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p> <p>성인학습자 중에는 국악 연주를 보러 연주회관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보니 우리의 소리가 좋아서 대금을 배워야겠다는 열의와 관심이 높다.</p>

차시 : 2차시	날짜: 2010년 9월 6일
교육내용	대금 소리 내기와 호흡법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잘 나고 호흡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소리 내기가 쉬울지?
실행 내용	먼저 대금을 두 손으로 바치고 소리내기를 시도하다가 소리가 어느 정도 소리가나면 실제 대금 연주하는 자세로 하고 운지법을 가르치며 지공을 막게 했다.
성찰 및 평가	<p>대나무로 만든 대금은 가격 면에서도 비싸고 소리가 플라스틱 대금에 비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플라스틱 대금과 성인학습자들의 손가락 유연성들을 고려하여 정악대금으로 전학을 수업 하였던 것을 산조대금의 오관본청으로 수업을 진행 하였다. 처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생각 보다 어렵다고 한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 지구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 대금을 오래 들고 있기도 벅차하면서 천천히 해야 되겠다고 한다.</p> <p>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대개 입김을 휘~ 하고 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대금 소리 내기는 어렵다. 열의와 관심이 있으면 소리 내는 것도 금방 극복 할 수 있다.</p>

차시 : 3차시	날짜: 2010년 9월 13일
교육내용	지공을 3번까지 막는 연습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소리가 쉽게 나기를 바라는 마음
실행 내용	다 열고, 1번 막고, 2번 막고, 3번 막아 보기
성찰 및 평가	<p>다 열고,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나면, 1공을 막고 또 소리가 나면, 2공을 막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다시 2공을 열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 하다 보면 평소에 부는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현기증이 난다. 악기를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 한다. 성인 학습자이다 보니 대금 소리 면에서도 약하게 소리가 나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p> <p>정악대금은 왼손손가락 무명지로 3공을 막으면 소리내기가 어렵다. 지공을 막으려면 취구가 틀어지고 취구를 맞추면 지공이 잘 막아지지 않아서 소리내기가 힘들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조대금 오관본청 사용을 하여 오른손가락 장지로 막으면 지공도 쉽게 막아지고 손가락도 자유스러워 소리도 쉽게 난다. 악기가 정악대금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힘도 덜 들고 바른 자세가 유지가 더 되는 것 같다.</p>

차시 : 4차시	날짜: 2010년 9월 20일
교육내용	평취음을 전체적으로 소리내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평취음을 순차적으로 소리내기가 가능해지기를 바람
실행 내용	왼손으로 지공을 다 열고, 왼손 식지로 1공 막고, 장지로 2공 막고, 오른손식지로 3공, 장지로4, 무명지5공 지공을 막아내려 가면 음이 점점 낮아지는 소리가 나게 함.
성찰 및 평가	<p>퇴근 후의 시간이라 배가 고프면 소리도 더디게 나고 현기증도 더 심하니 간식이라도 먹고 오는 게 바람직하다.</p> <p>음을 내면서 그 음이 맞는지를 몰라 어려움이 많고, 지공을 하나씩 막아 내려 갈 때면 음도 따라서 내려가는데 호흡 조절과 취구 조절이 안 되어 음정이 맞지 않을 때가 많다.</p> <p>평취음 소리내기에서는 아래로 내려 갈수록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음이 내려 갈수록 입김을 부드럽고 깊게 불면서 내야하는데 초보자들은 입김 조절이 쉽지가 않다.</p> <p>지공위의 손가락은 지공 위에 약1cm 정도 간격으로 떼고 막기를 하면서 운지를 할 수 있을 때가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손가락을 잡아서 지공 위에 살짝 열고 단기를 잡아 주어도 쉽게 막아지지는 않았다. 손가락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지공을 막으면 좋아지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p>

차시 : 5차시	날짜: 2010년 9월 27일
교육내용	저취(낮은단) 소리내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평취와 저취가 구별되어 소리가 나게 하는 것
실행 내용	평취 소리 내기를 복습하고, 저취 소리 내기를 한다.
성찰 및 평가	<p>평취음 소리를 내고 나면 입김 넣는 방법이나 입술 모양 등이 익숙해져 있으므로 저취음 소리를 낼 시에는 입김을 부드럽게 불어 넣어 낮은소리를 내도록 하여야 한다. 평취음과 저취음 입김 넣는 방법이 구별 되지 않아 저취음을 내면서 점점 음이 아래로 내려가면 낮아져야 하는데 평취음 소리가 되어 버린다. 초보성인학습자가 소리를 내면서 음이 맞는지 구별이 안 간다고 호소한다.</p> <p>손가락의 유연성이 떨어져 지공이 빨리 막아 지지 않고, 정확하게 막아 지지 않아 음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 초보자들은 지공이 정확하게 막아지지 않으면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p> <p>처음 대금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에 비해 조금은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했다.</p>

차시 : 6차시	날짜: 2010년 10월 4일
교육내용	전체적인 대금 음역 소리내기 (평취, 저취, 역취)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불면 소리가 저절로 낮으면 하는 바램.
실행 내용	평취와 저취가 소리가 나면 역취는 다소 쉽게 소리가 난다.
성찰 및 평가	<p>* 대금의 모든 음역을 중간에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연결해서 불어 보게 하였더니 현기증이 나고 악기를 들고 있는 것도 힘들다고 한다.</p> <p>* 게이름과 울명을 병행해서 소리내기를 하고 외우게 하였더니 성인들이라서 빨리 외워지지는 않았다.</p> <p>* 남자들은 음악을 전혀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하고 반문하기도 한다.</p> <p>평취음, 저취음 소리 낼 때 보다 힘을 더 세게 주면 소리가 날 뿐더러 앞차 시에서 평취음과 저취음 연습을 하였기 때문에 역취음 소리가 쉽게 났다.</p> <p>50~60대 성인들은 청소년기에 음악에 관심이 덜했던 것 같아 천천히 진도를 나가면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악기에 잡아 올려 주면서 손가락의 유연성과 어느 만큼의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잡아 주었다.</p>

차시 : 7차시	날짜: 2010년 10월 11일
교육내용	계이름 또는 율명을 외워서 연습곡 1~2번 하기, 한음을 호흡이 다 할 때까지 불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지공을 막아 내려가면 소리가 잘 나지 않아 답답하니 소리내기 잘 하기
실행 내용	지공을 정확하게 막으며 손가락은 지공위에 1cm 정도 열고 막기를 하면서 호흡이 다 할 때까지 분다.
성찰 및 평가	<p>지공을 왼손은 손가락 끝으로 막고 오른손은 손가락 가운데 마디 정도로 막으면서 손가락을 지공위에 올려놓고 1cm 정도만 열고 막기를 하려하니 손 따로 마음 따로 인 듯 제멋대로 잘 안 된다. 계속 강조를 해도 쉽지가 않다. 많은 반복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p> <p>지공 막는 것과 소리 내기, 계이름 외우면서 연주하니 자세가 흐트러진다.</p> <p>제대로 되지는 않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p> <p>소리가 전체적으로 잘 나지 않지만 연습곡을 진도 나가면서 정간보와 오선보를 같이 익히게 하니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 어렵다고 한다.</p> <p>악보를 보면서 연습곡이라도 진도가 나가니 재미있어 한다.</p> <p>정년퇴직을 하신 60대 후반 학습자는 열의는 좋은데 악보 보는 방법이 더디다,</p>

차시 : 8차시	날짜: 2010년 10월 18일
교육내용	연습곡 3~4번하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정간보와 오선보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실행 내용	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평취음, 저취음, 역취음 순차진행 요구. 하행진행과 상행진행을 자유롭게 요구. 연습곡 1~2번 연주.
성찰 및 평가	<p>소리가 잘 나지 않지만 연습곡을 하면서 악보 보는 방법 등을 익히게 하니 어렵게만 느껴지는 대금 소리내기가 조금은 재미가 있어 보인다.</p> <p>정년퇴직을 하신 연세가 높으신 학습자는 열의는 좋은데 악보 보는 방법이 더디다.</p> <p>쉬운 장식음과 부호를 설명하고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우리말로 작게 연필로 쓰게 하였다.</p> <p>박자 감각이 좋으신 학습자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더딘 학습자도 있어서 박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계이름을 읽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음계에 계이름을 적어드렸더니 쉽게 익힌다. 자주 연습하고 익히면 저절로 손가락이 간다.</p>

차시 : 9차시	날짜: 2010년 10월 25 일
교육내용	아리랑 배우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음계에 게이름 적어 드리기.
실행 내용	2분, 4분, 점4분, 8분 음표를 구별해서 불기. 게이름으로 먼저 읽어 보고 대금으로 불어 보기. 숨표와 쉼표 구별하여 불기.
성찰 및 평가	박자 감각이 좋으신 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더딘 분들도 있어서 박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게이름을 읽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음계에 게이름을 적어드렸다. 2분, 4분, 8분, 점2분, 점4분음들의 박자 개념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분들은 악보 보기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다. 정간보를 보면서 율명으로 쓰여 있는 음의 높낮이 구별이 어렵다. 장식음 및 부호가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워한다.

차시 : 10차시	날짜: 2010년 11월 1일
교육내용	도라지, 밀양아리랑 배우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노래는 늘 듣고 불렀던 곡이어서 친숙한데 악보 보면서 연주가 어렵다.
실행 내용	노래곡은 가사가 있어서 혀치기가 잘되어야 하는데 3번씩 연결해야하는 혀치기가 잘되지 않아서 많은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점4분 음표 박자 쪼개는 개념을 익히고, 음계와 쉼표, 숨표를 정확하게 무릎에 손바닥으로 박자 치기를 하면서 게이름으로 노래 부르고 익히고 나서 악기로 연주하게 한다. 장식음, 부호를 알게 하여 연주하게 한다.
성찰 및 평가	2분, 4분, 8분, 점4분 박자들의 개념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분들은 악보 보기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다. 장식음, 부호가 재미가 있으면서도 어려워한다. 청 붙이는 방법이 신기하기도 하고 직접 붙여 보니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민요곡은 가사가 있어 혀치기를 ‘루’ 하고 혀로 굴러야한다. 혀치기를 하려면 음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불면서 루 하고 혀를 쳐야하는데 초보자들은 음을 ‘톡’ 끊어버리고 다시 불기를 한다. 이것은 혀치기가 아니 많은 반복 연습을 하여 자연스럽게 되도록 한다. 도라지, 밀양아리랑 CD를 들려주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차시 : 11차시	날짜: 2010년 11월 8일
교육내용	널리리야 배우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역취음의 소리내기를 잘하여 선율에 맞게 소리내기
실행 내용	널리리야에서는 역취음 소리 내기가 나온다. 입술 끝에 힘을 주고 팽팽하게 하여 입김을 입술 중앙에 모아 세게 불어야한다.
성찰 및 평가	<p>역취소리를 내면 다음차시 칠갑산 배우기에도 좋다.</p> <p>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연결해서 연습하니 힘도 들고 현기증이 난다고 쉬어 가면서 하자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2달 정도 하면 이 정도는 편하게 한다.</p> <p>역취음을 낼 때에는 입술 양쪽 끝에 힘을 주고, 입술을 팽팽하게 하여 입김을 입술 중앙에 세게 불어 넣어야 소리가 난다고 해도 그 가늠이 잘 되지 않는다. 입김만 세게 불뿐이지 입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소리가 나지 않을 때도 있다. 복식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만 들고 어지럽기만 하다. 힘이 드니 음악 감상을 하면서 열의가 식지 않고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다.</p>

차시 : 12차시	날짜: 2010년 11월 15일
교육내용	칠갑산 배우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역취음과 장식음이 매끄럽게 소리내기 잘 하기
실행 내용	전통음악적인 맛이 나는 가요 칠갑산을 배워본다
성찰 및 평가	<p>칠갑산은 전통음악적인 맛이 나는 가요로서 대금으로 연주하기에 아주 좋은 곡이며, 장식음과 부호들을 연습하기에 적절한 곡이다. 역취음과 장식음이 자유롭게 되면 듣기에 좋은 곡인데 연주하는 어려워도 재미있게 한다.</p> <p>민요를 진도 나가다 가요를 배우니 매우 흥미로워 하고 적극성을 더 보이며 소리를 더 잘 내보려고 자리에 일어서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곡을 바꾸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대금으로 연주가 가능하고 재미있게 대금을 불 수 있는 대중가요 칠갑산을 가르쳐 성인학습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보다 재미있게 대금에 가까이 갈수 있게 하였으며 칠갑산은 연주회 때는 하지 않았다</p> <p>성인학습자들은 본업이 우선이다 보니 많은 시간을 대금 부는 것에 할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 왔던 곡이나 쉬운 곡들을 배우게 함으로써 대금과 친숙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하다.</p>

차시 : 13차시	날짜: 2010년 11월 22일
교육내용	한오백년 배우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요성하는 방법과 장식음의 손가락 유연하게 하는 방법.
실행 내용	중머리 장단, 요성하는 방법, 장식음의 이해
성찰 및 평가	<p>초보자들에게서는 요성, 장식음 활용이 쉽게 되지 않는데 팔을 부지런히 흔들어서 요성을 흉내 내어 소리를 내보려고 열심히 하신다. 대금을 배우는데 있어서 요성은 또 다른 맛이 나게 한다.</p> <p>강원도민요인 한오백년은 초보자들에게 있어 지난 학기의 진도 아리랑을 정악대금으로 연주하는 것 보단 더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다. 악기가 작아서 힘도 덜 들뿐 아니라 요성하기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p>

차시 : 14차시	날짜: 2010년 11월 29일
교육내용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한오백년 연결해서 연습.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장단에 맞추면서 연주하니 소리가 정확하게 나지 않고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연주를 잘 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해소.
실행 내용	다음 주 발표회 때 리허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서 무대에서 직접 연주하는 순서대로 연습
성찰 및 평가	<p>배웠던 곡 전체를 2번씩 연결하여 연습했다. 한곡을 2번 연습하니 팔이 아프고 힘이 든다고 내리는 분도 있고 연결하여 불기도 하는데 연주회 때는 팔이 아파도 참아야하니 되도록 견디면서 연습을 해야 하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하시라고 강조 하였다. 힘이 들면 팔은 절반쯤 내려와서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소리내기도 힘들어 진다. 듣기가 좋고, 잘하신다고 칭찬도 해주었다. 잘 되지는 않지만 즐겁게 대금을 부신다. 의상을 나누어 드렸더니 마음가짐이 달라 보였다. 전문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르는 듯하다.</p> <p>누군가에게 보여 진다는 목표가 있으니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연습하고 가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였다. 비록 손가락은 더디게 움직이고 아파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좋다.</p>

차시 : 15차시	날짜: 2010년 12월 10일
교육내용	무대에서 연주하기
성인 학습자의 요구 사항	연주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
실행 내용	<p>연주는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체 수강생들 발표회를 주제로 하였다. 2010년 12월10일 금요일 저녁 19:00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연주 홀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각 과목마다 시간이 배정되어 대금반도 그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배웠던 곡들을 선보였다. 연주곡은 아리랑, 도라지,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칠갑산, 한오백년으로 각각 2번씩 반복하여 연주했고 연주 인원은 본 연구자를 뺀 11명으로 남자 7명, 여자 4명이 발표회에 참석하여 연주하였다. 연주는 전공자들 연주와는 달리 시간이 허락된 분들로 이루어졌다.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님이 바뀌어 발표회의 규모를 더 키우고 시간도 저녁으로 바꾸고 관객도 수강생들 위주가 아닌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학기와 마찬가지로 의상은 개량한복을 빌려서 입혔고 장구 장단은 본 연구자가 반주를 했다.</p>
성찰 및 평가	<p>전학기의 수업은 플라스틱 정악 대금으로 수업을 진행한 반면 이번 학기에는 플라스틱 산조대금의 6관청 사용보다는 소리내기가 좀 더 쉬운 민요 중심의 수업 진행으로 산조대금의 5관청 본청 사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보았다. 길이가 더 긴 정악 대금 보다는 더 짧은 산조대금으로 초보자들이 소리내기를 하니 정악 대금 보다는 쉽게 소리가 나고 힘도 덜 들어 대금에 접근하기는 수월 하였다. 다른 민요는 정악대금으로 연주가 용이하지만 남도 민요인 진도아리랑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널리리야, 칠갑산, 한오백년으로 곡을 바꾸었다. 널리리야에서 역취음인 청황의 소리를 연습하게 하였고, 연주회는 민요의 곡들로 구성하여 연주회를 하였다. 한오백년의 애절하고, 탄식조의 맛을 내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소리내기도 잘 하였다. 또한, 객석에서 관객의 반응도 더 좋았다.</p> <p>누구나 남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는 것은 떨리고 어렵다. 틀리면,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는 걱정을,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가 시작되면 잘 해야겠다는 생각 뿐 일 것이다. 장단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다. 연주를 마치고 무대 밖에서 해냈다는 기쁨이 가득했다. 무대에 오르기 위해 중간에 더 많이 모여서 연습하고 의상 준비하고 했던 시간들이 개인 개인 들에게는 대금에 대한 애착이 더 가져졌을 것이고 크게는 우리음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으리라는 생각이다. 비록 이번 학기만 하고 끝을 맺을 지라도...</p>

<부록 8> 2차 수정 프로그램 실행 후 성인학습자들 만족도 조사지

1. 대금지도를 어느 수준까지 받기를 원하십니까?

- ① 초급 : 쉬운 악보를 보고 연주 (동요, 가곡, 가요, 국악가요, 민요 등)
- ② 중급 : 소곡, 어려운 운지, 스케일을 연주 (간단한 시김새가 사용되어진 악보)
- ③ 고급 : 약간 어려운 연주곡들을 연주 (다양한 시김새가 사용되어진 악보)
- ④ 전공자 수준까지 (전통음악과 퓨전음악 등)

2. 오선보와 정간보를 병행해서 배우니까 악보 보기가 어떻습니까?

3. 운지법을 배우는데 있어서 게이름, 율명, 손가락 번호를 병행하니까 어떻습니까?

4. 시김새를 연습곡부터 한두 개씩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5. 악보를 보고 구음으로 익히거나, 무릎장단을 치며 구음으로 익히거나, 강사의 구음을 따라 익히는 방법으로 박자가 쉽게 익히집니까?

6. 초보 단계에서 민요를 배우시고 즐겨 들었던 가요를 배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7. 약간의 이론을 병행해서 배우시니 어떻습니까?

8.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서 세밀하게 지도하는 방법으로 배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록 9> 전문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1

본 설문지는 대금(大峇)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한 조사지로서 현재 대금을 가르치는 전문교수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금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해 보다 질 높고 만족스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밝혀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 .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채 광 자 올림

성인학습자 대상 대금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교수자들의 일반적 인식조사를 위하여 대금 선생님들이 취미로 배우시는 성인학습자들과 전공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래항목에 대하여 자유롭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취미로 배우시는 성인학습자들과 전공으로 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 취미로 배우시는 성인학습자들과 전공으로 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3. 취미로 배우시는 성인학습자들과 전공으로 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4. 취미로 배우시는 성인학습자들과 전공으로 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가?

<부록10> 전문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2

아래에 1차 대금 교육 프로그램, 2차 대금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 계획안과 실제 실행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확인하시고 아래항목에 대하여 자유롭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차시 수업의 1차와 2차의 프로그램의 차이

차시	1학기	2학기 (수정)
1차시	플라스틱 정악대금 준비.	플라스틱 산조대금 준비
2차시	소리를 내기위한 왼손가락 3개, 오른손가락 3개 막는 운지법 설명.	소리를 내기위한 왼손가락 2개, 오른손가락3개 막는 운지법 설명
3차시	지공1, 2, 3공을 왼손손가락 식지로 1번, 장지로 2공, 무명지로 3공 막는데 쉽게 막아지지 않아 소리도 나지 않고 손가락이 아프다고 호소.	지공 1, 2, 3공을 왼손손가락 식지로 1공, 장지로 2공까지 막고, 오른손 손가락 식지로 3공을 막으니 지공이 쉽게 막아져 소리가 용이하게 남.
4차시	평취 음역의 지공이 막아지지 않아 소리가 잘나지 않을뿐더러 악기를 들고 있기도 힘들다고 함.	평취 음역의 전체 음정을 소리내기를 함 (지공 전체를 막게 함).
5차시	2주 동안 평취와 저취 음정 소리내기 함. (쉽게 나지 않음)	저취 음정 전체 소리내기
6차시		평취, 저취, 역취 음정 소리 내기.
7차시	역취 음정 알고 소리 내기	정간보 읽는 법과 연습곡 1, 2번 진도 나가기
8차시	정간보 읽는 법과 연습곡 1,2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 익히며 연습곡 3, 4번
9차시	장식음 및 부호와 악상기호 익히며 연습곡 3번	아리랑
10차시	연습곡 4번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
11차시	아리랑	닐리리아

12차시	도라지타령	칠갑산
13차시	밀양아리랑	한오백년
14차시	진도아리랑 (민요 전체 연습)	아리랑,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 널리리야, 칠갑산, 한오백년 전체 연습
15차시	연주 및 감상	연주 및 감상

1. 1차 프로그램에서는 정악대금으로 2차 프로그램에서는 산조대금 5관청으로 바꾸어 수업 진행하였는데 적절하였습니까?
2. 1차 수업은 6주 소리내기, 2차 수업은 5주 소리내기를 하였는데 적절하였습니까?
3. 악보는 오선보와 정간보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쉬운 장식음, 부호들을 익히게 하였는데 적절하였습니까?
5. 수업진행시 음악에 관련된 이론을 병행하였는데 적절하였습니까?
6. 음악 선곡면에서 초보 단계에 민요, 가요 등을 익히게 하였는데 적절하였습니까?
7. 진도는 성인학습자이다 보니 천천히 세밀하게 지도하였는데 적절하였습니까?
8. 개선점, 보완점을 써주세요.

<악보 1> 아리랑 정간보

		潢	실	淋	나	潢	아	林	아	⊕
		—	리도			—	리랑	—	리랑	⊕
		— 汰潢 — 汰		淋		— 汰潢 — 汰		— 南林 — 南		⊖
		冲	뭇	淋浦淋	버	冲	고	潢	아	⊕
		— 汰潢 — 南林 — 南	가	冲	고	— 汰潢 — 南林 — 南	개	— 汰潢 — 汰	리랑	⊕
			서	— 汰潢 — 汰		— 南林 — 南	로	— 汰潢 — 汰		⊖
		潢	랄	冲	가	潢	널	冲	아	⊕
		— 汰潢	별	汰冲 汰潢 — 南	시	— 汰潢	어	汰冲 汰潢 — 南	라	⊕
			난	— 南林 — 南	는	潢	간	— 南林 — 南	리	⊖
		潢	다	林	은	潢	다	林	요	⊕
				— 南林 — 南				— 南林 — 南		⊕
		△		— 南林 — 南				— 南林 — 南		⊖

아리랑

대금

세마치장단

<악보 2> 아리랑 오선보

아리랑

아 리 랑 - 아 - 리 라 - 아 라 - 리 - 요

5

아 - 리 랑 - 고 - 개 - 로 - 념 - 어 간 다

9

나 - 를 버 - 리 고 - 가 시 - 는 님 - 은

13

십 - 리 도 - 못 - 가 - 서 - 말 - 병 난 다

<약보 3> 도라지타령 정간보

											<p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도라지타령</p> <p style="font-size: 1.2em; margin-top: 20px;">대금</p> <p style="font-size: 1.2em; margin-top: 20px;">세마치장단</p>
汰	저	汰	어	南	에	汰	심	汰	도	⊕	
冲	기	冲	여	南	헤	冲	심	冲	라	⊕	
冲	산	冲	라	南	요	冲	이	冲	지	⊕	
汰	도	冲	난	南	에	汰	산	冲	도	⊕	
一	라	一	이	南	헤	一	천	一	라	⊕	
汰	지	汰	다	南	요	汰	원	汰	지	⊕	
一	가	一	이	南	이	一	에	一	지	⊕	
南	한	淋	지	潢	에	南	백	淋	백	⊕	
潢	들	淋	자	潢	헤	潢	도			⊕	
一	한	南	이	汰	이	一	라	南	도	⊕	
一		淋	이	冲	이	南		淋	라	⊕	
林	들	冲	종	潢	야	林	지	冲	지	⊕	
		一	이					一		⊕	
△		潢	다	汰				潢		⊕	

<악보 4> 도라지타령 오선보

도라지타령

세마치장단

대금

돌-라지 돌-라지 뽕-깨 도-라지

5
십-파 십-파 샴-켄 뽕-도-라지

9
에-헤요 - 에-헤요 에-헤이 야

13
어-여-라 난-다 지-화-자 좋-다

17
저-기-저-산-밑-에 도-라-지-가-한-들-한-들

<약보 5> 밀양아리랑 정간보

										밀양아리랑 대금 세마치장단	
		冲 一 达 南 一 漑	아 리 랑	南 一 南 一 南 一 南	아 리 랑	冲 一 达 南 一 漑	동 지 선 달	浦 一 淋 冲	남 북 보 소		⊙ ⊙ ○ -
		冲 一 达 南 一 漑	고 개 로	南 一 南 一 南 一 南	쓰 리 쓰 리 랑	冲 一 达 南 一 漑	꽃 본 뭇 이	浦 一 淋 冲	남 북 보 소		⊙ ⊙ ○ -
		漑 一 达 南 一 林	남 넘 겨 주	浦 一 淋 冲 一 达	아 리 가 자	漑 一 达 南 一 林	남 품 보	浦 一 淋 冲 一 达	남 북 보		⊙ ⊙ ○ -
		南 一 漑 一 南	소	淋 一 浦 淋 冲	네	南 一 漑 一 南	소	淋 一 浦 淋 冲	소		⊙ ⊙ ○ -

<악보 6> 밀양아리랑 오선보

밀양아리랑

세마치장단

대금

날 줌 보 소 날 줌 보 소 날 줌 - 보 - 소

5
동지 선 달 꽃본 듯 이 날 줌 보 소

9
아 리 아 리 랑 쓰 리 쓰 리 랑 아 라 리 가 났 네

13
아 리 랑 고 개 - 로 날 념 거 주 소

<악보 7> 진도아리랑 정간보

										진도아리랑 대금 세마치장단	
		구부	潢潢	분	潢沽	아	林	아	林		⊖
		아	潢	경	沽	리	潢	리	潢		⊖
		아	汰 [^]			랑	潢	랑	潢		○
		구부	淋沽	세	沽	운	潢	쓰	林		⊖
		구부	沽汰	계	沽淋	운	潢	리	潢		⊖
		아	潢	는	汰 [^]	운	汰 [^]	랑	潢		○
		눈	潢	렌	潢	아	潢	아	潢		⊖
		플	汰 [^]	고	沽	리	淋	리	潢		⊖
		이	潢		淋		汰 [^]	가	汰 [^]		○
			林		汰 [^]	가	林	났	汰 [^]		○
		난	潢	겐	潢	났	潢	네	潢		⊖
		다	潢	가	林	네	潢		潢		⊖
									淋		○
									淋		○

<악보 8> 진도아리랑 오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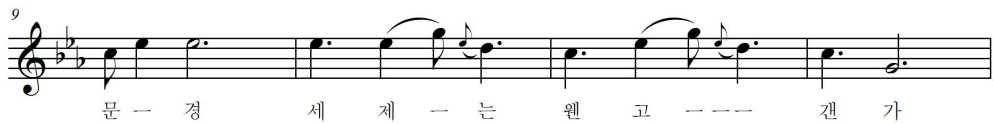
진도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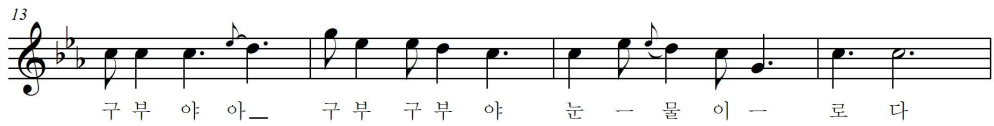
아 리 아 리 랑 쓰 리 쓰 리 랑 아 라 리 가 났 네 - - -



아 리 랑 음 음 음 아 라 리 가 났 네



문 경 세 제 는 웬 고 갠 가



구 부 야 아 구 부 구 부 야 눈 물 이 로 다



아 리 아 리 랑 쓰 리 쓰 리 랑 아 라 리 가 났 네 - - -



아 리 랑 음 음 음 아 라 리 가 났 네



노 다 가 세 노 다 나 가 세



저 달 이 벗 다 지 도 록 노 다 나 가 세

<악보 9> 연습곡 1, 2 정간보

연습곡											
연습곡 2번						연습곡 1번					
			泚	漚					汰	漚	
			汰	淋							
			←泚	←漚		△			△		
			泚	漚		泚			淋		
			汰	泚							
			←泚	←漚		△			△		
			泚	汰		汰			泚		
			汰	泚							
			←泚	←漚		△			△		
			泚	漚		泚			泚		
				林							
			△			△			△		

<악보 10> 연습곡 1, 2 오선보

연습곡.01

Musical notation for Exercise 01, consisting of two staves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The first staff contains four measures of music, each starting with a dotted half note followed by a quarter rest. The second staff starts with a measure number '5' and contains four measures of music, each starting with a dotted half note followed by a quarter rest, ending with a double bar line.

연습곡.02

Musical notation for Exercise 02, consisting of two staves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hree flats. The first staff contains four measures of music, each starting with a half note followed by a quarter rest. The second staff starts with a measure number '5' and contains four measures of music, each starting with a half note followed by a quarter rest, ending with a double bar line.

<악보 11> 연습곡 3, 4 정간보

										연습곡 4 번										
										연습곡 3 번										
						漚	漚 [△]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漚							

<악보 12> 연습곡 3, 4 오선보

연습곡 .03

Musical notation for Exercise 03, consisting of two staves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The first staff contains four measures of quarter notes: C4, D4, E4, F4; G4, A4, B4, C5; D5, C5, B4, A4; G4, F4, E4, D4. The second staff starts with a measure rest marked '5', followed by four measures of quarter notes: C4, D4, E4, F4; G4, A4, B4, C5; D5, C5, B4, A4; G4, F4, E4, D4, ending with a double bar line.

연습곡 .04

Musical notation for Exercise 04, consisting of two staves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The first staff contains four measures of quarter notes with slurs: C4, D4, E4, F4; G4, A4, B4, C5; D5, C5, B4, A4; G4, F4, E4, D4. The second staff starts with a measure rest marked '5', followed by four measures of quarter notes: C4, D4, E4, F4; G4, A4, B4, C5; D5, C5, B4, A4; G4, F4, E4, D4, ending with a double bar line.

<악보 13> 빌리리아 정간보

										빌리리아 대금 굿거리장단	
나	沖	청	漚	림	潢	나	沖	림	漚		⊖
나	沖	사	漚			나	沖	림	漚		
노	一 汰	츠 ㅣ	漚	림	潢		一 汰	림	漚		i
난	淋	동	淋	림	林	난	淋	야	淋		○
실	沖 汰		리	潢	실	沖 汰	
트	潢		리	汰	트	潢			
대	汰	불	漚	림	潢	대	汰 [^]	림	漚		○
가	沖	ㅣ	淋	리	潢	가	沖	리	漚		
틀	汰	밖	漚		潢	틀	汰	리	漚		
아	潢	ㅣ	漚	리	南	아	潢	리	漚		i
간	南	현	漚		南	간	南	리	漚		
간	南					간	南				
다	林	라	淋	야	林	다	林	야	淋		○
		一	
				南		漚		
						淋		

<악보 14> 널리리야 오선보

널리리야

널 리 리³야 널 리 리야

5

니 나 노 난 실로 내가 돌아간다

9

널 널리리야 널리리야

13

청 산 초³롱 불 밤 혀 라

17

잊 었 던 남 군이 다시 돌아온다

21

널 널리리야 널리리야

<악보 15> 칠갑산 정간보

												칠갑산		
칠갑산	汰	흘 어 머 니	沾	포 기 마 다 눈 · 물	淋 冲	루 슨 설	湍	배 적 삼 이 흘 백	南 潢	공 발	湍			
	冲		一 冲		淋 冲		淋 冲		湍		汰 冲		湍	
	淋		淋 冲		冲 沾		沾 汰		潢		淋 湍			
산 다 루 !	湍	두 고	沾	심 누 · 나	南	음 · !	汰	젓 는 · !	淋	메 · 는	湍 淋			
	一 潢													湍
	汰 潢		湍		冲 沾		潢		淋 冲 淋					
에	湍	시 질 가 던	汰	· 나	汰	그 리 랑 · 아	湍	다	湍	아 · 낙 · 네 · 야	淋 冲			
			汰				潢				淋 冲 湍			
			汰 潢				湍 淋				冲 沾 汰			
		날	汰	· 나		아	湍	· 나		야	南			
	△				△				△					

															어 린 가 슴 속 을 때	南 [^] 潢	을	汰
																汰	어 주 ㅣ	一 潢
																冲 淋 浦		汰 潢
																淋 [~]	던	浦 [~]
																冲 ³		
																산 ㅣ 새 ㅣ 소 ㅣ 리	淋 冲	X 淋 浦
																	冲 ³ 濇	
																	汰 [~]	汰
																만	南 [~]	
																△		

<악보 16> 칠갑산 오선보

칠갑산

작곡 : 조운파

콩 발 메³ - 는 아_낙 - 네_____ 야

5 배 적 삼 이 흙 백 젓 - 는_____ 다_____

9 무 슨 설 움 - - - 그 리 많_____ 아

13 포 기 마 다 눈 - 물 심 누 - 나_____

17 홀 어 떠 니 두 고 시 집 가 던 날

21 칠 갑 산 산 마 루 - 에_____

25 울 어 주_____ 턴 산_____ 새_____ 소_____ 리 만

29 어 린 가 습 속 을 태 윗_____ 소_____

<약보 17> 한오백년 정간보

											한 오 백 년	대 음 중 퇴 리
汰	汰	임	湍	백	汰	관	汰	남	남	○		
汰	汰	생	一	사	一	남	南	南	南			
			淋	장	汰							
汰	汰	겨			一					i		
泫	泫	여			泫							
淋	淋	말	淋	세	淋	살	汰	南	南	○		
一	一	라	一	모	一	자	汰	南	南			
泫	泫	고	淋	래	泫	남				一		
南	南	고	泫	발	汰	南	泫	泫	泫	一		
			泫	에	南	南	泫	泫	泫	一		
汰	汰	비	湍	침	汰	관	湍	南	南	○		
一	一	나	一	성	一	남	一	南	南			
汰	汰	이	淋	당	汰	성	淋	南	南	○		
一	一	이	一	을	一	남	泫	泫	泫	一		
泫	泫	다	泫	모	泫	남	泫	泫	泫			
			泫	이	一					○		
			南			汰	南	南	南	○		
										○		

<악보 18> 한오백년 오선보

한오백년



<악보 19> 똑똑 숨어라, 월위리 청청 정간보

										똑똑 숨어라 월위리 청청 대금 자진모리장단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泃		○

<악보 20> 푹푹 숨어라, 월위리 청청 오선보

푹푹 숨어라

푹 푹 숨 어 라 푹 푹 숨 어 라

3
텃 발 에 도 안 된 다 상 추 끼 앓 밍 는 다

The musical score for '푹푹 숨어라' is written in 12/8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The melody consists of two lines. The first line has a dotted quarter note followed by an eighth note, then a quarter note, and a dotted quarter note. The second line has a quarter note, an eighth note, a quarter note, and a dotted quarter note. The lyrics are placed below the notes.

월위리 청청

월 위 리 청 청 월 위 리 청 청

3
달 아 달 - 아 밝 은 달 아 월 위 리 청 청

The musical score for '월위리 청청' is written in 12/8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The melody consists of two lines. The first line has a dotted quarter note followed by an eighth note, then a quarter note, and a dotted quarter note. The second line has a quarter note, an eighth note, a quarter note, and a dotted quarter note. The lyrics are placed below the notes.

<악보 21> 어깨동무 정간보(국립민속국악원장, 2004).

								어 깨 동 무
㉠	동	어	동	동	어	동	동	
—	부	—	부	—	부	—	부	
—	동	—	동	—	동	—	동	
—	부	—	부	—	부	—	부	
—	어	—	어	—	어	—	어	
—	깨	—	깨	—	깨	—	깨	
—	동	—	동	—	동	—	동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	부	

<악보 22> 어깨동무 오선보

어깨동무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song '어깨동무' (Shoulder Dance). It consists of two staves of music in 3/8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melody is written in a treble clef.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동 무 동 무 어 깨 동 무 어 디 든 지 같 이 가 고

³
동 무 동 무 어 깨 동 무 언 제 든 지 같 이 놀 고

<악보 23> 천년바위 정간보

												천년바위
살 은	林	생 은	南 南	집 시 되 어	無 無	세 상	林	절 새 차 렘	無 無	동 내	汰	
	林				無 無 -		林		無 無 -		汰	
루 엇 인 가	無	루 엇 인 가	南	꽃 으 리	南	이 던 가	林	떠 나 리	南	저 편 에	汰	
	-		-		-		汰		-		-	
	林		林南		林		仲林		林		仲林	
요 오 ㅣ ㅣ	-	요	-	라	林	마 음 들 곳 을	潢	라	-	던 동 이 트 면	潢	
	汰		太						仲太			
	-						음		-			
ㅣ ㅣ	汰						潢				林	

천년바위

장악전

<악보 24> 천년바위 오선보

천년바위

작곡 장옥조
편곡 예탈

동 녘 — 저 편 에 먼 둥 이 트 먼 — 칠 새 처 럼 — 떠 나 리 — — 라 — — —

9
세 상 — 어 던 가 마 음 줄 곳 — 을 — 짐 시 되 어 — 찾 으 리 — 라 — —

17
— 생 은 무 — 엇 — 인 가 — 요 — — 삶 은 무 엇 인 나 — — 요 — 오 — — —

25
부 질 없 — 는 — 욕 심 으 로 — — 살 아 야 만 — 하 — 나 — —

33
천 년 바 위 — 되 — 리 — 라 — — 1. — — 2. — —

감사의 글

대금 연주 능력만이 저의 전문성이 전부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온 제가 교육을 배우겠다고 발을 들여 놓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감사의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논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심하게 지도 해주시며 주말과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시지도 못하고 저에게 빼앗기신 서덕희 지도교수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에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배영주 교수님, 항상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아 지도해주시는 성심온 교수님, 음악적 방향을 지도해주신 김지현 교수님, 김대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대금의 첫걸음을 걷게 하시고 대금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게 해주신 인간문화재 일란 조창훈 선생님과 대금산조의 명인 소림 서용석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연주자, 여민락 카페 회원, 대금연주단 여울림 단원, 가톨릭대 대금 수강생 그리고 빛고을 국악전수관 수강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 희생과 사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곁에서 힘을 주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딸 선민, 은성이가 있었기에 가능했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채광자